

한라산 총서 Ⅲ

한라산의 역사·유적

## 목차

### 제1장 한라산과 주민생활에 대한 사적 고찰

1. 주민생활 속의 한라산 11  
한라산이라는 명칭의 사용 / 11  
신앙대상으로서의 한라산 / 13  
준거 지표로서의 한라산 / 16  
생활자원 제공처로서의 한라산 / 19  
한라산 등반 기록의 사서와 등반자들 / 23

### 제2장 한라산 주변 일대의 문화유적

1. 들어가는 글 29
2. 한라산 영실지역 고사찰 32  
존자암 / 32  
수행굴 / 37
3. 한라산 북쪽 지역 고사찰 40  
수정사지 / 40  
원당사지 / 50
4. 한라산 남쪽 지역 고사찰과 영천관지 60  
법화사지 / 60  
영천관지 / 97

### 제3장 한라산과 그 주변 동굴유적의 분포와 성격

1. 들어가는 글 113
2. 동굴유적의 분포와 검토 115  
서사면 동굴유적 / 116  
동사면 동굴유적 / 118  
남사면 동굴유적 / 120  
북사면 동굴유적 / 124
3. 동굴 유적의 유형 131
4. 동굴유적의 성격 134

유적의 연대 / 134

유적의 기능 / 137

5. 나가는 글 141

제4장 제주도내 오름과 일제 군사유적

1. 제주도내 오름과 일제군사유적 155

들어가며 / 155

태평양전쟁 말기 제주도 주둔 일본군 / 156

오름에 남아 있는 일제 군사유적 / 172

제5장 한라산의 4·3유적

1. 한라산의 4·3유적 199

들어가며 / 199

무장대 훈련장 / 200

무장대 근거지 / 203

주민피신처 / 204

토벌대 주둔지 / 206

잃어버린 마을 영남동 / 211

한라산개방 평화기념비 / 213

나오며 / 214

참고문헌 215

사진 목차 223

그림 목차 227

표 목차 227

색인 228

## 제1장 한라산과 주민 생활에 대한 사적(史的) 고찰

### 1 주민생활 속의 한라산

#### 한라산이라는 명칭의 사용

예나 지금이나 한라산은 주민 생활에 자원을 제공하는 터전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신앙 행위의 대상으로서 인식되는 존재이기도 하다. 한라산과 주민 생활의 관계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생겨나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음은 각종 사서(史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라산이라는 명칭이 기록에 드러나는 것은 조선시대 1397년(태조 6) 권근(權近)이 지은 어제시(御製詩)가 가장 이른다. 그는 탐라(耽羅)라는 시제(詩題)를 내걸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를 지었음이 『태조실록(太祖實錄)』 권11, 태조 6년 3월 신유(辛酉)조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푸르르고 푸른 한 점의 한라산(漢羅山)이,  
만경창파 아득한 속에 멀리 있네.  
사람이 별[星芒]을 움직여 바다 나라에 왔었고,  
말은 용의 씨를 낳아서 천한(天閑)에 들어갔다오.  
땅은 궁벽되나 백성들이 업이 있어 살아가고,  
바람이 편하면 장삿배가 겨우 오고가오.  
성명의 시대에 직방(職方)에서 판적(版籍)을 꾸밀 때,  
그 고장 누추하지만 부디 빠뜨리지 마옵소서.

그러나, 한라산이라는 명칭은 1374년 이전부터 이미 사용되었다고 보인다. 즉, 고려 말 최영(崔瑩) 장군이 제주도 몽골족 목호세력(牧胡勢力)의 반란을 평정하러 왔던 1374년(고려 공민왕 23)에 군대를 ‘한라산’ 아래 주둔시켰다는 사실이 『고려사(高麗史)』 권 113, 열전(列傳), 최영전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라산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38, 제주목(濟州牧), 산천(山川)조에 은하(銀河)를 끌어당길 만큼 높다는 연유로 1481년 이전에 이미 붙여진 호칭이나, 봉우리가 평평하고 둥근 탓에 두무악(頭無岳), 혹은 원산(圓山)으로 일컬어져 왔었던 일도 기록되어 있다.

한라산이 오늘날과 같은 명칭으로 일컬어졌음이 확인되는 시기는 14세기 후반 무렵부터이다. 그러나, 한라산이 주민 생활 속에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훨씬 그 이전부터였다.

#### 신앙대상으로서의 한라산

고려는 건국 초창기부터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신앙 행위로 산천숭배(山川崇拜) 등이 성행하고 있었다. 이후 일부 산천은 사전(祀典)에 올려져 국가제사가 거행되었다.

고려시대 때 산천의 신(神)에게는 『고려사』 권21·24, 세가(世家), 신종(神宗) 즉위년 11월·고종(高宗) 40년 10월조에 의하면, 두 차례에 걸쳐 한 번은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호(號), 다른 한 번은 ‘제민(濟民)’이라는 호도 더해졌다. 여기에는 탐라의 신도 해당되었음이 특기되어 있다. 그리고 탐라의 신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산천의 신이며, 그것은 제주도에서 가장 중심적

이고, 우뚝 솟은 한라산의 신을 지칭하였음이 틀림없다. 이는 하나의 유형으로 간주될 만큼, 오랜 옛날부터 제주의 많은 마을에서 들을 수 있는 호종단(胡宗壇) 설화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호종단 설화는 1981년 현길언 채록의 『제주도의 장수설화』 등에 실려 있는 한편, 조선시대 1481년(성종 12) 편찬의 『동국여지승람』 권38, 제주목, 사묘(祠廟)조에 광양당(廣壤堂)의 내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고려 때 송나라 사람 호종단(胡宗壇)이 제주에 와 지기(地氣)를 누른 다음, 해로로 돌아가는 데, 신[한라산신의 동생이 죽어서 된 신]이 때로 변해 뚝대머리에 날아 올랐다. 잠시 후 북풍이 크게 불어서 호종단의 배를 쳐부수니 그가 비양도(飛揚島) 바위 사이에서 죽었다. 조정에서 그 신령스러움을 포상해 식읍(食邑)을 주고 광양왕(廣壤王)으로 봉하고, 해마다 향과 예물을 내려주어 제사지냈는데, 본조[조선]에서는 본읍[제주]이 제사케 하였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제주목, 사묘조).

『동국여지승람』에는 호종단 설화가 ‘속설’이라는 전제를 두고 실려 있기는 하나, 조정(朝廷)에서 광양당의 신령스러움을 포상해 토지를 줌과 아울러 광양왕(廣壤王)이라는 작호(爵號)도 주고, 해마다 향과 예물을 내려주어 제사를 치르게 했다는 내용도 전해주고 있다.

호종단은 1106년~1146년경에 걸쳐 고려의 벼슬을 지냈던 실재 인물이다. 그는 송나라 사람이고, 지기(地氣) 누르는 술법을 익힌 인물이라는 사실은 그의 행적이 실려 있는 『고려사』 권97, 열전, 유재(劉載) 부(附) 호종단전에서도 확인된다. 여기에는 그가 1106~1146년경에 걸쳐 고려에 와 벼슬을 지냈음이 드러나고 있으나, 호종단 설화에 나와 있는 행적 또는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미세한 근거도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때문에 호종단이 제주의 지기를 눌렀거나, 그로 인해 이 곳 신의 노여움을 받아 죽었다는 사실 등은 믿을 수 없을 듯하다. 그럼에도, 한라산신 또는 그에 버금가는 제주의 산신은 이 지역에 위해를 가하는 자에게는 재앙을 내리는 수호신으로서 인식되어 고려시대 때부터 제주 사람들에게 숭배되고 있었음은 실제의 역사적 사실이라 하겠다. 그리고 제주의 산신에게 식읍과 광양왕의 작호가 주어졌고 매해 예물까지 내렸다는 것은 과장이 섞였겠지만, 제사비용으로 일정액의 곡식이 책정됨과 아울러 일종의 작호가 수여되고, 향과 축문을 내려 국가제사가 거행된 것 또한 실제의 역사적 사실이었다.

조선시대 들어와서도 한라산에 대한 신앙적 행위는 계속되었다.

조선시대 때 한라산은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전라도, 제주목조에 보이듯이, 제주도를 수호하는 진산(鎭山)으로 인식되는 한편, 제주목의 남쪽에 자리잡은 한라호국신사(漢拏護國神祠)에는 광양당(廣壤堂)이 마련되어 있었음이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제주목, 사묘(祀廟)조에 드러나고 있다. 2002년 강정식의 『제주도(濟州島)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에 의하면, 광양당에서는 제주 사람들이 무속적(巫俗的) 형태의 제사를 거행했다. 이 때 가장 으뜸이 되었던 숭배대상이 한라산신이였다. 기근이나 흉년, 혹은 자연재해가 들었을 때도 한라산에 대한 치제(致祭)가 이루어지곤 하였다. 또한 조선정부는 한라산을 사전(祀典)에 올려 정기적으로 국가제사를 거행하였다. 이 때도 민가(民家)와 관가(官家) 모두 한라산을 신앙적 숭배대상으로 섬겼던 것이다.

전통적으로 한라산신제(漢拏山神祭)는 한라산 정상 백록담(白鹿潭) 주변에서 치러졌다. 그러던 중 제단(祭壇)이 1470년 제주목사 이약동(李約東)에 의해 산천단(山川壇)으로 옮겨졌다. 이는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 권1, 단묘(壇廟)조와 1996년 제주시·제주대학교박물관이 편찬한 『제주시의 옛터』 등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한라산신제를 지내기 위해 많은 주민이 백록담으로 올라가다가 도중에 얼어죽는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제단을 산천단으로 옮겼던 것이다. 하지만 한라산신제는 계속 백록담 주변에서 치러졌던 경우가 많았다.

오늘날에도 매년 정월 초 제주시 아라동 산천단 주민들은 산천단 곰솔나무 밑 한라산신 제단에서 산신제를 지낸다. 또한 제주의 가장 큰 축제인 탐라문화제도 산천단에서 한라산신제를 지내는 것을 제일 첫 의식으로 삼는다.

한편, 앞서 언급한 2002년 강정식의 연구에 의하면, 한라산은 제주도 각처에 산재한 신당(神堂)의 당신(堂神)들을 하나의 혈연적 계보로 묶어 파악할 만큼 많은 당신이 공유하는 공통의 출생처임이 당신본풀이에서 드러난다. 이들 당신본풀이는 신당에 좌정한 신들의 내력이 구전을 통해 전해진 것이며, 이들 당신은 당신앙의 숭배대상이다.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연원은 섬이 되고 난 제주도에 사람들이 살 때부터 생겨났을 원초적 신앙에서 비롯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신본풀이의 내용이 무속적(巫俗的) 문화배경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때문에 한라산이 주민들의 숭배대상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도 당신본풀이의 연원과 때를 같이했다고 보인다. 즉, 한라산이 신앙적 숭배대상으로 섬겨지기 시작한 것도 무속적 신앙이 생겨났을 고대사회 이전부터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라산은 신격화(神格化)가 이루어진 고대사회 이전, 즉 상고시대(上古時代)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마을과 개인의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불러들이는 한편, 제주 지역에 해를 끼치는 자에게는 재앙을 내리는 수호신으로도 인식되어 제주 사람들의 숭배대상으로 섬겨져 왔었다고 하겠다. 또한 고려시대에 와서는 한라산에 대한 주민들의 신앙 행위가 국가에 의해서도 받아들여져 국가제사가 거행되기에 이르렀고, 이는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나아갔다. 또한 현대에 와서도 한라산은 신앙의 대상으로 섬겨지고 있다고 하겠다.

#### 준거 지표(指標)로서의 한라산

한라산은 주민 생활과 그 인식에 하나의 준거 틀로 작용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한라산은 제주도 지역에서 우뚝 솟아올라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중심점이 되는 곳에 자리잡고 있다. 이는 197개에 달하는 제주도의 행정동(行政洞)과 행정리(行政里) 가운데 단 두 곳, 즉 고내리(高內里)와 대평리(大坪里) 지역의 마을에서만 한라산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또한 제주도의 지형과 지세는 한라산의 화산폭발 이후 갖추어졌다. 이에 제주도 지역은 한라산 정상부로부터 점차적으로 해발고도가 낮아지면서 해안가에 이르는 형태를 띠게 되었다. 1996년 현용준 편찬의 『제주도 전설』 등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설화와 전설에서도 오름 등과 같은 제주도의 자연지형이 한라산 본체로부터 떨어져나가 생성된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는 편이다.

한라산은 거의 모든 제주도 내의 마을에서 바라다 볼 수 있는 규모와 위치를 갖춤과 아울러, 제주도 지역을 낳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이해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다 보니 제주도 지역의 방위(方位)는 한라산을 기준으로 삼아 구분하는 인식이 생겨났다.

(충렬왕) 26년 경자(庚子)에 동·서도현(東西道縣)을 설치하였다.- 현촌(縣村)은 곧 귀일(貴日 : 애월읍 귀일리)·고내(高內 : 애월읍 고내리)·애월(涯月 : 애월읍 애월리)·곽지(郭支 : 애월읍 곽지리)·명월(明月 : 한림읍 명월리)·신촌(新村 : 조천읍 신촌리)·함덕(咸德 : 조천읍 함덕리)·김

녕(金寧 : 구좌읍 김녕리)·호촌(狐村 : 남제주군 남원읍신·하례리)·홍로(洪爐 : 서귀포시 서·동홍동)·예래(猓來 : 서귀포시 예래동)·산방(山房 :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리)·차귀(遮歸 : 한경면 고산리) 등이다. 『탐라지(耽羅志)』 제주, 연혁조).

이는 고려시대 1300년(충렬왕 26)에 시행된 제주도 지역의 행정단위 개편을 알려주는 내용이다. 이 때 제주도 지역은 제주목을 중심에 두고 양쪽으로 14개 군현이 신설되었는데, 이들 군현이 각각 한라산을 기준으로 삼아 동쪽과 서쪽의 행정단위로 구분·파악되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도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1·33, 태종 16년 5월 정유(丁酉)·태종 17년 5월 갑진(甲辰)조에 드러나고 있듯이, 한라산을 기준에 두고서, 북쪽은 제주목(濟州牧), 동쪽은 정의현(旌義縣), 서쪽은 대정현(大靜縣) 등이 각각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혹은 산남(山南)과 산북(山北)으로 나누고, 산북(山北)은 제주목(濟州牧), 산남(山南)은 정의·대정현이 관할하는 지역으로 각각 구분해 파악하기도 했다.

지금에 이르러서도 제주도는 한라산을 기준으로 삼아 동부와 서부, 혹은 산북과 산남 지역으로 나뉘어지며, 그에 따라 지역 정서와 연고주의가 형성·추구되는 경우를 왕왕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제주도 지역의 행정단위도 한라산을 중심에 두고, 남북을 나누어 편제한 남제주군(南濟州郡)과 북제주군(北濟州郡)으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다.

한라산이 제주도 지역 방위 구분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인식은 고려시대 때부터 이미 생성되어 있었고, 그것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한라산은 주민 생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방지배 편제방식에서도, 공히 방위 구분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지는 존재이다.

한편, 한라산이 자리잡은 제주도(濟州道)는 남한(南韓)의 최남단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게다가 한라산은 남한 지역 내에서 가장 높다. 때문에 제주도는 조선시대 초창기부터 이미 한민족(韓民族) 영역의 남방 경계 끝으로 주목받았고, 그 상징성으로는 한라산이 내세워지곤 하였다. 이는 앞서 소개한 권근(權近)의 어제시(御製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라산의 위치와 그 규모는 한라산으로 하여금 한민족 영역의 범위를 뜻하는 상징성을 띠게도 하였던 것이다. 이는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진 민족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활동에서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캐치프레이즈가 활발하게 내세워지는 작금의 사정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 생활자원 제공처로서의 한라산

한라산은 생업활동의 터전과 각종 특산물 산출의 자연환경을 갖추게 해 주었던 존재이기도 하다.

제주 주민은 3~7세기 무렵부터 목축을 활발하게 행하였다. 특히 고려시대 들어와서는 국가 수요의 상당량이 제주 말로 충당될 만큼 제주에서는 말(馬) 사육이 성행했다. 더욱이 제주 주민이 몽골족과 더불어 말 사육을 향하기 시작한 13세기 말부터는 동·서아막(東西阿幕)이라 일컬었던 탐라목장이 세계 도처에 위치한 몽골 제국의 14개 국립목장 가운데 하나로 간주될 만큼 규모가 커졌고, 제주도의 산과 들에는 말이 가득했다고 할 정도에 이르렀다. 이 무렵부터 제주도의 말 사육은 제주도 전 지역, 즉 한라산 산간지대도 방목지로 삼고, 풀어놓아 기르는 방목방식도 함께 취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도 10개 소장(所場) 등의 국립목장이 한라산 산간지대와 중산간 지대에 걸쳐 설치

되어 전국 말 수요의 대부분을 충당하는 등, 우마사육이 민가와 관가에서 계속 성행해 나아갔다. 근래에 들어와서도, 1973년의 한 통계에 의하면 전국 말이 1만3,100필인데, 이 가운데 70%가 제주도 산이었다. 이 수치는 제주도의 총면적이 대략 5억 5,000만여 평으로 전국토의 1.8%에 불과한 점을 감안한다면, 놀랄 만한 점유율이다.

1,000여 년 동안 이어진 제주도의 말 사육은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옛말도 나오게 할 정도로 왕성했는데, 이는 한라산의 존재에 말미암은 바가 컸다. 이는 1998년 고광민의 「제주도 마소치기의 기술과 문화」(『제주도』 102, 제주도청)라는 연구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제주도 지역은 섬 전체가 우뚝 솟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완만한 비탈을 이루고 있는 형상이며, 비교적 겨울철이 따뜻하고, 여름철은 시원한 편이다. 목초도 풍부하게 자생한다. 더구나 자주 쏟아지는 폭우의 빗물이 한라산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의 비탈로 급하게 흘러내려 만들어놓은 여기저기의 내는 말과 소가 함부로 넘나들 수 없는 담 구실을 한다. 그리고 완만한 비탈을 이루면서 해발 1,950m에 이르는 한라산 지역은 이렇게 풀이나 나뭇잎의 싹트기가 해발 낮은 곳으로부터 정상까지 천천히 올라가며, 시들기는 정상으로부터 해안 낮은 곳까지 서서히 내려온다. 말과 소의 먹이가 되는 풀이나 나뭇잎의 생육과 시들기 이동이 뚜렷하기 때문에 우마(牛馬) 주인은 절기에 따라 우마의 소재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제주도 지역은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제주목 토산(土産)조에 기록되고 있듯이, 한라산의 존재 때문에 목축의 신(神)이 임한 곳으로 여겨질 만큼 천연적 방목지 조건을 갖추게 되었고, 이에 힘입어 제주 주민은 넓은 지역에 걸쳐 말 방목이 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말 사육의 성행은 2003년 김일우의 「고려 후기 제주·몽골의 만남과 제주사회의 변화」(『한국사학보(韓國史學報)』 15)라는 연구에서 밝혀놓았듯이, 경제력과 인구증가 등과 같은 사회규모의 확대를 가져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제주사회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라산은 제주 주민들에게 오늘날의 제주사회 형성의 모태로도 작용했던 생업활동의 터전을 마련해 준 존재라고도 하겠다.

한편, 한라산은 2003년 강정효의 『한라산』이라는 연구에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해발고도가 1,950m에 달하다 보니, 아열대(亞熱帶) 식물부터 한대(寒帶) 식물까지 수직 분포가 이루어져 있는 식물 생태계의 보고라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여기에는 특산식물만 하더라도 75종으로 우리나라의 어느 산보다도 많다. 더욱이 국용(國用)에 널리 쓰이기에 국가에서 거두어들이고, 주민생활에도 긴요한 특용작물도 상당수 분포되어 있다. 즉, 안식향(安息香)·이년목(二年木)·비자목(匪子木)·산유자(山柚子) 등의 열매와 목재는 『예종실록(睿宗實錄)』 권3, 예종 1년 2월 갑인(甲寅)조 등과 같은 각종 사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처럼 약재나 향료, 혹은 재목으로 중앙정부에 진상품으로 바쳐지는 공물(貢物)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민가에서도 유용하게 쓰였던 한라산 지역의 특용작물이었던 것이다. 또한 노죽(蘆竹)은 제주도에 흉년이 들었을 때 상당수 주민이 그 열매인 죽실(竹實)을 먹어 살아남았던 적이 있는 한라산 지역의 구황작물에 해당했음도 『경종실록(景宗實錄)』 권13, 경종 3년 7월 신사(辛巳)조에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2003년 강정효의 저서에 의하면, 비자나무는 목재로서도 매우 훌륭하고, 그 열매 비자는 구충제(驅蟲劑)·강장제·치질·기침 감기·황달 등에 약효가 뛰어나며, 또한 식용유·등불기름·머릿기름으로도 사용되는 등 다용도로 쓰였다고 한다. 제주도 비자나무는 한반도 육지부의 이식재배와는 달리 자생으로 보이며, 그 열매가 고려시대 때부터 중앙정부에 진상품으로 바쳐졌고, 그것이 조선시대에도 이어졌다. 일제(日帝)도 주민들에게 비자나무 열매를 주워가지 못하도록 해 전량 일본으로 반출해 갔다. 이렇듯 제주도의 비자림은 국가권력에 의해 철



저하게 관리된 것으로 보인다.

한라산 지역은, 중앙정부의 공물대상이고 혹은 전시체제하의 국용에 필요하였음과 아울러 주민 생활에도 널리 유용했던, 특용작물이 자라는 곳으로도 그 존재가치가 높았다고 하겠다. 이는 천연기념물 제374호로 지정된 북제주군 구좌읍 평대리 비자림에서 엿볼 수 있다. 즉, 평대리 비자림 지대가 오늘날 제주도에서 가장 울창한 숲으로 손꼽을 수 있음과 동시에, 약 44만 8,000㎡(13만 6,000평)에 달하는 균락을 이루어 세계적으로도 규모가 가장 크며, 또 하층구조의 양호한 발달 등은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진 국가의 관리·보존에 힘입은 바가 컸던 것이다.

## 한라산 등반 기록의 사서와 등반자들

한라산은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경탄을 자아내는 존재이기도 하다.

한라산이 주민 생활 및 그 의식과 관련을 맺기 시작한 것은 상고시대(上古時代)부터 비롯되었다고 보이나, 여기에 올랐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은 임제(林悌)의 저서 『남명소승(南溟小乘)』이 가장 이르다. 즉, 『남명소승』에는 과거 급제자 임제가 1578년에 한라산을 오르는 과정과 그 경관을 읊은 시 등이 실려 있는 것이다. 이어 『남사록(南統錄)』에는 1601년 제주안무어사(濟州按撫御史) 김상헌(金尙憲)의 등반기, 「와유록(臥遊錄)」에는 1609년~1610년 사이에 이루어진 제주판관(濟州判官) 김치(金緻)의 등반기, 「남한박물(南宦博物)」에는 1702년~1703년 사이에 걸친 이형상(李衡祥)의 등반기, 『탐라록(耽羅錄)』에는 1841년 이원조(李源祚)의 등반기 등이 수록되어 전하고, 조선후기 위정척사파(衛正斥邪派)의 거두로 이름이 높은 최익현(崔益鉉)의 1875년 한라산 등반기도 찾아볼 수 있다. 20세기 들어와서는 외국인으로 한라산을 처음 올라간 독일인 지그프리트 겐테(Siegfried Genthe)의 1901년 등반기와 아울러, 『탐라기행 한라산』에 실린 이은상(李殷相)의 1937년 등반기가 명성이 높다. 이들 한라산 등반기는 2000년 제주문화원에서 편찬·발행한 『옛 사람들의 登漢拏山記(등한라산기)』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인용한 것이다.

이들 등반기에는 한라산이 빼어난 경관과 다양한 식생을 갖추었고, 이에 더하여 장엄하면서도 신령스러운 선경(仙境)의 분위기를 자아냄으로써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다음, 이를 오르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체험케 했던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밖에도 독일인 겐테의 1901년 등반기에는 한라산의 해발고도가 1,950m에 달한다는 사실이 최초로 밝혀지는 과학적 측량활동이 나타나 있으며, 이은상의 1937년 등반은 80명이나 산행에 나선 한라산 최초의 단체 등반이었다. 또한 이은상의 1937년 등반은 국토순례행사의 일환으로 한라산에 올라가는 행사의 원조라 하겠다.

옛적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한라산은 명산(名山)이자, 영산(靈山)으로 그 존재가치가 높았으나, 이를 올라가 경험할 수 있었던 사람은 지방관 혹은 유배인 등과 같은 일부 계층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등반이 레저활동의 하나로 자리를 잡고, 그 효용가치가 강조되는 현대에 들어와서는 한라산을 오르는 데 애용되는 등산로 코스만 하더라도 다섯 개나 조성되는 한편, 등반 계층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즉, 1년 간 한라산 탐방객이 1980년에는 8만 8,802명에 달했는데, 해마다 늘어나 2000년에 이르러서는 무렵 6배가 넘는 54만5,423명으로 증가했던 것이다. 때문에 한라산 지역은 등산로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토양유실·지반붕괴·식생파괴 등과 같은 자연환경의 훼손이 이루어졌고, 이의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남벽·서북벽 등산로 중심의 해발 1,700m 이상은 자연휴식년제, 즉 출입제한지역을 설정하는 조치가 1994년 7

월 1일부터 지금까지 단속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현대에 들어와서도 한라산이 사람들에게 명산이자, 영산으로 다가가 같이 호흡하는 존재임을 반증하는 사실이기도 하다.

흔히, '한라산이 제주도이고, 제주도가 곧 한라산'이라고 한다. 이는 단지 지형적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상고시대부터 오늘날까지 한라산이 주민 생활에 깊게 자리잡아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그 존재를 느낄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또한 한라산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의 통일지향을 뜻하는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캐치프레이즈에서 백두산과 더불어, 남·북한을 뜻하는 상징성의 존재로서도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 제2장 한라산 주변 일대의 문화유적

### 1 들어가는 글

한라산 산간 지역의 문화유적으로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것이 존자암(尊者庵)과 수행굴(修行窟)이라 하겠다. 이들의 존재는 15세기 말 이전의 조선시대 사서(史書)에서부터 비롯하며, 현재도 찾아볼 수 있는 불적(佛跡)이다. 근래에 들어와 이들의 터와 그 주변 지역은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한편, 불교가 언제부터 제주도에 전래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는 널리 유포되었음이 확실하다.

제주 사람들은 고려가 건국되는 태조대(918~943)부터 불교가 성행한 육지부 지역과 자주 교류하였고, 1034년(정종 즉위년)부터는 불교적 의식의 성격을 띤 국가의례인 개경 팔관회(八關會) 등에 빈번하게 참석했다. 또한 1057년(문종 11)에는 한반도 육지부의 사찰 창건을 위한 별목과 조영에 제주 사람들이 동원된 적도 있었다. 그리고 1343년(충혜왕 4)에는 왕사(王師)를 역임했던 승려 흑선이, 1348년(충목왕 4)에는 승려 종범(宗範)이 제주 지역에 유배를 왔다. 이들 이외에도 충렬왕대(1275~1308) 무렵에는 승려 혜일(慧日)이 제주 지역에서 활동했다.

고려 초창기부터 제주 사람들은 한반도 육지부와 교류를 통해 불교와 잦은 접촉을 가졌고, 후기에는 승려도 제주 지역에 와 있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불교의 교세가 확산되어 많은 제주 사람들이 신봉하였을 것이다. 이 추세는 사찰이 제주 지역에 다수 건립된 사실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수정사(水精寺 : 제주시 도근천 주변)·묘련사(妙蓮寺 : 구제주 서쪽 25리)·서천암(浙川庵 : 제주시 도근천 주변)·보문사(普門寺 : 구제주 동쪽 30리 거구리악)·법화사(法華寺 : 서귀포시 하원동)와 더불어, 원당사(元堂寺 : 제주시 원당봉) 등의 사찰이 고려시대 때 제주 지역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외에도 상당수 더 있었을 것이다.

고려시대 사찰 가운데 수정사와 법화사 및 원당사는 제주의 3대 사찰로 일컫는다. 이들의 존재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초기에 이르기까지 불교가 제주 지역에 매우 성행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오늘날에 와서는 수정사지와 법화사지 및 원당사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많은 연구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물론, 현재 들어와 한라산 산간 지역에는 관음사(觀音寺)와 천왕사(天王寺) 등의 사찰이 들어서 있고, 그 지역적 범위를 넓혀보자면, 64개소에 달하는 사찰을 소개하는 통계가 나와 있기도 하다. 이들 가운데는 교세가 매우 왕성하며 문화와 역사적 전통이 깊어 문화유적으로서의 가치가 큰 사찰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라산 주변 일대의 문화유적으로는 불적 가운데 존자암 및 수행굴과 아울러, 수정사지와 법화사지 및 원당사지에 국한하여 거론하고자 한다. 이는 이들이 여러 불적 가운데 시기가 가장 이르면서도, 제주도 지역에 불교가 정착·성행하기 시작한 고려시대 때 존재했던 사찰이라는 역사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근래 들어와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불적이라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한편, 불적 이외에 영천관지(靈泉館址)도 다루고자 한다. 영천관지는 돈내코 계곡의 하류에 위치하며, 돈내코 계곡은 효돈천의 중·하류에 해당한다. 효돈천은 한라산 정상부의 서남서벽에서 발원한 하천으로 영천악 남쪽 기슭과 침오름 동쪽 기슭을 거친 뒤 예촌망이 펼쳐진 바다로 흘러간다. 즉, 영천관지는 한라산 산간지대와 잇닿는 하천의 하류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영천관지와 그 주변 일대의 생태적 환경은 한라산의 존재에 말미암은 바가 크다고 하

겠다. 한편 영천관의 존재는 조선시대 때 서귀포시 일대 지역이 지녔던 지정학적 위치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문에 한라산 주변 일대의 문화유적으로 영천관지도 다루고자 한다.

## 2 한라산 영실(靈室) 지역 고사찰(古寺刹)

### 존자암

존자암은 영실 서북편 불래오름 남사면 능선에 자리한다. 존자암지에 대한 문헌상의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처음 나온다. 제주목(濟州牧) 불우조(佛宇條)에 “존자암은 한라산 서쪽 기슭에 있는데, 그 곳 동굴에 마치 승(僧)이 도(道)를 닦는 모습을 닮은 돌이 있어 세상에 수행동(修行洞)이라 전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 내용은 1530년(중종 25) 동서(同書)의 편찬 당시 기록이다. 1651년(효종 2) 제주에 어사(御史)로 왔던 이경억(李慶億)은 그의 시에 “천년 묵은 외로운 탑이 서 있는데, 한 방은 두어 개 서까래만 남아 있다.”라는 글귀를 남기고 있다. 이로 볼 때, 이경억이 부임할 당시에는 존자암이 이미 폐사되었다고 하겠다.

존자암의 설립에 대해 혹자는 대장경(大藏經) 법주기(法主記)의 제육존자(第六尊者) 발타라(跋陀羅 ; Bhadra)와 구백나한(九百羅漢)이 거주했던 암자라 하여 남방불교 전래의 근원지임을 주장함과 동시에, 김상헌(金尙憲)의 『남사록(南島錄)』을 재인용한 충암(靚庵) 김정(金淨)의 『존자암기(尊者庵記)』에 “존자암은 고·양·부 삼성이 처음 일어났을 때 세워졌는데, 삼읍(三邑)이 정립된 후에도 오래도록 전해졌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내세우곤 한다. 한편, 1996년 고창석의 연구 「존자암의 역사적 배경」(『尊者庵址』, 제주대학교박물관)에 의하면, 존자암에서 국성재(國聖齋)가 이루어졌고 1592년(선조 25) 이후에 중단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이 김상헌의 『남사록』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래의 발굴조사에 의하면, 문헌과 야사에 전하는 존자암은 각 시설물의 축조수법과 중복관계 그리고 층위분석을 통해 시설물을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고려 말~조선 전기에 해당하는 건물지이다. 이 곳에서는 모두 반듯한 판석을 사용하였으며 발견 유물도 인화분청과 일부의 청자편, 명문기와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른 하나는 조선 전기~중기에 만들어진 건물지와 시설물이다. 여기에서는 자연석을 대강 치석한 할석을 사용하였으며 유물은 백자와 무문기와편이 주로 출토되었다.

존자암의 건물지와 부속시설은 모두 크게 4개의 단으로 이루어진 석축평탄 대지에 자리하고 있었다. 모든 축단은 존자암의 1차 시기에 건축된 건물지와 부속시설물의 신축과 더불어 만들어졌다. 특히, 1차 시기 중에 창건했거나 또는 중창 불사와 관련된 고승(高僧)의 사리가 제4단의 부도(浮屠)에 봉안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2차 시기에는 전대부터 존속되어 오던 시설물 터전 위에 다른 시설물을 다시 세웠다. 대략 건물지의 제1단과 2단 중앙에 각 1동의 건물과 제3단에 비각형태(국성재제단)의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찰 입구에 자리한 제1단 석축 내의 건물지는 현재 가람의 가장 낮은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건물지 내부 주춧돌의 배치상태로 보아 앞과 뒤로 뒷마루를 둔 선방지(禪房址 ; 法堂址)일 가능성이 있다. 제2단 평탄대지에 자리한 판석형 건물지는 가람이 중심에 있고 높게 쌓아 올린 석축시설 위에 축조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존자암터의 중앙부에 가장 안정된 위치에 있으며 같은 지점에 연속하여 중창된 사실 등으로 보아 금당지(金堂址)일 가능성이 짙다. 사찰 북편의 제일 높은 제3단 대지에 자리한 정방형의 비각(碑閣) 건물지는 가람의 끝에 있고 각의 내부에 비석자리가 확인되므로 문헌에 전하는 국성재를 행하던 비각건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4단 대지에는 부처님을 모신 대웅전 북서편에 보편적으로 안치하는 팔각주좌형태의 현무암제 세존사리탑이 자리하고 있다. 대웅전(大雄殿) 앞에는 세 개의 계단을 둔 전정시설과 그 앞에

는 왼쪽에 치우쳐 목조 소형 석탑이 자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찰 내의 수원은 대웅전 바로 동편으로 연일 용천수가 흐르며 바로 밑으로 돌로 만든 담수시설도 있다. 아마도 이들 수원이 있기에 사찰이 들어서게 된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목탑지 부도에 대해 소략하면, 먼저 탑지는 금당지 남동편, 선방지 동편에 비교적 평탄한 공간에 자리잡고 있다. 목탑의 중심주초석이라 생각되는 투공주초석(透孔柱礎石)이 확인되었다. 부도는 대체로 형식상 고려 말기까지 올라가는 도내 유일의 부도로 팔각대석과 사리공(舍利孔) 시설은 보기 드문 예라 지적할 수 있겠다. 바로 이러한 중요성이 인정되어 제주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존자암에서는 천여 점의 기와편이 출토되었다. 극소수의 완형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훼손이 심한 상태이다. 기와는 출토지에 따라 각기 상이한 형태로 출토되기 때문에 건물지의 소속 시기를 유추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명문기와 중 가장 많은 출토량의 ‘萬戶兼牧使’(만호겸목사) 명와(銘瓦)는 가장 제작시기가 빠른 것으로, 이 기와와 비슷한 제작연대를 가지는 기와로는 ‘千戶夫承碩’(천호부승석) 명와(銘瓦)를 들 수 있다. 이들 두 명문와는 명문부를 장식하는데 두리선이 당초문대로 동일한 형태이다. 이들 명문와는 존자암지의 탑지추정지와 그 부근에서만 출토되었다. 또한 이들 명문와는 제주목관아지의 와적담장지와 수정사 금당지에서도 확인된 바가 있다. ‘壬申造’(임신조) 명와와 ‘川丑開啓’(천축개계) 명와는 모두 비각지에서 출토되었다. 특히 금당지에서 출토된 암기와에 ‘尊’(존)이라는 명이 시문된 기와가 출토되었기 때문에 발굴한 사지(寺址)가 문헌에 전하는 존자암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다.

평기와는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에 이르는 시기에 제작되었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다수 출토되었다. 특히 선조문 암·수기와는 비각지에서 원상으로 출토되었다. 이로 보아 이들 두 기와는 서로 암수를 이루어 지붕에 세트로 연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합을 이루었던 기와는 파상문 암·수기와도 마찬가지로 여겨진다.

존자암지의 연대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유물로는 ‘□□二月修正禪師大夫金仲光 萬戶兼牧使奉□□□’(□□이월수정선사대부김중광 만호겸목사봉□□□)이라 쓰인 명문와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 기와는 존자암지 초창기에 만들어 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탑지추정지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된 고려 말기 명문기와 중 하나이다.

제주도에서 목사와 만호(萬戶)가 겸직했던 기간은 고려 1301년(충렬왕 27)으로부터 조선 1398년(정종 2)까지로 보고 있다. 만호가 하급군관으로 전락하는 성종대에 와서 결국 분리하게 된다. 이에 ‘萬戶兼牧使’(만호겸목사) 명문기와는 고려 말기(14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직책 및 관직명과 아울러, 중앙정부 파견의 만호 김중광(金仲光)이란 인물만으로도 제주 불교사에서 국가로부터 전적으로 지원을 받고 사찰의 중흥을 이루었던 시기가 13~14세기였음을 알려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수행굴

수행굴에 관한 고문헌의 기록은 적지 않게 나타난다. 그 중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 할 수 있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제주목 불우조의 존자암에 관한 내용을 보면, “재한라산서령 기동유석여승행도상(在漢擎山西嶺 其東有石如僧行道狀)”이라 기록되어 있다. 즉, 존자암은 한라산 서쪽 기슭에 있는데, 그 곳 동굴에 마치 스님이 도를 닦는 모습과 같은 돌이 있어 세상에 수행동(修行洞)이라 전해진다는 것이다. 원래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조선 1481년(성종 12)에 편찬한 『동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을 1530년(중종 25)에 증보하여, ‘신증(新增)’이라는 두 글자만 첨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제주목사 이원진(李元鎭) 편찬의 『탐라지(耽羅志)』에는 앞의 기록을 인용하며 원래 존자암은 영실에 있었으나, 지금은 서쪽 기슭에서 밖으로 10리쯤 옮겼는데 대정현(大靜縣) 지경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 1601년 한라산을 올랐던 제주목사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은 『남사록(南統錄)』에 “또 수행굴을 지났다. 굴속은 20여 명이 들어갈 만하다. 옛날 고승(高僧) 휴량(休糧)이 들어가 살던 곳이다. 칠성대(길가에 늘어 선 모습이 마치 북두칠성과 같다는 데서 이름이 붙여짐)와 ‘좌선암(坐禪岩)’이라는 돌이 하나 있는데, 스님이 앉아 있는 모습과 같아 이렇게 부른다.”고 하고 있다.

제주판관(判官) 김치(金緻)는 1609년 한라산을 등정하고서 남긴 기록에 “영실의 동남쪽 허리에 석굴 하나가 있는데 수행동이라 한다. 옛날에 도승이 그 속에 살았다고 하는데, 부서진 온돌이 지금도 남아 있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1702년 등정했던 제주목사 이형상(李衡祥)의 『남환박물(南宦博物)』에도 남긴 기록이 있다. 즉, “위에 수행동이 있다. 동에는 칠성대가 있어 좌선암이라고 한다. 이는 옛 스님이 말한 팔정 옛 터인데, 이를 존자암이라고 부른다.”고 소개한 뒤, 홍유손(洪裕孫)의 「존자암개구유인문(尊者庵改構侑因文)」을 인용, “존자가 암을 짓기는 고·량·부 삼성이 처음 일어난 때 비로소 이루어졌고, 삼읍이 나뉘어진 뒤에까지 오래도록 전해졌다. …… 지금은 스님이 없고 헐린 온돌만 남아 있다.”고 하였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몇몇 기록을 정리해 보면, 존자암의 연원은 삼성의 출현과 때를 같이하고, 그 위치는 원래 영실에 있으며, 그 주변에는 칠성대와 좌선암이 있어 이 곳을 수행동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또 여기에는 옛날 고승 휴량이 도를 닦았던 석굴이 있는데, 곧 수행굴이며 굴 안에는 20여 명이 들어갈 만하고, 부서진 온돌 자리가 남아 있다는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수행굴은 이상에 열거한 문헌기록을 비롯하여 칠성대, 좌선암으로 보이는 주변의 기암괴석, 또한 부서진 온돌자국이나 20여 명이 수용 가능한 동굴규모, 나아가 옛 선인들이 한라산을 찾는 등산로 주변에 위치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재발견한 수행굴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옛 존자암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 더욱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조사작업이 이루어진다면, 2003년 강문규가 「한라산생태학술대탐사 - 고문헌에 나타난 수행굴 -」(한라일보, 2001년 12월 5일자)에서 언급했듯이, 수행굴과 존자암의 관계는 물론 제주 최초의 불교유적으로서의 진위 여부 등 그 역사적 가치와 의미에 대한 조명도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3 한라산 북쪽 지역 고사찰(古寺刹)

#### 수정사지(水精寺址)

##### 고고학적 고찰

수정사지는 외도초등학교의 서쪽 울타리를 따라 남쪽으로 약 200m 지점에 자리한다. 수정사지의 동편에서 흐르고 있는 외도천, 즉 사서에서 도근천(都近川)이라 하는 곳은 해발 1,500m의 한라산 어승생 오름에서 발원하는 영구유수천(永久流水川)으로 제주도 내에서 수량(水量)이 가장 많은 하천 중의 하나이다.

수정사지는 외도천에서 서쪽으로 약 150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수정사지 서쪽으로 바로 붙어서 해발 15m의 낮은 구릉이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다. 주변지형은 서쪽의 구릉이 바다에서 불어오는 찬 북서풍을 적절히 막아주고, 동쪽으로는 큰 내가 흐르며, 완만한 구릉지대가 넓게 펼쳐져 한라산 정상이 한눈에 들어오는 훌륭한 경관을 갖춘 곳이다.

문헌에 전하는 고려 말~조선초의 수정사는 비보사찰로 노비 130인을 거느리는 대사찰로 알려져 있다. 지난 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찰의 규모는 남~북 170여m, 동~서 60m 정도이며 건물지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은 외도동 498, 499, 376번지이다.

1998년 6월에 행해진 시굴조사에서 건물지, 축대지, 소탑지, 석등지, 담장지 유구가 노출되었다. 건물지는 남북장축의 축대상단에서 2동, 축대하단에서 3동이 확인되었다. 탑지와 석등지는 제1건물지의 바로 앞에서 확인되었다. 1999년에 이루어진 확대 발굴조사에서는 건물지 12동, 도로와 보도, 탑지, 석등지, 담장지, 폐와무지[폐와혈(廢瓦穴)], 적석유구 등이 확인되었고, 11세기 순청자에서 18세기 중엽의 백자류까지 골고루 나오며 막새는 드물게나마 연판문 등의 막새와 ‘牧使’(목사)와 ‘萬戶’(만호) 등의 명문기와, 평기와가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특히 금동제품, 순가락 등의 청동제품, 인왕상의 양각된 탑제 부속구, 철제품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수정사지에서 출토된 기와는 ‘二月修正禪師’(2월수정선사), ‘牧使兼萬戶’(목사겸만호) 명(銘)기와가 있다. 막새는 6~8엽 연판문숫막새, 연판문·일취문(日暉文) 암막새 등이다. 평와는 수지문, 장타원문, 사방문 등과 복합문 기와가 주종을 이룬다.

토기와 시유도기, 자기류도 다량 출토되었으며, 특히 자기류는 고려시대의 청자와 조선시대의 분청사기, 백자, 그리고 중국의 청자와 백자 등 매우 다양하게 수습되었다.

토기, 즉 질그릇은 대형의 호가 주류를 이룬다. 이외에도 소량의 대발, 병, 시루 등이 출토되었다.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며, 연질(軟質)과 경질(硬質)이 거의 같은 비율로 확인되었다.

시유도기(施釉陶器)는 토기에 비하여 소량 확인되며, 호와 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태토에는 입자가 작은 모래 알갱이가 소량 섞여 있고, 표면을 깨끗이 다듬지 않아 대부분 거칠다.

청자는 고려시대 전기에서 후기까지 제작된 다양한 형태와 장식이 있는 파편이 다량 출토되었다. 기종은 대접과 접시, 완이 주류를 이룬다. 이외에도 잔, 병, 호, 향로, 돈 등이 확인되고 있다. 수정사지에서 출토된 청자는 10세기 후반 경에 제작된 것을 비롯하여 거의 고려시대 전 기간에 걸쳐 있는 것을 망라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시기별로 출토유물의 종류와 양이 고르게 분포하는 것은 아니다. 즉, 11세기의 청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12세기 것이며, 이에 비해 13~4세기 청자는 상대적으로 양이 적었던 것이다. 출토 청자는 강진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예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해남이나 기타 지방가마에서 만들어진 것들



이 소수 혼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청사기(粉靑沙器)도 역시 15~16세기에 제작된 파편이 고루 출토되었다. 기종은 대접, 접시가 주류를 이루고, 이외에 대발, 병, 호, 합, 편구발 등이 확인되었다. 수정사 출토의 분청사기는 고려시대 후기에 제작된 청자의 뒤를 이어 15세기 초부터 16세기까지 만들어지던 것이 모두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수습된 파편을 분석한 결과, 대접과 접시 등의 양에 비하여 병과 호의 수량이 많았다. 이는 생활유적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다.

상감이나 인화분청사기는 당시 전국 각지에서 만들어졌으므로 제작처의 추정이 어렵다. 다만, 파편 중 다수를 차지하는 조화나 박지, 귀얄기법의 유물은 전라도에서 주로 제작되던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 이래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만들어졌던 자기가 주로 사용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파편 중에는 '內膳'(내섭)이라는 관사명이 찍힌 예가 있다. 이 명문이 새겨진 유물의 예가 제주도의 다른 유적에서도 확인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라 하겠다.

백자(白磁)는 조선시대 전기에서 후기까지 제작된 다양한 파편이 출토되었고, 그 양도 청자와 분청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기종은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룬다. 이외에 잔, 병, 호 등도 수습되었다. 수정사지 출토의 백자는 15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출토되었다. 그러나 출토량은 각 시기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15~16세기에 제작된 백자가 다량인데 비하여 17~19세기에 제작된 것은 상대적으로 양이 적었던 것이다. 이들 가운데는 연질백자와 경질백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경질백자의 다수는 도립 삼각형 굽을 갖추고 있었다. 이 중 양이잔의 파편과 철사로 문자장식을 적어 놓은 파편은 특히 관심을 끈다. 또한 현재까지 출토품이나 전제품으로는 알려져 있지 않은 옹기나 토기 그리고 분청사기에서만 드물게 볼 수 있던 형태의 파편도 확인되었다.

중국자기(中國磁器)는 청자와 백자가 함께 출토되었다. 백자의 경우는 순백자 이외에 청화백자의 잔편들도 소수 수습되었다. 그 중 청자는 모두 송대(宋代)의 것으로 추정된다. 기종은 대접과 완, 접시류 등이다. 장식은 음각의 초화문이 대부분이다. 이 가운데 참빗과 같은 도구로 표면을 긁어 세부를 표현하는 기법은 11세기 고려청자의 음각장식에도 즐겨 사용되었던 것이어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순백자는 모두가 송대 제작의 것이지만, 청화백자는 명대(明代) 혹은 청대(清代)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순백자는 완과 접시뿐이지만 구연부가 꽃모양으로 장식되거나 혹은 안바닥에 초화문이 음각되어 있는 등, 전체적으로 질이 매우 우수하다. 청화백자는 대부분이 완류로 추정되며, 담청백색의 유색을 띠는 경질백자에 초화를 소재로 삼은 그림이 다수 그려져 있다.

중국 청자는 물론 백자의 다수가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송대(宋代)의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러한 현상은 본 유적뿐만 아니라 제주도 혹은 다른 지방의 유적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청화백자의 경우 구체적인 제작시기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고려시대에 이어 조선시대에도 명(明) 혹은 청대(清代)의 자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본다.

수정사지 출토의 토기와 시유도기, 자기류의 파편을 살펴본 결과, 그 중 제작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자기류의 경우에는 고려시대 전기에서 조선시대 말기까지의 예가 모두 확인되었다. 특히 고려시대의 경우 11세기에서 12세기 전반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파편의 양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산 청자와 백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조선시대의 경우는 15~16세기에 제작된 파편의 양이 가장 많았다. 다양한 장식기법의 분청사기는 물론이고, 도립삼각형굽과 죽절굽을 갖춘 백자도 함께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앞서의 유물 외에도 금동제(金銅製) 사리함(舍利函) 장신구 혹은 접합구(接合具), 광배(光背),

정(丁) 등이 있으며, 청동제품으로는 접시[匙], 소형잔(小型盞), 경덕원보[景德元寶, 1004~1007, 북송(北宋)], 원풍통보(元豐通寶, 1078~1085, 북송), 정화통보(政和通寶, 1111~1117, 북송), 조선통보(朝鮮通寶), 청동판(靑銅板)과 옥으로 만든 염주(念珠)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소탑지에서 점판암으로 만든 기단면석과 옥개석일 것으로 여겨지는 석재 22점이 확인되었다. 기단면석 중 정면에 세워졌을 면석에는 문호 좌우로 인왕상이 뚜렷하게 새겨져 있다. 인왕 문양에 음각기법을 도입한 드문 예로 표현에 있어 미술사적인 가치가 주목된다. 인왕은 연화를 밟고 있으며, 주먹을 쥐고 치켜든 한쪽 손에는 화염이 표현되었고, 허리춤에 찢 다른 한쪽 손은 칼을 쥐고 있다. 반대편에 대칭하여 선 인왕은 반쪽 부분이 박리(剝離)되었으나, 우측의 인왕과 동일한 형식으로 표현되었고, 허리춤에 찢 기물이 창인 것으로 보인다.

발굴 결과 옛 수정사는 금당지가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여기를 중심으로 중정(中庭)형태의 건물을 회랑식으로 배치했으며, 중정 안에 탑과 석등을 두었다. 또한 정확하게 금당지를 축으로 보도, 도로, 문루(종루)를 배치하였다. 한편 제3단의 축대도 만들어 각 건물 간의 조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수정사의 유물은 지금까지 도내 사찰에서 나온 유물과 비교해 보면 가장 화려하다. 중국청자, 중국백자, 순청자, 향로, 의자 등의 청자류, 분청사기, 백자, ‘牧使’(목사)의 명문기와, 사리함 장신구 등의 각종 금동제품, 접시 등의 청동제품, 염주, 탑지 출토 인왕상 음각면석 등이 그것이다.

수정사는 문헌상으로도 14세기 이전 기록이 남아 있고, 발굴된 유물에서도 북송대의 화폐유물, 11세기 청자류의 존재로 보아, 고려 중기 이전에 창건된 탐라(耽羅)의 고찰(古刹), 즉 옛 사찰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18세기 후반 이후의 유물이 확인되고 있지 않아 그 무렵에 폐찰(廢刹)되었다 할 것이다.

#### 수정사지와 외도동(外都洞) 일대의 마을 형성과 그 연혁(沿革)

오늘날 수정사가 자리잡고 있었던 곳은 제주시 19개 행정동 가운데 하나인 외도동으로 행정적 편제가 이루어져 있다. 외도동은 제주시 중심지에서 서쪽으로 7~9km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 있다. 기록상 이 곳에 마을이 형성된 것은 고려시대부터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외도동 지역에는 해발 1,500m의 한라산 어승생 오름에서 발원하는 영구유수천(永久流水川)으로 제주도 내에서 수량이 가장 많은 하천 중의 하나인 외도천(外都川)과 도근천(都近川 : 도그내) 등이 흐르고 있다. 외도천은 밧도그내라 할 수 있다. 사실 조선시대까지 사서류(史書類) 문헌기록에는 도근천만 확인된다. 이에 기록상 나오는 도근천은 오늘날의 외도천과 도근천을 아울러 의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고려시대 1342년(충혜왕 복위 3)경에 작성되었을 이제현(李齊賢)의 「소악부(小樂府)」[『익재난고(益齋亂藁)』]에 실린 ‘탐라곡(耽羅曲)’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즉, ‘탐라곡’ 중에는 도근천 주변에 수정사라는 사찰이 있었던 내용이 나오고 있으며, 1997년 수정사지 터가 오늘날 외도천이라 불리는 하천 주변의 발굴조사로 드러났던 것이다. 또한 절과 이곳이 사용하던 샘물이 있었던 데서 붙여졌을 절물마을이 외도천 근처이며, 외도천은 절물내로도 불려진다. 여기에서도 수정사가 외도천 주변에 있었고, 외도천은 도근천으로 일컬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도근천은 조공천(朝貢川)과 수정천 등으로도 표기되었다. 조공천은 김통정(金通精)이 고려의 마지막 항몽세력 삼별초(三別抄)를 이끌고 제주에 들어와 최후까지 항몽전을 전개할 때 여러 곳으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조공포(朝貢浦)와 이어지는 하천이라 붙여졌다고 하며, 도근은

제주 사람의 말이 난삽하기 때문에 조공을 잘못 발음하여 표기된 것이라 한다. 수정천은 도근천 근처에 수정사가 있었기 때문에 일컬어졌을 것이다.

수정사의 존재는 외도천 주변에 마을이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수정사의 건립연대에 대해서는 원(元)이 제주를 지배하기 시작한 고려시대 1273년(원종 14)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1300년(충렬왕 26) 이전, 혹은 그 이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아무튼 수정사가 1342년(충혜왕 복위 3)경에 작성되었을 이제현의 문집에도 나타나고 있으니, 1342년경 이전부터 외도천 주변에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음이 기록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어 1363년(공민왕 12)에는 왕족의 서자인 석기(釋器)가 수정사에 유배 왔었던 적이 있었다. 여기에서도 고려시대 때 외도천 주변에 마을이 이루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1602년(선조 34)경 외도천 주변에는 초가 수 채가 있었고, 이곳이 '도근천리(都近川里)'로 편제되었던 사실이 김상헌(金尙憲)의『남사록(南統錄)』에 드러난다. 1698~1703년(숙종 24~29) 만들어졌을 『여지도(輿地圖)』중 제주목(濟州牧)에는 '내·외도근천촌(內外都近川村)'·'도평대촌(都坪代村)' 등의 마을이 나오고 있다. 1702년(숙종 28) 제작된 이형상(李衡祥)의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한라장축(漢拏壯軌)」에는 외도동 지역에 '수정(水淨)'(지금의 절물동)과 '평대(坪代)'(지금의 도평동) 마을이 나타나고, 도근천포 동서쪽에도 마을이 이루어져 있었음이 드러난다. 즉, 17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외도동 지역에는 4개 마을이 분리·형성되어 있었던 셈이라 하겠다.

1770년대 제작된 『제주삼읍도총지도(濟州三邑都總地圖)』에는 '내·외도근천(內外都近川)', '수정촌(水淨村)'과 '도평대(都坪代)'가 나타난다. 이어 1780년대에 편찬되었을 『제주읍지(濟州邑誌)』에는 외도동 지역이 '내도근천리(內都近川里)'·'외도근천리(外都近川里)'·'도평대리(都坪代里)' 등으로 편제되었고, 여기에는 '내도근천리'가 민호(民戶) 45·남자 172명·여자 219명, '외도근천리'는 민호 44·남자 141명·여자 161명, '도평대리(都坪代里)'는 민호 55·남자 141명·여자 149명 등의 가구와 인구가 각각 살았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18세기 말경의 『탐라방영총람(耽羅防營摠覽)』에는 이들 3개 마을 외에도 '수정리(水淨里)'가 더 존재했음이 확인된다. 한편 1872년(고종 9)에 제작된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에는 '외도리(外都里)'·'내도리(內都里)'·'도평리(都坪里)' 등만 나오고 있다. 이로 보아,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수정리'가 행정적으로 '외도리'에 통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1899년(광무 3) 편찬의 『제주군읍지(濟州郡邑誌)』에 수록된 「제주지도(濟州地圖)」에는 종래의 '도평리'가 명칭이 바뀌어 '호당리(虎塘里)'로 불러졌음이 드러난다. 그런데 1904년(광무 8) 제작의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摠冊)』에는 '호당리'가 나오지 않고, 외도동 지역은 다시 '내도(內都)'·'외도(外都)'·'도평(都坪)'으로 구분되어 불리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각각 '내도'가 연가(煙家) 62호·남자 87명·여자 94명·총 181명·초가(草家) 93간(間), '외도'는 연가 182호·남자 300명·여자 345명·총 645명·와가(瓦家) 2간·초가 497간, '도평'은 연가 110호·남자 200명·여자 202명·총 402명·초가 364간 등의 규모로 이루어진 마을이었음이 구체적으로 표기되었다.

1914년 외도리·내도리·도평리는 제주면(濟州面)에 편입되었다가, 1931년 제주읍(濟州邑)으로, 1955년에 이르러서는 각각 제주시의 외도1·2동, 내도동, 도평동으로 편제되었다. 이어 1962년 동의 통폐합에 따라 행정구역상 외도동으로 합쳐졌다.

1978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외도동은 외도1동·외도2동·도평동·내도동 등의 4개 법정동과 이를 구획한 11통 51반을 관할하게 되었고, 여기에는 외도1동·연대동·월대동·절물동·내도동·도평동·신산동 등의 7개 자연마을이 포함되어 있다. 2005년 12월 말 현재 외도동은 가구 4,632세대·남자 6,673명·여자 6,583명·총 13,256명·총면적 8.4여㎢ 등의 규모로 이루어진 농·어촌마을이

다. 또한 외도동은 제주시의 가장 서쪽 끝에 위치했지만, 도시구획정리사업 예정지로서 도심에서의 인구유입과 상가형성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 원당사지(元堂寺址)

##### 고고학적 고찰

2005년 원당사지에 대한 발굴조사 대상지는 행정구역상 삼양동 697, 696번지에 해당하는 불탑사(佛塔寺) 외 700-5, 694번지 일대가 해당하며, 조사범위는 남북으로 100m, 동서로 120m 가량 된다.

불탑사는 1960년에 대웅전(大雄殿)과 함께 요사체(寮舍體)를 신축하였다. 석탑 주변은 돌담으로 둘러싸 보호구역화하고, 그 남쪽과 서쪽 바깥은 현 사찰의 시설물이 들어섰다. 동쪽에는 경작지, 북쪽에는 대나무밭과 민묘가 놓여 있다.

조사 대상지는 대체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지형이다. 북쪽은 주변보다 30m 가량 높은 가파른 언덕에 임야지대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 조사에 포함되는 삼양동 705-1번지는 불탑사 주변보다 10m 가량의 높이 차이를 보인다.

현재 불탑사 대웅전의 중심에서 동쪽으로 28m 가량 떨어진 지점에 5층 석탑이 위치하고 있다. 이 석탑은 보물 제1187호로 지정되었다. 탑신부(塔身部)를 형성하고 정상에 상륜을 장식한 일반형(一般型)이다. 1매석(枚石)으로 조성한 지대석 상면에는 낮은 한 단의 괴임을 각출하여 기단을 받치고 있다. 기단 면석에는 뒷면을 제외한 3면에 같은 크기와 형식의 안상내(眼象內)에 귀꽃문을 장식하였다. 1매석의 갑석은 부연이 없고 상면에 넉적한 괴임을 마련하여 탑신부를 받고 있다. 각층의 탑신석은 양우주(兩隅柱)가 없는데 초층의 남쪽 1면에 감실(龕室)을 개설해 놓았다. 이 석탑은 기단부의 구조나 초층 탑신의 감실과 탑신부 각 층의 옥개석 형태로 보아 고려시대에 건조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1988년 지표조사 당시 원당사지의 가람배치를 확인하기 위해 석탑의 북서쪽으로 폭 1m, 길이 3~3.2m 가량의 트렌치 조사를 했다. 이 때 잡석들이 불규칙하게 놓여 있는 상태가 확인될 뿐 심초석으로 보이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출토 유물 가운데 ‘大天’(대천)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기와편이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고려청자, 분청사기, 청자가 수습되었다. 당시 원당사지의 정확한 가람배치 파악은 어려웠으나 출토유물을 통해 1300년 경부터 1600년 경까지 존속했던 사찰로 추정할 수 있었다.

2005년도의 조사지역은 제주시 삼양동 700-5번지 일대로 면적이 17,639㎡에 달한다. 실제 조사면적에 있어서는 현 불탑사 경내가 일부 제외되었고, 불탑사 주변의 밀감나무들로 인해 탑 주변 일부는 트렌치조사만 행해졌을 뿐이다. 그리고 5층석탑 주변의 경계돌담을 제거할 수 없었던 탓으로 5층석탑 북쪽과 동쪽에 한정되어 부분 발굴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원당사지에 대한 기록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야 보이며, 구전 혹은 후대의 기록에는 원(元)나라 말기의 기황후(奇皇后)에 의해 창건되었다는 설도 있다. 지표상에 건물 흔적은 알려져 있지 않고, 다만 국가보물로 지정된 불탑사 5층석탑만이 있을 뿐이다. 과거의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유물은 청자, 기와 등이고, 적어도 12세기 경에 창건되었으며, 조선 후기에 폐찰(廢刹)되었을 것으로 이야기되어 왔었다. 이후 1900년대 초 다시 세워졌으나, 1948년에 일어난 4·3사건으로 소실되고, 이후 현재의 불탑사 5층석탑 서편에 현대식 사찰이 자리하게 되었다.

이 조사에서 원당사지 동쪽 경계 담장지와 건물지 2동이 확인되었다. 건물지 1동은 5층석탑 동편에 위치했다. 건물지 정면은 서쪽이며, 적어도 정면 5칸, 측면 2칸 이상에 해당하는 건물

지이다. 다른 건물지 1동은 5층석탑과 인접하여 북쪽에 자리잡고 있었다. 건물지의 방향은 남향이다. 건물지 규모는 적어도 정면 5칸, 측면 3칸일 것으로 판단된다. 건물지 동남쪽에서 계단시설 일부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또한 건물지의 방향으로 보아 금당지로 보인다. 출토유물은 청자, 분청사기, 백자 등의 도자기와 각종 기와가 확인되었다.

기와 가운데 막새는 연화문(蓮花文), 일보문(日保文), 나선문(裸線文)이 주종을 이루고, ‘大天’(대전) 등의 명문기와도 확인되었다. 평기와와 경우는 수지문(樹枝文), 원문(圓文), 방형문(放形文), 장방형문(長方形文), 사선문(斜線文), 복합문(複合文), 방사선문(放射線文) 등이 출토되었다.

청자는 고려시대 전기에서 후기에 걸쳐 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파편들이 다량 출토되었다. 기종은 대접과 접시, 잔 이외에 병, 호 등도 있다. 대접은 대부분 양질의 청자로 형태와 굽의 모양, 장식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조약한 녹청자도 확인되고 있는데, 태토와 유색, 다듬새 등이 조잡하며 포개구이한 흔적이 남아 있다. 접시는 수습된 청자 중에서 기종이 가장 다양하다. 대부분 시유상태도 좋고 모래나 내화토비짐을 받쳐 포개구이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태토가 양질인 접시편도 수습되었다. 그 중 안바닥을 음각으로 장식한 저부편과 외면에 굽다리에 접해 음각선으로 기벽을 장식한 저부편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병은 구연부편과 안바닥이 시유되지 않은 저부편 등이 출토되었다.

분청사기는 가장 적은 양이 출토되었다. 그 가운데 대접 저부편은 안바닥과 기면에 상감으로 무늬를 넣었다. 시유상태가 양호하며 태토도 양질로 그 형태가 잘 남아 있다.

백자는 조선시대 전기에서 후기에 걸쳐 나타나나, 청자에 비해 그 양이 상대적으로 적다. 기종은 대부분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룬다. 태토에 잡물이 많고 시유상태도 불량하다. 태토비짐이나 모래를 받쳐 포개구이한 흔적이 남아 있는 조질의 백자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연회백색을 띠며 안바닥에 가는 모래를 골고루 받쳐 번조하고 태토가 양질인 백자 저부편도 수습되었다.

이들 출토 유물로 판단하건대, 사찰의 건립시기는 대체로 12세기 이후였다고 하겠다.

특히 이 발굴조사에서 금당지와 사찰 동쪽 경계지역의 담장지와 건물지가 확인된 것은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5층석탑 주변에 근래 만들어진 경계돌담과 밀감과수나무를 제거한 후 동쪽건물지의 완전한 형태, 금당지의 정확한 규모, 다른 건물지의 존재 등도 확인되어야 원당사지 전체의 규모, 보다 명확한 축조연대와 폐찰연대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의 단계로는 원당사 경내의 사방주변 경계돌담 제거 및 수목(樹木) 이전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난 후, 전면 발굴조사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이로써 원당사의 전체적인 규모와 가람배치형태, 축조연대가 보다 명확해지리라 본다. 나아가 제주도 내에서 비보사찰(裨補寺刹)의 위상을 지녔던 법화사, 수정사와 함께 원당사의 규모와 성격을 비교·검토하는 연구과정을 거침으로써 고려시대 제주 불교유적의 전체적인 성격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하겠다.

### 원당사 건립의 역사적 배경

불교가 제주에 전래된 시기는 확실치 않으나,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는 널리 유포되었다. 고려시대 때 제주는 남송(南宋)과 일본을 잇는 바닷길의 요충지였다. 이에 몽골은 제주를 남송과 일본 정벌의 전초·병참기지로 활용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몽골은 제주에 들어와 웅거하던 최후의 항몽세력인 삼별초(三別抄)를 1273년(원종 14) 고려와 연합해 평정한 것을 계기로 삼아 이 곳을 직할령으로 삼았다. 이로부터 몽골족의 나라 원(元)은 양국 정벌의 전

초·병참기지로 활용하는 한편, 목마장(牧馬場)을 설치해 몽골 제국의 14개 국립목장 중 하나로 키우는 등 제주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두 차례의 일본 정벌이 실패하고, 이에 집착하던 황제 쿠빌라이가 1294년(충렬왕 20) 세상을 뜨자, 제주가 고려에 환속된 적도 있으나, 얼마 후 몽골에 다시 귀속되었다. 이로부터 80여 년간 제주는 고려와 몽골을 수 차례 오가며 귀속되었다. 그러나 이는 제주에 설치한 지배기구의 관할권 소재가 고려에 있느냐, 몽골에 있느냐 하는 현상적 변화였을 뿐이었다. 실질적으로는 제주가 양국에 이중 귀속되는 미증유의 처지에 빠져든 가운데, 탐라 국립목장에서 산출되는 말·소·쇠고기·수유(醍油 : 버터류) 등의 방물을 거두어 가는 몽골의 경영은 계속되었다. 제주사회의 주도권도 공민왕대(1352~1374)에 이르러서는 ‘하치’라고 일컬어지던 목호세력이 장악했다. 이들은 몽골의 탐라 국립목장에 배속되어 말과 소 등의 사육을 관할하던 몽골족이었다. 즉, 제주는 몽골의 직할령이 된 다음 100여 년간 몽골의 정치적 영향력을 받는 상태에 놓였던 것이다. 이 동안 제주는 경제력과 인구 규모가 확대되고, 행정단위가 증설되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와 더불어 몽골족의 제주 지배는 불교 확산을 가속화시켜 나갔던 것 같다.

법화사와 수정사는 몽골족이 제주에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창건된 사찰이었다. 이들 두 사찰이 몽골족의 제주 지배기에 이르러서는 대대적으로 중창이 이루어졌다.

특히 법화사 중창은 애초 고려왕실의 착안으로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추진과 마무리는 몽골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즉, 고려왕실이 국가평화와 왕권강화를 위해 원 황제 쿠빌라이(世祖)의 호의를 끌어내고자 1269년(원종 10)부터 황제의 원찰과 같은 사찰의 조성을 위해 법화사 중창을 계획·추진하였으나, 그 해의 원종 폐립과 복위를 비롯한 잇따른 정세변동, 특히 제주에서 벌어진 삼별초의 대몽항쟁 전개 등으로 지지부진했다는 것이다. 반면, 1273년(원종 14) 제주가 원의 직할령으로 편입된 이후에는 몽골이 자신의 제주 경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모하려는 의도에서 법화사 중창을 이어 받은 뒤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 1279년(충렬왕 5)에 마무리 지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정사는 몽골족의 제주 지배가 이루어질 때 창건되었다고 논의되기도 한다. 그러나 문헌기록과 함께, 현재 제주시 외도동(外都洞)에 위치한 수정사지(水精寺址)의 발굴조사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수정사는 12세기 경에 창건된 뒤 몽골족의 제주 지배가 이루어지던 1300년대를 전후하여 대대적으로 중창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 같다. 수정사의 중창도 13세기 후반 이후 제주에 와 지배세력으로 자리잡은 몽골족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하겠다.

법화사와 수정사는 중창되고 난 뒤, 각각 산남과 산북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로서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도 구심점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 두 사찰은 고려의 비보사찰(裨補寺刹)로 지정됨으로써 그 위상이 더 높아졌다. 법화사와 수정사의 중창과 아울러, 그 위상이 높고 다양하였음은 불교가 이전에 비해 더욱 확산되었음을 충분히 보여주는 사실이라 하겠다. 몽골족의 제주 지배기 때는 사찰이 새로이 들어서기도 하였다.

원당사(元堂寺)는 조선시대 1653년(孝宗 4)에 편찬이 이루어진 『탐라지(耽羅志)』에서 그 존재가 처음으로 드러나고, 그 이전의 사서(史書)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문헌상 원당사는 17세기 중반 이후에야 비로소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당사의 창건은 몽골족의 제주 지배기 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원당사는 오늘날의 제주시 삼양1동 686번지에 해당하는 곳 주변에 자리잡았다. 현재 여기는 불탑사(佛塔寺)라 일컫는 사찰이 들어서 있다. 여기는 원당봉(元堂峰), 혹은 원당오름이라 일컫는 기생화산의 기슭에 해당한다. 구전에 의하면, 원당사는 고려의 여인으로서 원(元)에 끌려

가고 난 이후 갖은 고초를 겪다가, 황제 순제(順帝)의 총애를 받아 황후(皇后)의 자리까지 오른 행주(幸州) 기씨(奇氏) 기황후에 의하여 세워졌다고 한다. 기황후가 태자(太子)가 없어 고민하던 중 북두칠성의 명맥이 비치는 삼첩칠봉(三疊七峰)에 사찰을 세워 불공을 드려야 한다는 승려의 비방을 받아 천하를 두루 살피다가 원당봉(元堂峰)을 적지로 보고 원당사를 창건한 다음, 빌어서 황태자를 얻었다는 구전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원당오름 주변에는 크고 작은 6개의 봉우리가 펼쳐져 있고, 원당이라는 호칭은 원나라의 기황후가 원당사를 세웠다는 점과 관련되어 생겨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원당사지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에서도 13세기 이전 도자기와 기와 편 등이 출토되는 한편, 건물지가 확인되고 있다. 또한 원당사지에는 5층석탑이 세워졌다. 이 탑은 현재도 불탑사경 내에 남아 있어 보물 제1187호로도 지정되었는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현무암을 재질로 삼아 축조되었다. 그 양상은 고려 후기 때 이루어진 석탑의 축조양식을 연상케 한다. 그리고 원당사지의 가람 배치도 고려의 불교 양식을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원당사지와 관련된 제반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원당사가 기황후와 관련을 맺어 창건되었다는 구전은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창건 시기는 고려 후기에 해당하는 몽골의 제주 지배기였고, 창건의 주도집단은 몽골족이었다고 봄이 타당할 듯하다.

몽골의 제주 지배기 때 원당사라는 사찰이 새로이 창건되었음은 법화사 및 수정사의 중창과 아울러, 그 만큼 불교가 제주사회에 널리 유포되어 있었고, 또한 보다 확산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되었음을 뜻하는 사실이다. 이는 이들 세 사찰이 계속 커 나간 끝에, 제주의 3대 사찰로 일컬어지게 된 사실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법화사 및 수정사의 중창과 원당사의 창건 등이 몽골의 제주 지배기 때 이루어졌고, 그 중창과 창건이 모두 제주에 왔던 몽골족에 의해 주도되었음은 몽골의 불교, 즉 라마교가 제주에 들어왔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실이라 하겠다. 아직까지는 라마교와 제주 불교의 교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좀 더 심층적으로 파고들어 갈 여지는 있다고 본다.

여하튼, 조선초기만 하더라도 원당사는 법화사 및 수정사와 더불어 제주의 3대 사찰로 거론될 만큼, 제주도의 대표적 사찰에 해당하는 위상을 지녔던 것 같다. 이후 송유억불(崇儒抑佛)의 분위기가 점점 강화되어 나아감에 따라, 법화사는 16세기 후반 무렵, 수정사는 1694년(肅宗 20) 이전 시기에 각각 쇠락하여 폐사(廢寺)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당사는 이형상(李衡祥)이 제주목사(濟州牧使)로 부임해 와 송유억불책을 추진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찰(寺刹)과 신당(神堂)을 없애버리던 1702~1703년(숙종 28~29) 사이에 폐사되었던 것 같다. 이는 목사 이형상이 제주에서 행했던 순력(巡歷)과 각종 행사 장면을 제주목의 화공(畫工) 김남길(金南吉)로 하여금 그림으로 그려 남기게 한 화첩인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건포배은(健浦拜恩)」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제주도의 역대 사찰 중 원당사는 법화사 및 수정사와 더불어, 몽골족의 불교, 라마교의 제주 유입 가능성을 보여주는 존재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법화사와 수정사에 대해서는 문헌연구와 아울러 상당한 수준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몽골과의 관련성이 드러났으나, 라마교의 영향에 관한 논의는 상식적 수준에 머물렀다. 원당사의 경우는 몽골의 기황후와 관련성을 갖는 구전을 지니고 있고, 원당사지의 지표조사가 이루어진 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여태까지는 몽골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편이며, 최근에 이르러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 4 한라산 남쪽 지역 고사찰(古寺刹)과 영천관지(靈泉館址)

##### 법화사지(法華寺址)

###### 고고학적 고찰

서귀포시 하원동(河源洞) 법화사는 제주시 외도동(外都洞) 수정사(水精寺)와 삼양동(三陽洞) 원당사(元堂寺) 등과 더불어 고려 후기 제주지방의 대표적인 사찰이었다. 특히 비보사찰(裨補寺刹) 법화사와 수정사는 한라산 남·북쪽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로, 『태종실록(太宗實錄)』 태종 8년 2월 정미(丁未)조에 의하면, 조선시대 1408년(태종 8)이전에 각각 예측된 노비가 280명과 130명에 달하였다. 이 문헌 기록으로 보아도 당시 제주도에서 가장 큰 사찰은 법화사가 분명하다고 하겠다.

법화사 창건에 대해서는 사적기(事蹟記)나 문헌기록이 현존하지 않은 탓에 그 실마리는 전적으로 고고학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발굴과정에서 출토된 ‘至元六年己巳始重創十六年己卯畢’(지원육년기사시중창십육년기묘필)이라는 명문와(銘文瓦)는 매우 중요하다. 지원(至元) 6년은 1269년(원종 10)이며 지원 16년은 1279년(충렬왕 5)으로, 법화사 중창(重創)이 10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더불어 ‘重創’(중창)이 의미하는 바는 고려시대 1269년(원종 10) 이전에도 사찰건물이 존속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화사의 창건은 언제일까. 이에 대해서는 1985년 문명대가 「지방문화재 제주법화사 복원을 위한 학술세미나 요지」(서귀포시·법화사복원추진위원회)를 통해 9세기경 장보고(張保皋)가 해상활동을 장악·지배하여 산둥반도에 법화원(法華院)을 창건했듯이, 이에 맞춰 제주도에도 법화사를 창건했을 가능성을 주장한 바가 있다. 나아가 제주도가 장보고 해상왕국(海上王國)의 중심지인 완도(莞島 : 淸海鎮)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었으며, 신라·일본·중국의 무역활동 교류지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동전은 1997년의 연구 「법화사의 역사적 배경」(『법화사지』, 제주대학교박물관조사보고 19집)에서 법화사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대포(大浦)’의 옛 명칭이 ‘당포(唐浦)’라 하여 중국 당나라와의 교류에서 지명이 비롯되었다는 구전 등을 고려해 볼 때, 일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법화사지 발굴조사 출토유물 중 창건시기를 거론할 수 있는 주요 유물은 개원통보(開元通寶)이다. 이 동전은 앞면에 ‘開元通寶’(개원통보)라고 쓰여 있고 배면(背面) 상단에 초승달모양의 문양이 새겨진 형식이다. 이러한 양식은 개원통보의 주조시기 당(唐) 고조(高祖) 621년(무덕 4), 무종(武宗) 회창년간(會昌年間 : 841~846), 남송(南宋) 원종년간(元宗年間 : 943~960) 가운데 당 무종 회창년간에 가장 가깝다. 그리고 일부 도기 유물 가운데 고려시대 이전의 것들도 보인다.

법화사는 그간의 발굴조사를 통해 고려시대 건물지 6개소와 조선시대 건물지 4개소, 계단시설, 폐와무지[폐와혈(廢瓦穴)], 화단(花壇), 건물간 보도(步道) 등이 확인되었다. 특수건물지의 주좌각원 초석과 이중기단석, 폐와무지에서 나온 청자 전성기의 각종 상품청자(上品靑磁) 및 용(龍)과 봉문와당(鳳文瓦當), 청동등잔(靑銅燈盞) 등은 13~15세기 경 법화사의 화려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여기는 ‘內瞻’(내섬)이라는 명(銘)의 인화분청(印花粉靑) 등 각종 분청사기류(粉靑沙器類), 조선청자의 존재로 보아 적어도 조선 초기까지 제주도 내의 중요 사찰임을 알 수 있다. 법화사의 경우는 이원진(李元鎭)의 『탐라지(耽羅志)』 대정현(大靜縣) 불우(佛



宇)조에 등장하는 '금폐사(今廢寺)'의 기록과 아울러 초가건물지의 잔해, 빈약한 백자의 출토량과 하품(下品)의 백자 질 등이 16세기 말 경에 와서는 사찰이 기울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고고학적 고찰을 통해 그간에 발굴된 유구와 중요유물을 소개하고, 이들 자료간의 상관관계를 문헌자료와 비교하여 옛 법화사의 성격과 변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 법화사의 위치

법화사가 자리한 지형은 해발 160~170m에 이르는 완만한 평지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찰은 뒤편에 해발 220m의 언덕 능선이 동서로 뻗어 내려 온, 그 안에 동서 260m, 남북 500m의 지형에 자리잡고 있다. 전체적으로 'U' 자형 산자락이 사찰을 감아도는 지세이다.

사찰 앞에는 해발 165m의 구산봉이 있고 사찰의 중심으로 동편에 강정천(江汀川)이, 서편으로 중문한천(中門漢川)이 자리하고 있다.

현 대웅전(大雄殿) 뒤편과 동편에 두 개의 큰 용천수가 있다. 서쪽의 용천수는 옛날 하원동 주민의 식수로 이용되었을 정도로 수량이 많았다. 이 용천수는 지형이 낮은 남쪽 앞으로 흘러 내려 사찰 앞에 자연적인 늪지를 만들어 주었고 이 늪지를 이용한 논농사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이 용천수가 사찰이 들어설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다.

법화사에서 가장 가까운 해안은 대포리(大浦里)이다. 이 곳 해안에서 4km 정도 내륙으로 들어와 법화사가 자리하고 있다. 촌로의 말에 의하면, 대포리에서 법화사까지 이어져 있는 옛길이 있었다고 한다. 즉, 사찰의 물자가 대포리 포구를 통해서 수송되었을 가능성이 짙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는 법화사 금당지(金堂址)에서 확인된 초석(礎石)과 같은 양식과 크기의 주좌각원(柱座刻圓)을 만든 안산암제초석(安山巖製礎石) 1기가 대포리 해안 수면(水面) 아래에 놓여 있음을 들곤 한다. 그 초석은 법화사 건물을 지을 당시 다른 지역에서 채석·가공하고 법화사로 운반하다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아무튼, 법화사가 중흥기에는 대포와 아울러 고려시대 1300년(충렬왕 26)부터 생겨난 것으로 확인되는 법화사 주변 일대의 예래현(猊來縣), 즉 현촌(縣村) 등과도 관련을 맺지 않았을까 한다.

#### 법화사지의 발굴조사

법화사지 발굴조사는 모두 8차에 걸쳐 실시되었다. 1차 조사는 1982년 명지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이루어져 고려 후기 금당지(金堂址)가 확인된 바 있다. 그 후 1987년부터 1997년까지 이루어진 2~8차 발굴조사는 제주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간의 발굴조사 중 2·3·4·7·8차 조사는 연지 구역(蓮池區域)에 대한 발굴, 5·6차 조사는 건물지 구역에 대한 발굴이었다.

1982년 제1차 발굴조사는 법화사지가 고려시대 사찰로 처음 알려진 발굴조사였다. 이 경우는 법화사를 중심으로 지표조사가 선행되었고, 현재 복원된 대웅전 주변 경내에 대한 트렌치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발굴조사 지점은 하원동 1071번지와 1066번지로, 1071번지의 대웅전 건물이 들어선 지점에서 장대석(長大石)으로 이어 나간 건물지 기단시설을 확인하였다. 이 곳 외의 다른 트렌치에서는 확인된 유구가 없다는 보고가 있었다.

1987년 제2차 발굴조사는 간략조사로 이루어졌다. 발굴 계기는 기존 발굴의 금당지를 복원하기 위해 임시로 지어진 슬레이트 지붕의 대웅전을 철거하면서이다. 조사결과 동서 22m, 남북 16.3m 규모에 달하는 건물의 내부는 기존 대웅전 건물을 지으면서 생토층까지 파고 들어가

초석(礎石) 등을 포함한 유구가 파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1982년도 발굴에서 확인되지 않은 서쪽 기단석(基壇石)의 흔적을 찾기 위해 동북쪽에 트렌치를 넣어 조사하였으나, 기단석은 없어지고, 다만 생토층(生土層)을 파서 기단석(基壇石)을 묻었던 굴광선(掘塲線)만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제3차 발굴조사는 혜일선사(慧日禪師)의 시 내용을 근거로 삼아 이루어졌다. 즉, “법화암가에 물화가 그윽하니, 대를 끌고 솔을 휘두르며 홀로 스스로 논다. 만일 세상 사이에 항상 머무르는 모양을 묻는다면, 배꽃은 어지럽게 떨어지고 물은 달아나 흐른다.”는 시 내용에 근거를 뒤 구품연지(九品蓮池)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발굴조사였던 것이다. 조사 대상지는 기존 발굴지의 바로 남쪽, 하원동 1090번지 일대 1600여 평의 규모였다. 이 조사는 먼저 남북과 동서의 긴 트렌치조사를 실시한 후, 바둑판식 발굴방법을 병행하였다. 발굴대상지 전 구역의 표토층 아래에서 할석과 통나무편 등이 포함된 매립토층이 확인되었다. 매립토층 아래로는 바로 물이 스며드는 사질점토층과 풍화암반층으로 이어짐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경계석축이나 확실한 연지(蓮池) 퇴적물(문화층)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장기간 물이 고여 있는 자연연지(自然蓮池) 혹은 늪지임은 확인할 수 있었다.

제4차 발굴조사는 전년도에 이어 연지 2차 발굴조사였다. 조사 대상지는 전년도에 지질관정조사를 하여 퇴적층을 확인한 하원동 1091번지 늪지이다. 전년도에 발굴한 1076번지 내에 폭 2m의 남북 트렌치를 남으로 계속 연장하여 연지구역의 남북 전체 층위와 유구를 확인하고, 늪지의 동서 층위와 연지시설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지구는 법화사 서북쪽 수원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모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전(水田)으로 이용되었던 곳이다. 이 구역 조사를 통해 서쪽 끝 가장자리를 둘러 축담이 생토층까지 내려간 것을 확인하였다. 이 축담시설이 이 곳 늪지의 석축시설이기는 하나 늪지 바닥에서는 일정한 시설물과 유물이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트렌치에서 확인된 층위에서 완만하게 중심부가 움푹 들어간 늪지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제5차 발굴조사는 1, 2차 발굴조사 구역인 하원동 1076번지 서북편 발인 1062번지일대 3,988㎡에 대한 전면발굴이었다. 아울러 1982년에 조사하지 못한 1045번지와 법화사 경내 구역에 대한 조사였다. 발굴을 통해 금당지 서북편 1062번지에서 건물지 3개소, 계단지 3개소, 보도 4개소, 배수로 2개소, 기와매립구덩이 2개, 담장지 1개소 등을 확인하였다. 특히 건물지 가운데 하나는 노출된 기단 석열(石列)의 길이로 보아 70평 정도의 건물로 정면 5칸, 측면 3칸 이상의 건물이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발굴에서는 용봉문막새와 ‘始重禪十六年己卯畢’(시중창16년기묘필) 명문와가 출토되었다.

제6차 발굴조사는 5차 발굴구역에서 서편으로 연결된 구역에 대한 조사였다. 이 조사에서는 고려시대 건물지군이 조선시대 건물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상당히 파괴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려시대 건물군은 내부성토층에서 확인되는 소수의 청자편에서 건물지의 축조시기를 추정할 수 있었다. 건물지는 5개소가 확인되었다. 그 중 하나는 기존에 보고된 바 있는 건물지로 승방지로 추정되는 건물이다. 확장 노출 발굴을 통해 앞 기단 부분을 확인하였으며, 이 건물지의 초석 방향은 동서로, 2열씩 11개, 앞쪽에 지름 직경 70cm 이상의 초석(礎石) 4기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이 건물지는 최소 정면 7칸 이상, 측면 3칸 건물로 판단된다.

이외의 조선시대 건물지는 모두 2개소이다. 대부분 기단석열(基壇石列)과 초석(礎石) 일부만이 남아 있을 뿐 1950년대 군숙영시설로 인해 거의 파손된 상태였다. 이 발굴에서 중요한 단서는 사찰의 외곽지를 둘러싼 외곽담장지의 확인이다. 담장지는 크고 작은 자연할석을 이용하여 하단부(下端部)를 축조한 후에 할석을 외벽선에 맞게 끼워 올려 축조하였다. 발 경계 담장지처

럼 하부 담장 석렬만을 뚜렷하게 축조한 후 상단은 잡석을 채워 올려 축조한 것이다. 잡석 내부에는 할석 이외에 기와편, 자기편이 확인된다.

제7, 8차 발굴조사는 1066번지와 1067번지의 밀감과수원을 대상으로 행해졌다. 이 곳 일대는 대체로 경사가 거의 없는 완만한 지대로 발굴구역 중앙에 과수원을 경계 짓는 돌담이 일렬로 놓여 있었다. 이 구역은 과수경작 전에 논으로 이용되었던 곳으로, 지표 하 50~100cm 정도에서 늪지층이 확인되었다. 발굴구역의 남쪽발인 1067번지에서는 토층이 확인되었다. 층위는 지표 하 30~50cm 정도에서 논외의 바닥층이면서 생토층인 물이 빠지지 않는 사립이 약간 섞인 단단한 명황색 점토층이 확인되었고, 그 위로 아주 얇게 미세한 명황색 점토층이 형성되었으며, 그 위로 잡석이 30cm 정도의 두께로 덮여 있었다. 이 구역에서는 논을 밭으로 개조할 때 습기가 과수의 뿌리를 썩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인 폭 70~80cm 정도의 돌로 쌓은 수로 이외에는 별다른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폐와무지 구역의 보완조사에서는 범어(梵語)로 된 각종 막새와 '至元六年己巳始'(지원6년기사시) 명문기와가 확인되어 5차 발굴에서 확인된 명문(銘文)과 연결되는, 즉 '至元六年己巳始始重創十六年己卯畢'(지원육년기사시시중창16년기묘필)이라는 명(銘)을 확인할 수 있게 된 바, 1269년(지원 6)에 중창(重創)을 시작하여 1279년(지원 16)에 끝냈다는 해석이 가능해졌다.

#### 발굴 유구(遺構)의 고찰

법화사지는 1982년부터 1997년까지 모두 8차에 걸쳐 8,500여 평에 달하는 곳을 발굴조사하였다. 발굴지점은 크게 건물지와 연지추정 구역으로 나누어진다.

건물지 구역은 현 대웅전 구역과 그 뒤편 하월동 1046과 1046번지 일대이다. 이 구역은 크게 건물지와 건물지간 보도 그리고 외곽담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 건물지 가운데 한 곳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지구는 능선 아래 면을 평삭(平削)하여 시설되어 있었다. 각 건물지의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특수건물지는 그 규모가 정면 5칸, 측면 4칸에 이르는 약 100평 이상의 건물이며 무량수전의 형태로 복원되어 있다. 그리고 특수건물지라는 명칭은 다른 건물지와 비교할 때 전혀 다른 축조방법, 석재, 성격 등을 감안하여 붙임으로써 차별성을 두고자 하였다. 즉, 분류자의 의도적인 분류를 뜻할 뿐이라는 것이다. 생토암반층을 파고 들어가 하단기단부를 만들고 그 위에 면석과 갑석을 얹어 2중기단부를 만들었다. 성토면은 주변의 치석을 깔아 수평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곳 초석(礎石)은 주좌각원(柱座刻圓)으로 만든 것으로, 제주도 현무암을 이용한 주변 건물지의 그것과는 대조가 된다. 또한 건축기술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공을 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 건물이 없어진 후에 와서도 초석들은 후대 신축 건물의 초석으로 재사용되었으며 지붕에 사용한 운룡문(雲龍文)·운봉문(雲鳳文)막새들도 후대 건물의 보도에 이용되었다. 이 건물의 부속시설은 확인할 수 없었다.

② 건물지(1)의 축조시기는 조선 초기로 보인다. 특수건물지의 초석과 기와 등을 재사용하여 신축하였다. 건물지 내부성토층에서 운봉문막새가 수습되었고 청자편도 섞여 있다. 생토면의 굴곡상태가 매우 심하여 기와를 기단부(基壇部)의 위쪽 면 높이까지 채워 성토하였다. 건물지 규모는 정면 18m, 측면 13m이다. 각 주초석 사이의 거리는 9자 정도이다. 건물지 방향은 N30. E 내외이다. 건물지의 전체범위와 주초석의 간격을 고려해 볼 때 정면 5칸, 측면 3칸인 약 65평 정도의 건물로 추정된다. 건물지 북쪽 편에 배수시설과 온돌시설(방고래)이 확인되며,

동쪽으로 기와보도가 시설되어 있었다.

③ 건물지(2)는 건물지(1)의 북쪽을 파괴하고 들어서 있다는 점에서 시기 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물지의 석렬은 남동쪽과 북서쪽에 일부 남아 있으나, 기와건물의 정연한 기단이라 보기는 어렵다. 초가건물로 보이며, 그 규모는 남북석렬이 7m 내외이고 동서석렬은 파괴가 심하여 그 길이를 파악할 수 없었다. 건물지 방향은 N30. E 내외이다. 내부 성토는 자갈한 잡석(雜石)을 점토와 섞어 다졌다. 건물지 내부 초석은 2기만이 남아 있다. 적심석(積心石)이라 생각되는 원형돌무더기 일부도 남쪽에 잔존하였다. 서북쪽에 기와 보도와 장방형 아궁이시설(부엌공간)이 확인되었다.

④ 건물지(3)은 건물지(1)의 서편 기단석렬과 맞물려 기단석렬이 만들어져 있다. 건물지 방향은 N30. E 내외이다. 그 규모는 정면 14m, 측면 7m인 30평 정도로 추정된다. 이 곳은 승방지(僧房址)로 추정되며, 건물 초석은 동서로 뒤편 2열씩 11기, 앞쪽에 지름 직경 70cm 이상의 초석 4기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이 건물지는 최소 정면 7칸 이상, 측면 3칸 건물이 들어섰던 것으로 판단된다. 뒤쪽으로는 툃마루, 즉 난간을 둔 건물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내부에서 확인된 시설로는 기와로 만든 3군데의 방고래(온돌시설)가 확인된다.

⑤ 건물지(4)는 건물지(3) 서편에서 확인되었다. 이 곳은 고려시대 건물지로 판단된다. 건물지의 시설방향은 기단석렬의 남쪽부분만 남아 있어 확실치 않으나, N20. E 내외이다. 남아 있는 남쪽 기단석렬의 길이는 7m 정도이다. 기단석렬이 맞물린 방향이 남쪽으로 가지런하고, 그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기단석렬의 석재는 모두 현무암제 할석(割石)이다. 내부 초석은 건물지(5)를 신축하면서 모두 파괴되었다.

⑥ 건물지(5)는 점토를 가지고 성토하였다. 불규칙한 생토암반층에 점토를 같은 높이로 성토함으로써 건물지 성토면을 맞추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기단석렬의 방향은 건물지(4)의 그것과 동일하다. 대체로 건물지 방향은 기단석렬의 남쪽부분만이 남아 있어 확실치 않으나, N20. E 내외이다. 남아 있는 남쪽 기단석렬의 길이는 6.6m 정도이다. 건물지 내 남쪽 기단석렬 서편에 아궁이시설이 확인되었다.

⑦ 건물지(6)은 건물지(4)와 (5)의 앞쪽에 위치하고 있다. 여기는 고려시대 건물지로 판단된다. 건물지 방향은 기단석렬의 서쪽부분만이 남아 있어 확실치 않으나, N20. E 내외이다. 남아 있는 남쪽 기단석렬의 길이는 6m 정도이다. 기단석렬은 맞물림 상태가 양호하며 기단석렬의 석재는 모두 현무암제 할석이다. 내부 초석은 후대시설이 들어서면서 파괴되어 확인되지 않는다. 건물지 내부시설로 방고래시설이 확인되었다. 방고래는 건물지 북서편 성토층 내에 시설되어 있었다.

⑧ 건물지(7)은 건물지(8)과 (9)와 함께 동일한 축선에 밀집되어 건물지 간에는 장방형의 공간이 생겨났는데, 마당시설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성토층은 점토, 잔자갈, 기와편 등을 섞어 단단하게 다진 층으로 판단된다. 건물지 방향은 N17. E 내외이다. 남아 있는 남쪽 기단석렬의 길이는 6m 정도이다. 기단석렬의 맞물림 상태는 영성하며 상면 레벨도 정리되어 있지 못하다. 기단의 석재는 모두 현무암제 할석이다. 내부 초석은 완전하게 파괴되어 확인되지 않는다. 외부시설로 남쪽부분 기단석렬과 같은 방향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석렬이 확인된다.

⑨ 건물지(8)은 건물지(7) 및 (9)와 직각으로 맞물려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대체로 건물지 방향은 기단석렬의 동쪽부분만이 남아 있어 확실하지는 않지만 N16. E 내외이다. 남아 있는 동쪽 기단석렬의 길이는 10.8m 정도이다. 기단석렬이 맞물린 방향이 남쪽으로 가지런하고 그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기단석렬의 석재는 모두 현무암제 할석이다. 내부 초석은 건물지 북쪽에 치우쳐 3기가 확인되며 서편 기단석렬 중앙에 적심석이 일부 확인된다. 초석은 현무암제

판석과 할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㉔ 건물지(9)는 후대시설물과 군 숙영(宿營) 관련 시설물이 새롭게 들어서면서 상당히 파괴된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 층위는 잔자갈, 마사토, 목탄, 기와부스러기 등을 흑갈색토와 섞어 단단하게 다진 층으로 판단된다. 성토층의 두께는 30cm 내외이며 단일층이다. 기단석렬의 방향은 건물지(7)의 방향과 동일하다. 대체로 건물지 방향은 기단석렬의 북쪽부분만이 남아 있어 확실치 않으나 N17. E 내외이다. 남아 있는 남쪽 기단석렬의 길이는 4.4m 정도이다. 기단석렬의 맞물린 방향이 동서로 가지런하고 그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기단석렬의 석재는 모두 현무암제 판석과 할석이다. 내부 초석은 건물지 서편에 치우쳐 2기가 확인된다. 초석의 간격은 2.0m이다. 기단석렬 북쪽으로는 일련의 돌을 깔아 놓는, 즉 부석(敷石) 형태의 석렬이 확인된다.

계단시설 북고남저의 지형을 평삭하여 건물지를 조성하다 보니 높이 차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적인 계단상 유구는 건물지(3) 뒤편에서 확인된다. 계단석렬은 모두 5단 시설로 이루어져 있었다. 계단 간격은 1.5~1.8m 정도이다. 석렬의 축조상태를 보면 생토암반을 'L'자형으로 파고, 굴착한 면에 직각으로 길이 20cm 정도의 돌을 동·서열로 짜 맞춰 놓았다. 석렬상면과 같은 레벨이며 기와와 자잘한 잡석을 동일 높이로 깔아 놓았다. 석렬 밑으로는 기와와 도자기가 무더기로 경사면에 흩어져 있었다. 크고 작은 원형 굴광선이 계단 간에 확인되어 화초를 심었던 구덩이로 판단된다.

보도시설 건물지 주변에 만들어져 있었다. 보도는 석렬보도(石列步道)와 박와보도(薄瓦步道)로 나누어진다. 대표적인 보도는 계단상 유구의 북편에서 확인된다. 보도의 규모는 길이 7.1m, 폭 0.8m로 확인되었다. 보도의 경계석렬 축조방법을 살펴보면 북쪽 경계는 수기와를 일렬로 깔아 사용하였고 남쪽은 할석을 이용하여 마감하였다. 보도의 내부를 보면 생토암반층 위로 자갈·소토(燒土)·점토 등을 깔아 다져 놓았고 그 위로 평기와와 막새기와를 한단으로 겹쳐 공간 없이 수평으로 깔아 놓았다. 특이한 점은 전시기 건물의 주요 기와로 판단되는 운봉·운용 문막새를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했다는 점이다.

폐와무지[폐와지(廢瓦穴)] 외곽담장지와 담장지(4)의 밖에 시설되어 있었다. 폐와무지의 범위는 남~북 16m, 동~서 22.6m, 깊이 1m 정도이다. 이 폐와무지는 3~4단의 2열 돌담으로 그 외부를 감싸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돌담은 장방형이다. 이 폐와무지 내부에서 확인되는 유물은 기와가 주이고 일부 청자, 도기편이 섞여 있다. 폐와무지 중앙부분에서 '至元六年己巳始' (지원6년기사시)이라는 명문와 등이 나왔고 주로 상면에서 연화문(蓮花文)막새 등이 출토되었다. 기와의 출토상태를 보면 모두 한꺼번에 버려졌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담장지 바로 외곽에서 다량의 청자가 출토된 점이다. 청자음각앵무문대접 등 양질의 상품청자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 폐와무지는 사찰 외곽부분에 해당된다. 폐와가 장방형의 석렬 안에 버려진 것은 아마도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와가 귀한 도내 상황인지라, 기와를 재활용할 차원에서 석렬을 정연하게 만들어 보호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점은 폐와무지가 들어선 곳이 매우 안정되어 있다는 데서도 엿볼 수 있다.

담장지 사찰 전체를 둘러싼 잡벽형 외곽담장지와 크고 작은 자연석 그리고 주변에 버려진 석

재를 이용하여 일정한 규칙 없이 올린 건물 간 내부담장지로 구분된다. 특히 외곽 담장은 모두 허물어져 아주 난잡하게 흩어진 채 확인되었다. 그 범위는 건물지(2)의 북동편 외곽부분, 계단상의 유구와 기와보도 북쪽 외곽부분, 건물지(8)의 서편 외곽부분이다. 이외에 건물간에 시설되었던 내부 담장지도 일부 확인되고는 있으나 파손이 심하다.

초가(草家) 관련시설 남쪽 외곽담장지 끝부분에서 초가와 관련된 시설로 추정되는 유구가 있다. 현무암제 할석을 사용하여 건물지 앞쪽 석렬을 만들어 그 앞으로 자갈을 깔 시설이다. 이 유구는 전체적으로 일부만 남아 있으나 초가시설로 추정된다.

군숙영시설(軍宿營施設) 8만5,000평에 달하는 발굴지 전체 범위에서는 1950년대 군숙영지와 관련된 시설물도 확인된다. 이들 시설물로는 군 막사, 창고, 자갈보도, 포진지, 장방형유구, 취사, 배수로 등이다. 또한 탄피와 솔 등의 유물도 내부에서 수습되었다. 결국 이들 군숙영시설이 사찰 유구를 파손시킨 주요인이라 하겠다.

연지추정구역(蓮池推定區域) 건물지 남쪽에 자리하고 있다. 건물지구역에서 나오는 수원(水源)이 계속 낮은 지형을 따라 흘러 자연적인 늪지가 조성되었던 구역이다.

1530년(중종 25) 편찬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대정현(大靜縣) 불우(佛宇)조에 실린 고려말 혜일선사(慧日禪師)의 시 가운데 ‘法華庵畔物華幽’(법화암 물가 언덕에 물화가 그윽하고)라는 구절이 있어 고려 말 당시 법화사 주변에는 어떤 형태로든 물 고인 지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 법화사 경내나 주변에서 물 고인 구역은 두 곳을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연지추정구역에 대한 발굴조사에서는 거의 전 지역이 표토층 아래에서 매립토층이 확인되었다. 매립토층 아래로는 연못 퇴적층이나 호안경계시설(湖岸境界施設)은 노출되지 않고 바로 물이 스며들어 변색된 사질점토층으로 이어진다. 특히 한 구역의 중앙부에서 확인되는 적석군(積石群)은 전체 층위양상(層位樣相)에서 제2·3층의 매립층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군숙영지(軍宿營地) 매립시 적석된 것들이었다.

지금까지 조사결과 연지(蓮池)의 경계석축(境界石築)으로 단정할 만한 시설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주변에서 확인되는 석축(石築)들도 층위나, 유구의 성격으로 보아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시설물로 판정하기는 곤란하다. 조사구역 내에서 트렌치 내의 층위와 물이 고인 지형으로 보아 완만한 큰 웅덩이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인공적으로 조성된 연지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고고학적 증거로 보아 어렵다고 하겠다.

결국 연지추정구역은 주변지형보다 낮은 지형적인 여건으로 인해 북쪽 구릉의 수원(水源)에서 흘러온 물이 계속해서 고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가장 낮은 곳을 중심으로 점토층 자체가 이질화(泥質化)된 늪지층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늪지는 후대 문헌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부분적인 논농사’를 가능케 한 것으로 판단된다.

#### 출토유물의 고찰

법화사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용(龍)과 봉황(鳳凰)무늬 막새 등을 포함하는 각종 기와와 청자류(靑磁類)가 다수를 차지하며 소량의 분청사기(紛靑沙器), 백자(白磁)와 중국백자(中國白磁)가 출토되었다.

기와 크게 막새류와 평기와로 분류하고 막새는 연목기와와 수막새[원와당(圓瓦當)], 암막새[평

와당(平瓦當)로 나눈다. 다시 평기와는 수기와와 암기와로 구분된다. 명문기와는 암막새와 수기와에 주로 나타난다.

① 막새 : 법화사에서 출토되는 막새는 모두 5종으로 수막새 2종과 암막새 3종이다. 『법화사지』(1997, 제주대학교박물관 조사보고서 제9집)에 실린 박용범의 연구를 참고하자면, 수막새는 운봉문(雲鳳文)막새와 연화문(蓮花文)막새이다. 암막새는 운룡문(雲龍文)막새, 양각화문(陽刻花文)막새, 연주연화범문(梵文)막새이다.

운봉문암막새와 운룡문막새는 세트로 확인된다. 운봉문수막새는 동시에 같은 장인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주연부 직경 12.5cm, 두께 1.7cm, 주연 1cm이고, 안으로 음각원문을 돌리고 구름과 봉황을 조화롭게 배치·양각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고정시키기 위한 작은 구멍 3개가 삼각형태로 뚫려 있다는 점이다. 운룡문암막새는 총 여섯 개 물결형태의 원호로 이루어진 화두형(花頭形)이다. 내림새 주연부 직경이 20cm 내외이고, 주연 내에 외곽띠를 두르고 그 안에 구름과 봉황이 양각되어 있다. 이들 막새는 1989년 『조선고고학개요』(도서출판 새날)에 실린 화보에서도 보이듯이, 고려 왕궁지인 개성 만월대에서도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모양이 비슷할 뿐 제작방법과 태도가 다르게 보인다. 다만 용과 봉황무늬의 막새는 왕실건축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금기품 일종이다. 이러한 운룡문막새는 1965년 『몽골왕궁보고서』(몽고과학원)에 의하자면, 몽골왕궁에서 흡사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즉, 법화사지 출토의 운룡문막새는 용의 양각수법, 주연 내의 외곽띠, 기와재질이 거의 유사하여 육안상으로는 개성 만월대보다 몽골왕궁 것보다 더 가까운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특수건물(현 대웅전)이 사찰기능보다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운룡문막새는 현 대웅전이 들어선 구역 내에서와 계단상유구 복편 건물지의 기와보도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구멍이 삼각형태로 세 개가 뚫려 있는 것으로 보아 일부는 연목(連木)기와일 가능성이 높다. 특수건물지에 사용되었던 막새를 다른 건물지의 기와보도에 사용했다는 사실은 두 건물지간에 건물이 들어섰던 시기의 차이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에 계단상유구 복편건물지의 건물이 특수건물지의 건물이 폐기된 이후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연화문수막새는 연판이 6, 8, 10엽이 확인된다. 특징적인 것은 자방이 아무런 장식없이 돌출된 둥근 원상으로 표현된다는 점과 주연부에 표현되어야 할 연주가 주연부가 아닌 문양권 내의 연판 사이에 배치되었다는 점이다.

양각화문(陽刻花文)암막새는 양각형식(陽刻形式 ; 菱形)으로 표현된 화문형식으로 암기와와 직각 혹은 둔각을 이루어 접합된다. 둔각으로 결합하는 화문형식은 두 점 모두 폐와무지에서 출토되었다. 이러한 기와 양식은 폐와무지의 유물이 모두 13세기 이전임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고려 초기까지 내려다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모양을 보면, 돌출부 바로 상단에는 여러 개의 잎이 상향하여 뻗어 있고, 양옆으로 판단이 날카로운 화엽이 대칭하고 있다. 주연부는 2조의 돌대문으로 구성하였는데, 내측의 것이 두껍고 돌출정도가 두드러진다. 막새의 측단면은 역삼각형에 가깝다. 드림새의 폭은 대략 8.0cm 정도가 된다.

연주화문범문막새는 암기와가 부착된 상태로 거의 원상에 가깝게 출토되었다. 막새의 정중앙에 ‘옴’자(字) 형태의 명문이 자리하고 양단으로 범자문이 우서(右書)되었다. 주연부는 1조의 침선돌대로 구획했는데, 연주는 주연부가 아닌 주문양대의 가장 외곽에 달려 있다. 그리고 연주는 대칭적인 구조로 보아 도합 45과가 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② 명문(銘文)기와 : 명문와는 도합 12종이 확인되었다. 대략적으로 명문은 ‘至元六年己巳始重

鬻十六年己卯畢'(지원6년기사시중창16년기묘필), '萬戶'(만호), '寅吉'(인길), '高內村'(고내촌), '大'(대) 등이다.

'至元六年'(지원6년)의 명와는 세로로 길게 늘어뜨린 명문부내에 '至元六年己巳始'(지원6년기사시)가 우서(右書)로 양각되었다. 일부에서는 희미하게 '始'(시)자가 확인된다. 이 명문와의 발견으로 1993년도 발굴보고서에 수록된 '始重鬻十六年己卯畢'(시중창16년기묘필)의 명기와와 동일한 기와임이 밝혀졌다. 즉, 지원 6년은 1259년(원종 10)이며 지원 16년은 1279년(충렬왕 5)임으로 중창이 10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시문(施文)한 기와인 것이다. 명문의 상단에는 연화로 보이는 문양이 침선으로 표현되었다. 중심의 문양의장은 수지문이며 세션을 사용하였다.

'萬戶'(만호)의 명와는 장방형의 명문부를 두른 내부에 '萬戶高奉□'(만호고봉□)자가 우서로 양각된 기와이다. 하부의 명문은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 자체(字體)가 깔끔하지도 못하고 타날(打捺)된 상태도 불량하다.

'寅吉'(인길)의 명문와는 좌우로 3회에 걸쳐 타날되었다. 측면 내측으로 절반 정도의 절단흔이 있다. 후면에 분할봉흔적이 보이며, 마모가 심하여 포목의 빈도수를 확인할 수 없다.

'忠'(충)의 명와는 암기와로서 3조의 방형테두리 내에 '忠'자가 좌서(左書)되었다. 주 문양의장은 수지문이며, 2회에 걸쳐 타날되었다.

'大'(대)의 명기와 경우 범문에 부착된 암기와의 문양의장이 수지문이며 장판의 타날판을 사용한 중간부분에 '大'자가 시문되었다. 극소수 대응전지에서 확인된 기와를 제외한 발굴 구역 전역에서 출토된 동일한 문양의장을 가지는 기와의 명문은 '寅造'(인길), '己卯'(기묘) 등이다. 이들 기와 또한 장판의 타날판으로 기와등면에 횡방향(橫方向)으로 타날수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제작상의 특징은 10세기에서 14세기 전반에 나타나는 평기와 제작법상의 특징이다.

③ 평기와(平瓦) : 평기와는 수지문계열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모두 장판의 타날판을 사용하여 횡방향으로 타날한 기와이다. 수지문과 복합되어 사용된 문양으로는 격자문, 고사리문, 선문, 방곽문 등이 있다. 암기와는 수지문계열 9종, 격자문, 선문, 복합문 3종의 문양의장이 확인되었다. 수기와는 수지문 7종, 복합문 2종의 문양의장이 보인다. 무문기와인 경우 일부러 문양을 지운 기와와 원래 문양이 없는 소형기와가 수습되었다. 도자기 전체 발굴조사를 통해 폐와무지에서 청자가 주로 출토되었고, 발굴지 전역에서 분청사기나 백자가 확인된다. 그리고 소량의 도기류와 중국 백자편도 확인된다. 이에 대해서는 『법화사지』(1997, 제주대학교박물관 조사보고서 제9집)에 실린 김정선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① 청자류 : 기종은 대접, 접시, 잔, 잔 받침, 매병(梅瓶), 베개, 마상배(馬上杯), 뚜껑 등으로 대부분 일상용기이다. 청자의 태토(胎土)는 회백색, 회청색을 띠는 양질(良質)이 많고 시유(施釉) 상태도 대부분 양호하다. 청자의 종류는 무문(無文)과 음각(陰刻)·양각(陽刻)·양인각(陽印刻)을 전부 포함한 순청자류(純靑磁類)와 삼강청자류(象嵌靑磁類), 투각청자류(透刻靑磁類)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발색(發色)이 어둡고 태토가 조악한 청자도 소수 확인되고 있다.

대접, 접시, 잔 받침, 잔, 뚜껑 등의 청자편 가운데 순청자가 많은 양을 차지한다. 대접류로는 내면 구연(口緣)에 1조의 음각선대(陰刻線帶)만을 두른 무문대접, 내면에 앵무문(鸚鵡文)을 시문하거나 외면에 연판문(蓮瓣文)을 음각·양각한 대접, 국당초문(菊唐草文), 운룡문(雲龍文), 포도당초문(葡萄唐草文) 등이 양인각된 대접 등이 있다. 접시류는 틀을 이용하여 찍어낸 소형 전접시와 무문 또는 상감의 중형 접시가 있으며, 이외에 무문 뚜껑, 음각문 통형잔



(筒形蓋)과 무문이거나 구연에 뇌선문대(雷線文帶)를 두른 소형 잔 등이 있다. 이들 순청자는 대부분 갑발(匣鉢)을 이용하여 번조(燻造)되었으며 규석(珪石), 황색 토사(土砂)가 섞인 내화토(耐火土) 비짐, 모래받침 등 번조 받침의 종류도 다양하다.

상감청자는 대접, 중형 접시, 뚜껑, 잔, 병, 베개 등으로 순청자류와 비슷한 양이 출토되었다. 무늬는 국화문(菊花文), 운학문(雲鶴文), 당초문(唐草文), 모란절지문(牡丹折枝文), 여지문(窠枝文) 등 다양하다. 흑·백토의 감입(嵌入) 상태도 양호하다. 상감청자류 역시 대부분 갑번이며 규석, 모래비짐, 토사섞인 내화토 비짐 등을 받쳐 번조하였다.

상감청자 중 청자상감보상당초문대접(靑磁象嵌寶相唐草文大董)은 1159년에 죽은 문공유묘(文公裕墓)에서 출토된 청자상감보상당초문대접과 크기·기형·내면의 무늬 구성이 같다. 청자상감여지문대접(靑磁象嵌窠枝文大董) 역시 무늬의 배치(布置)가 다소 단순화 되었지만 12세기 후반으로 비정되는 명종(明宗) 지릉(智陵)에서 출토된 청자상감여지문대접과 유사하여 법화사 출토 청자의 제작시기를 유추해 볼 수 있다.

투각청자는 그 수가 많지 않고 작은 파편들이라 기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드물다. 그 중 이중원권(二重圓圈) 안에 모란절지(牡丹折枝)가 상감된 투각 편은 유색이 맑고 투명하며, 흑·백토의 감입 상태도 좋다. 태토는 회청색으로 양질이다. 크게 보아, 법화사 출토 청자는 대부분 질이 좋고 갑번(匣燻)한 예가 많아 당시의 고급품이 법화사에 공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법화사지 출토 도자기의 경우, 기형은 대접류와 접시류가 다수를 차지한다. 접시류 중에서도 틀을 이용하여 찍어낸 소형 전접시와 구연이 직립된 소형 접시의 양이 많고 병이나 주자(注子) 등 불교 의식구로 쓰였음직한 유물은 그 양이 많지 않다.

법화사지 출토 도자기는 그 형태나 무늬 등으로 보아 전라남도 강진 일대의 요지(窯址)에서 출토되는 청자의 양상과 비슷하고, 전라북도 부안·고창 일대의 청자요지에서 공급된 것으로 판단되는 미륵사지(彌勒寺址)의 도자기 유물과도 상당히 유사한 점을 볼 때 서남해안 일대에서 제작된 청자가 유입된 것으로 여겨진다. 주된 유입시기는 13세기 중반 이전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출토된 상감청자류 가운데 무늬의 구성이 아직 도식화되기 이전 단계, 또한 틀을 이용한 압인기법의 것들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자 외에 분청사기나 백자의 출토량이 적은 것은 법화사 사세의 변화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법화사 출토 청자는 대부분 질이 좋고 갑번(匣燻)한 예가 많아 당시의 고급품이 법화사에 공급되었다고 하겠다.

② 분청사기 :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사지 전역 가운데 폐와무지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출토되었다. 상감분청편은 백토의 감입(嵌入) 상태가 불량하며, 시유상태도 고르지 못하다. 인화분청편(印花紛靑片)은 내면에만 시문되거나 내외면에 시문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내면에만 시문된 인화분청편은 백토 감입이 깨끗하지 않다. 내외면에 시문된 것은 여러 무늬대를 설정하여 표면을 거의 메우고 있다. 인화분청편에 사용된 유약은 주로 녹색 빛이 약간 도는 투명유이다. ‘內贍’(내섬)이라는 명(銘)이 압인(押印)된 인화분청편이 계단상 유구 구역에서 한 점 출토되었는데, 압인된 위에 얇게 백토를 입힌 뒤 잘 닦아내지 않아서 뚜렷하지 않고, 시유 상태도 불량하다.

조화분청편(彫花紛靑片)은 출토량이 소량인데다, 기형을 파악할 수 있는 파편은 단 한 점에 그치고 있다. 이것은 표면에 백토를 얇게 입힌 후 당초문(唐草文)을 음각하였다. 발굴 조사된 전구역에서 단 두 점이 출토된 철화분청편(鐵花紛靑片)은 모두 병 몸통부편으로 계단상 유구가 확인되는 구역에서 수습되었다. 표면에 귀얄로 백토를 입힌 후 철분이 섞인 안료(顏料)

를 사용하여 당초문을 그렸다. 태토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순수하게 귀얄수법이 사용된 분청편(紛靑片)은 소량으로 투명유가 시유되었고, 태토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다. 출토 위치는 건물지(1) 주변이다. 덩빙 분장기법(粉粧技法)이 사용된 분청편은 내면에만 분장된 것과 내외면에 분장된 두 종류가 있다. 태토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이 표면에 그대로 드러난다. 저부(低部)가 남아 있는 파편의 대부분에 포개어 구웠던 자국이 남아 있다.

대체로 인화분청편 같은 경우에는 압인 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백토 감입 상태도 지저분하다. 철화분청(鐵花紛靑)과 같이 특수하게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청편을 제외하고는 법화사지 출토의 분청편은 대체로 15세기 중반에서 16세기 중반에 걸쳐 생산이 이루어졌던 전남 일대 자기요(磁器窯)와 연관지을 수 있다.

출토된 자기편 중에 조선시대 청자편이 한 점 있는데, 암녹색의 색조를 띤다. 내면 바닥에 구름무늬가 음각되어 있다. 굽은 정리가 잘된 비교적 넓은 굽으로 모래받침 흔적이 남아 있다. 이러한 조선 청자편의 하한 연대는 보통 17세기 후반까지로 보지만 법화사지에서 출토된 한 점의 조선 청자편은 음각 구름무늬가 시문된 점이나 태토로 볼 때, 문양이 사라지는 15세기 후반을 그 하한으로 삼을 수 있다.

③ 백자 : 법화사지 출토 백자편은 거의 순백자이며, 몇 점만이 후기에 해당한다. 백자편의 기형은 대접, 접시 그리고 잔류가 있다. 백자는 유백색(乳白色)의 연질(軟質) 태토, 혹은 유백색 계통의 경질 태토에 회색, 회백색, 청백색 계통의 유약을 입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그물상의 빙렬(氷裂)이 뚜렷하게 나타난 예가 대부분이고, 후자는 빙렬이 없거나 성긴 빙렬이 있다. 두 종류 모두 태토(胎土)에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표면에 기포(氣泡)가 형성되거나 잡티가 그대로 드러나 법화사지 출토 백자가 중·하품임을 짐작할 수 있다. 유약이 얇아서 물레자국이 선명하며, 저부가 남아 있는 파편의 저면 바닥에는 지저분하게 포개어 구웠던 흔적이 남아 있다. 번조 받침은 주로 태토 빚음 받침을 사용하였고 내화토(耐火土) 받침과 모래 받침을 사용한 흔적도 있다. 이들 가운데 초기 백자는 매우 드물고 대체적으로 17~18세기의 백자가 주를 차지한다.

후기 백자는 유(釉)가 두껍고, 빙렬도 뚜렷하게 보인다. 내외면에 크고 뚜렷한 태토비집 받침 흔적이 남아 있다. 태토의 입자가 고르지 않아 표면에 기포가 형성되었다. 대체적인 시기는 18세기 이후의 백자들이다.

④ 질그릇(陶器) : 발굴 지역의 한 곳에서 출토되었던 질그릇 편은 모두 경질도기(硬質陶器)이다. 저부 편이 남아 있는 질그릇 편은 거의 대부분 납작 바닥에 해당한다. 태토에 불순물이 섞여 있어 기표면에 작은 알갱이도 그대로 드러났다. 시유된 접시편도 한 점 수습되었다.

발굴 지역의 한 구역에서는 발과 향아리도 출토되었다. 그 중 구연이 직립(直立)한 반구형(半球形) 호와 그 외면에 시유된 흔적이 있으나 심하게 산화(酸化)되어 광택이 전혀 없다. 태토에 석영 알갱이와 기타 잡물이 섞여 있어 거칠고 조질인 향아리저부 편, 회색도기호의 저부로 굽 언저리와 동체부(胴體部) 하단에 타날문(打捺文) 흔적이 미세하게 남아있는 도기는 그 제작 기법상 고려 초기의 것으로 판단된다.

⑤ 중국 자기 : 발굴지역 가운데 건물지(2) 구역 일대에서는 중국 자기가 한 점 출토되었다. 저부 편이어서 확실한 기형은 알 수 없지만 신안(新安) 해저의 원(元)자기 가운데 청자첩국화당초문화병(靑磁貼菊花唐草文花瓶)과 기형이 유사하다.

또한 한 구역의 발굴지에서는 세 편이 중국 백자가 출토되었다. 앞서 김정선의 글에 의하면, 형태로 보아 모두 같은 개체의 편이라 한다. 이 편은 미륵사지(彌勒寺址)에서 출토된

중국 자기 중 송대(宋代) 경덕진계(景德鎮系)로 분류된 청백자와 유사한 것이다. 문양은 그릇의 내면에 시문되었는데, 시문할 때 시문구(施文具)를 기울여 한쪽을 깊게 파내고 그 무늬의 깊고 얇음에 따라 유색의 차이를 보이는 효과를 내는 획화기법(劃花技法)으로 시문되었다.

㉞ 기타 유물 : 법화사지 발굴에서 나온 유물 중 시기와 성격을 다루는 데 중요한 것은 '法華經前燈臺此樣四施主朱景'(법화경전등잔차양사시주주경)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청동등잔과 개원통보(開元通寶)이다.

먼저 청동소형종지는 폐와무지 하단에서 출토된 것이다. 구연이 둥글게 밖으로 말려 있고 굽이 외반된 종지이다. 내면 구연에 2조의 가는 음각선이 날카롭게 새겨져 있다. 밖으로 말린 구연부 바로 아래로 '法華經前燈臺此樣四施主朱景'이라는 글씨가 날카로운 도구로 음각되었던 것이다.

개원통보는 동전의 외곽이 다소 부식된 것이다. 상하좌우로 '開元通寶'(개원통보)라고 쓰여 있고, 배면 상단에 초승달모양이 있다. 공곽과 내곽의 두께가 얇은 것으로 보아 개인이 사사로이 만든 것으로 보인다. 개원통보의 주조시기는 당(唐) 고조(高祖) 무덕(武德 4年 ; 621), 당 무종(武宗) 회창(會昌)년간(841~846), 남송(南宋) 원종(元宗)년간(943~960년)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 상평통보(常平通寶)와 둘로 제작된 작은 부처상이 있다. 상평통보는 조선시대 1678년(숙종 4) 이후 주조된 화폐로, 법화사 폐사(廢寺) 이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자료에 해당한다. 이들 가운데 어떤 것은 3cm 지름 직경에 상하로 '常平'(상평), 좌우로 '通寶'(통보)의 명(銘)이 뚜렷하게 남아 있고 뒷면에 '常'(상) 자가 남아 있다. 또한 직경 2.3cm 크기로 부식이 심하여 글자를 알아볼 수 없고, 한 면 상단에 훈련도감에서 주조했다는 '訓'(훈) 자가 있으며 그 하단에 '中'(중), 좌측에 '七'(칠)이라는 글씨가 쓰인 것도 있다.

부처상은 어깨부위로부터 윗부분이 전부 파손된 소불(小佛)이다. 양쪽 손은 가슴 앞에서 주먹을 쥐고 가지런히 마주하고 있으나 한쪽 수인(手印)만이 확인되며 맞은편은 파손되었다. 양손 사이에는 옷주름이 비스듬히 표현되었고, 어깨선이 나타난 측면에도 옷주름이 길게 표현되었다. 상반신만으로 조성되었고, 수인으로 보아 나한상(羅漢像)의 일부로 짐작된다. 암질(岩質)은 사암(砂岩)계통으로, 제주도 지역의 석재(石材)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법화사지 시설의 변천

법화사지는 크게 건물지구역과 연지구역(蓮池區域)으로 나누어진다. 건물지구역은 건물지와 기타시설물의 중복관계, 유물출토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크게 4차 시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1차 시기는 특수건물이 들어서지는 1269년 이전 시기이며, 2차 시기는 특수건물로 판단되는 건물의 존속시기이다. 3차 시기는 금당지, 법당·승방지와 계단, 담장지가 존재했던 시기 그리고 4차 시기는 사찰의 폐사에 이르는 시기로 이전의 위용있는 사찰건물이 서서히 없어지고 초가(草家)만이 남아 그 명맥만 유지하는 시기이다.

연지구역은 이미 1차 시기부터 자연적인 연못형태로 자리했으며, 2차 시기에는 사찰건물과 잘 어울려 있었고, 그러다가 4차 시기에 와서 사찰연지(寺刹蓮池)의 기능이 없어져 버린 것으로 판단된다.

1차 시기( ?~1269년 이전) 이 시기는 법화사의 창건시기에서 중창시기까지로 보았다. 중창에 대한 절대연대자료는 발굴과정에서 출토된 '至元六年己巳始重葺十六年己卯畢'(지원6년기사

시중창16년기묘필)의 명문와이다. 내용인 즉, '지원 6년(고려 원종 10, 1269)에 중창을 시작하여 지원 16년(고려 충렬왕 5, 1279)에 중창을 마쳤다.'는 것으로, 법화사 중창이 10년에 걸릴 정도로 대불사(大佛事)였다는 것이다. 또한 '重鑿'(중창)이 의미하는 바가 이전 사찰건물이 존속하고 있었다는 단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중창시기인 1269년, 즉 13세기 중반 이전의 중요유물은 개원통보(開元通寶), '法華經前燈臺此樣四施主朱景'(법화경전등잔차양사시주주경)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청동등잔(靑銅燈臺)과 청자양각연판문(靑磁陽刻蓮板文)대접, 고급도기이다.

먼저 법화사지 출토 개원통보 양식의 주조시기는 무종(武宗) 회창년간(會昌年間 ; 841~846)이다. 이것이 법화사지에서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유물이다. 그리고 일부 도기 중에 10세기 이전의 제작수법을 가진 것들이 있다.

'法華經前燈臺此樣四施主朱景'(법화경전등잔차양사시주주경)이라는 명의 청동등잔은 남송(南宋) 때 제작되는 청동등잔과 유사하여 대략 10~11세기의 유물로 판단된다. 또한 폐와무지에서 출토된 양질의 상품청자 중에 청자양각연판문대접이 주목된다. 비교적 이른 시기의 녹청자계열(綠靑磁系列)로 대략 11세기경을 중심연대로 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유물군은 전체 유물에서 차지하는 수량은 극히 적으나 12세기 이전에 법화사가 존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고고학적 자료이다.

역측일지 모르나 법화사 창건시기와 관련하여 사찰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대포(大浦)'의 옛 명칭이 '당포(唐浦)'라 하여 당(唐)과의 교류에서 지명이 비롯되었다는 구전 등을 덧붙여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시기와 관련하여 추정되는 건물지의 경우도 2개 구역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구역 건물지는 후대 건물이 동일한 높이에서 계속해서 지어져 잔해만이 남아 있었으며, 건물지 구역의 토층도 생토암반에서 표토까지 높이가 50cm 미만으로 층서적인 변화가 거의 없었다. 또한 석재(石材)가 귀한 상황에서 전대 건물의 석재를 재활용하여 모든 유구가 파괴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시기 건물지가 남아 있지 않은지 모른다. 다만 그 시기의 사찰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차 시기(1269~1400년경) 이 시기는 원(元)의 제주지배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탐라총관부(耽羅總管部)가 설치된 후 원에 의해 중창(重創)된 사찰건물이 존속했던 시기이자 법화사의 가장 전성기이다.

이 시기 건물지는 특수건물지와 4개 구역이 확인되고 있다. 특수건물지는 그 규모가 정면 5칸, 측면 4칸, 약 100평 이상의 부석사 무량수전의 형태로 조사되었다. 암반층을 파고 들어가 기단부(基壇部)를 만들고 그 위에 면석(面石)과 갑석(甲石)을 얹어 2중기단부를 만들었으며 성토면(盛土面)은 치석(治石)을 깔아 다져서 수평·처리하였다. 이 건물지의 초석은 주좌각원(柱座刻圓)의 초석으로, 제주도 현무암을 이용한 주변 건물지의 초석과는 다르다. 지붕 처리는 운용문(雲龍文)수막새(圓瓦當)·운봉문(雲鳳文)암막새(平瓦當), 주름무늬암기와(平瓦)가 세트로 사용되었으며, 운봉문수막새 중 일부는 연목(連木)기와가 사용되었다. 이 건물은 건축기술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공을 들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 당시 제주도에서 제일 웅장한 건물이었다고 하겠다. 이 건물에는 아마도 원(元) '良工'(양공)이 만든 동불상(銅佛像) 3기(基)도 안치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 건물의 위세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용과 봉황문막새이다. 원래 이 기와는 왕실건축 이외의 건물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금기품(禁忌品)'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운용문(雲龍文)막새인 경우

고려 왕궁지인 개성 만월대에서 출토된 막새와 비교할 때 그 모양이 비슷할 뿐 제작방법과 태토색이 전혀 다르다. 구태여 비교한다면, 이 막새는 몽골 콩두미궁전에서 발굴된 막새 중 용(龍)의 양각수법(陽刻手法), 주연 내의 외곽띠, 기와재질이 거의 유사하여 육안상으로는 개성 만월대 것보다 더 가깝다. 이러한 각도에서 보면 이 특수건물지가 사찰건물의 기능과 더불어 그 이상의 위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원의 왕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 절강성 관요(官窯)에서 구어낸 원대(元代) 백자(白磁)의 유입과 사용은 이러한 사실을 보충하고 있다.

다음 시기에 와서, 이렇게 잘 만들어진 용(龍)과 봉황문막새를 신축건물에 쓰지 않고 보도블록으로 사용하였다. 다시 말해서 용과 봉황문막새를 지붕에 사용할 수 없는 금기의식이 적용된 것이다.

특수건물지 건물의 축조시기는 고고학적 절대연대자료인 ‘至元六年己巳始重鑿十六年己卯畢’ (지원6년기사시중창16년기묘필)의 명문와에서 보이는 지원(至元) 6년(고려 원종10 : 1269)에서 지원 16년(고려 충렬왕 5 : 1279)이다. 이 건물의 폐사는 적어도 원의 멸망시기와 관련 있다 할 것이며, 대략 그 시기는 동불상 3기가 육지부로 이송되는 시기 이전인 15세기 초반일 것이다. 이 시기를 즈음하여 법화사의 위세와 사찰재원은 일차적인 타격을 받았을 것이다.

2차 시기에 해당되는 3개 구역은 중정형태 ‘ㄷ’ 자형 건물이다. 이 건물지에 사용된 막새는 연화문막새일 가능성이 짙다. 이 건물지에서 사용된 일상용기는 모두 폐와무지에 묻혔다. 폐와무지에서 나온 청자음각앵무문대접, 청자양인각국당초문대접, 청자음각화문잔받침, 청자상감매병, 청자상감국화문마상배, 청자상감모란문잔, 청자상감국화문잔, 청자퇴화문뚜껑, 청자상감두침, 투각청자, 청자화형전접시, 청자상감여지문대접, 청자상감운학문대접, 청자양각연판문대접, 청자반 등의 유물은 모두 13세기를 중심연대로 한다. 청자는 대부분 질이 좋고 갑변한 예가 많아 당시의 상품인 고급그릇이 법화사에 공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3차 시기(1400~1600년경) 이 시기는 원과 관련된 건물이 허물어진 이후로, 이전 시기 건물의 기와와 초석 등이 신축건물에 사용되었다. 이 시기 건물의 기단석열(基壇石列)에 사용된 석재(石材), 건물지의 방향 그리고 내부의 성토상태가 이전 시기와는 전혀 달라 축조시기를 구분할 수 있었다. 이 시기의 건물지에는 금당, 법당, 기타 부속건물 등의 건물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들 건물지는 이전 시기의 건물에 비해 규모가 작고, 건물 내부의 초석과 석재의 다듬질도 영성하다.

당시 건물 사이에는 봉황과 용문막새로 장식된 보도가 자리했음과 아울러, 경사면에는 계단시설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능선에서 흙이 내려오는 것을 막고 사찰의 테두리를 경계 짓는 외곽 담장을 두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담장지 밖으로는 당시에 귀했던 기와를 재활용하기 위해 이전 건물에 사용했던 기와를 모아둔 폐와무지도 확인된다.

이 시기에 속하는 유물은 조선청자, 상감분청, 인화분청(印花紛靑), 조화분청(彫花紛靑), 철화분청(鐵花紛靑), 귀얄분청(紛靑), 덤병분청(紛靑) 등의 도자기류와 석재 나한상 등이 있다. 분청사기의 기형은 대접, 향아리, 접시, 병 등이며 대접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상감분청의 무늬는 국화(菊花), 연판(蓮瓣), 당초(唐草), 여의두(如意頭), 선문(線文)이며 색조는 암녹색과 녹색을 띤다. 인화분청의 무늬는 국화문(菊花文)이 주로 쓰였고 우점(雨點), 와선문 등도 보이며, 색조는 회청색에 가깝다. 무늬는 복합문이며 기면을 거의 메우고 있는 것과 내면에 시문된 것이 있다. 특히 인화분청 중에는 ‘內贍’ (내섭)이라는 명(銘)이 압인된 인화분청이 계단상 유구에서 한 점 출토되었다. 철화분청은 병으로 귀얄로 백토를 바른 후 당초무늬를

그런 것이다. 조선청자는 내면바닥에 구름무늬가 음각된 것으로 문양이 사라지는 15세기 후반을 그 하한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대체로 법화사지의 분청사기(粉靑沙器)는 압인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백토감입상태도 지저분하다. 전시기의 청자와 비교할 때 그릇의 질이 낮은 중·하품이다. 이 도자기는 15세기 중반에서 16세기 중반에 걸쳐 생산이 이루어졌던 전라도 일대 분청사기 가마와 연관지을 수 있다.

따라서 3차 시기는 문헌기록의 내용과 건물지 내부 유물출토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원의 사찰 경영에서 벗어난 시점 이후의 시기로, 적어도 고려말~조선 초기에 건물들이 만들어져 분청사기 사용 시기까지 존속했으리라 짐작된다.

4차 시기(1600년경~ ) 이 시기는 18세기 이후의 후기 백자 사용시기와 맞물린다. 이 시기 건물지의 건물은 모두 초가(草家)로 판단된다. 발굴지역 가운데 한 곳의 건물지 구역과 초가관련 시설물, 그리고 화초(花草)나 채소 등을 재배했던 것으로 추측되는 계단상 유구, 무너져 내린 외곽담장, 뚜렷하지 못한 배수시설 등이 해당하는 유구이다. 그 시기의 시작은 1653년(효종 4) 이원진(李元鎭) 편찬 『담라지(耽羅志)』 대정현(大靜縣) 불우조(佛宇條)에, “법화사는 현 동쪽 45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절터와 나한전(羅漢殿) 자리의 초석(礎石)과 섬돌을 살펴보면 모두 크고 정밀하게 다듬은 석재를 사용하였으니 그 전성시에는 굉장하였을 것임을 생각할 수 있다. 지금은 단지 초가(草家) 암자 몇 칸만 있다. 그 서쪽에 물맛이 좋은 샘이 있는데 절 앞 눈에 물을 댈다.”라는 기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1653년경에는 이미 법화사는 몇 채의 초가만이 남아 있는 상태였던 것이다.

문헌으로 보이는 법화사의 폐사는 1530년에서 1653년에 이르는 시기인데, 전후 사정을 고려해 볼 때 16세기 후반이 아닌가 생각된다. 문헌자료로 볼 때 폐사는 되었으나 분명 몇 동의 초가가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입증하는 유물로는 유(油)가 두껍고, 태토(胎土) 입자가 고르지 않으며, 내외면에 크고 뚜렷한 태토비집 받침 흔적이 남아 있는 18세기 이후의 후기 백자류와 상평통보가 있다. 이 때 몇 채의 초가가 존속했다는 것이 사찰이 명맥을 유지했음을 뜻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여기에 다시 본격적인 불도(佛道)가 미치기 시작한 것은 제주읍 화북리 출신 비구니 안봉려관(安蓬慮觀)이 1908년 관음사 창건으로 제주불교를 중흥시킨 후, 1920년대 후반 안도월선사(安道月禪師)가 유서 깊은 이 곳에 포교소(布教所)를 창건하면서이다. 그러나 1948년 4·3 당시 중산간 일대의 소개령으로 포교소도 불에 타고 말았다. 1950년 6·25가 일어나서 모슬포에 훈련소가 세워지면서 이 곳은 군숙영지(軍宿營地)로 이용되었다. 1959년 사진자료에 의하면 두 채의 초가가 자리하고 있었다.

법화사지 발굴을 통해 노출된 유구의 배치상태를 고려해 볼 때 법화사지의 중심은 현 대웅전의 북쪽 능선을 평삭(平削)하여 남북으로 길게 자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능선 부분은 대부분 발굴조사된 상태이나, 남쪽 능선 부분은 그러지 못한 상태이다. 이 남쪽 일대 발에는 주좌각원초석(柱座刻圓礎石), 와당(瓦當), 청자편이 지표상에 노출되어 있다. 이 지역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 후에야, 문지(門址)로부터 이어지는 법화사 전체 가람배치(伽藍配置)에 대한 해석과 아울러, 이 곳에서 논의·제시한 사찰의 시기별 변천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법화사지의 문화재적 가치

법화사지는 이미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71년 이래 제주도기념물 제13호로 지정고시되

어 있는 상태이다. 이후 법화사와 그 터에 대한 연구가 심화됨에 따라 법화사지의 역사적 의미와 문화재적 가치가 더 높아졌음과 아울러, 그 의미가 국가적으로도 보존·전승되어야 할 성격을 지녔다고 본다.

그 동안 법화사의 역사 규명과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가 1982년부터 1997년까지 모두 8차에 걸쳐 현재의 법화사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법화사지 발굴조사는 그 자체로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는 한편, 법화사의 역사적 성격을 밝히는 여러 방증자료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우선, 법화사지에서는 ‘至元六年己巳始重鑿十六年己卯畢’(지원6년기사시중창16년기묘필)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명문기와가 출토되었다. 즉, 법화사는 몽골족이 세웠던 나라 원의 쿠빌라이가 재위하던 지원 6년 기사, 1269년으로 고려 원종 10년에 해당하는 해부터 다시 짓기 시작하여 지원 16년 기묘년, 1279년이고, 고려의 연표로는 충렬왕 5년에 끝마쳤음을 알려주는 절대연대 자료를 얻게 되었던 것이다.

건물의 중창연대가 쓰여진 명문기와가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되는 일은 여태까지의 예로 보아 보기 드문 일이다. 이와 함께 법화사지는 중창연대가 뚜렷이 제시되는 사찰이 들어섰던 지역이므로 그 출토 유물과 유구에 대한 절대연대의 파악도 가능한 문화유적이라 점이 돋보인다고 하겠다.

오늘날에 와서는 법화사가 9세기 경 장보고의 해상활동과 관련하여 창건되었던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 논란거리가 되고 있으나, 고려시대 원종 10년부터 충렬왕 5년까지 10년간에 걸쳐 중창되었던 사실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다. 즉, 몽골족 나라 원이 제주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다가, 제주에서 최후의 대몽항쟁을 전개하던 삼별초를 고려와 연합해 평정한 다음, 여기를 자신의 직할령으로 삼았던 초창기 무렵 시기에 법화사의 중창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또한 법화사지에서는 원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유물도 상당수 출토되었다. 특히 용과 봉황문 막새도 나왔다. 법화사지 출토의 용과 봉황문 막새는 고려시대 때 왕실건축 건물 이외에는 사용이 금지된 것이었고, 또한 몽골 콩두미궁전에서 발굴된 막새와도 유사한 것으로 보아 원 지역으로부터 유입되었다고 하겠다. 이밖에도 원대 자기가 다수 수습되었다. 그리고 법화사에는 원의 ‘良工’(양공)이 주조한 미타삼존동불(彌陀三尊銅佛)도 안치되었다. 법화사의 미타삼존불도 조선시대 들어와 명 황제 영락제가 부모의 명복을 기린다는 명분을 내세워 가져갔던 만큼, 영험 혹은 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불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편 법화사지에는 이미 1653년 이전부터, 법화사가 웅장·화려했음을 추측케 하는 규모가 크고 정밀한 석재로 만들어진 주춧돌과 섬돌이 널려 있었다. 최근의 법화사지 발굴조사에 의해서도 몽골족이 제주사회를 지배할 때 법화사에는 초석으로 제주도 현무암을 이용하지 않았고, 건축기술면에서 상당히 공을 들여 제주도 내에서는 가장 웅장한 건물이 들어섰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지붕은 앞서 이야기한 용과 봉황문 막새로 처리하였음이 드러났다. 중창 이후 법화사 건물의 규모와 형태가 궁궐과 같이 위세가 등등했다고 보이는 양식의 기법은 원 황실의 원찰이라 할 수 있는 대호국인왕사(大護國仁王寺)의 그것과도 무관치 않았을 것이다.

이밖에도 법화사지에서는 양질이며, 갑번 처리와 같은 고난도 처리과정을 거친 고급 청자도 상당수 출토되었다. 이들 청자의 중심 연대는 모두 법화사 중창이 이루어지던 13세기이다.

법화사 중창시기의 역사적 배경과 아울러, 법화사지에서 원과의 관련성을 가진 유물의 출토, 원 나라 ‘양공’ 주조 미타삼존동불의 법화사 안치 등등과 같은 일은 법화사 중창이 애초 고려 왕실의 착안으로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추진과 마무리는 원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던 점과 관련을 가져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이다. 즉, 고려왕실이 국가의 평화와 왕권강화를 위해 원 황제 쿠빌라이의 호의를 끌어내고자 1269년(원종 10)부터 황제의 원찰과 같은 사찰의 조성을 위

해 법화사 중창을 계획·추진하였으나, 원종 폐립과 복위를 비롯한 잇따른 정세변동, 특히 제주에서 벌어진 삼별초의 대몽항쟁 전개 등으로 지지부진하였다는 것이다. 반면에 1273년(원종 14) 제주가 원의 직할령으로 편입된 이후에는 원이 자신의 제주 경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모하려는 의도에서 법화사 중창을 이어 받은 뒤,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아가 1279년(충렬왕 5) 마무리지었다고 하겠다.

법화사가 고려왕실과 원 황실이 같이 신봉하던 관음신앙에 기초한 사찰이었음과 동시에, 남송과 일본을 잇는 바닷길의 요충지인 제주 서남부의 해안지대로부터 가까운 곳에 자리잡았다는 지리적인 위치가 법화사 중창을 결정적으로 일으키게 했던 요인으로 보인다.

13~15세기 경 법화사지에는 제주도 내에서 가장 웅장한 건물이 들어섰고, 특히 그 건물의 지붕은 고려시대 때 왕실건축 건물 이외에는 사용이 금지되고, 더 나아가 몽골 궁전건축에서도 사용된 용과 봉황문 막새로 처리하였던 일, 또한 13세기 경 고급청자가 상당수 법화사에 유입되었다는 사실 등도 원이 법화사 중창을 주도하였으며, 이후에도 법화사가 계속 원과 밀착관계를 유지해 나아갔기 때문에 가능했지, 달리 다른 이유를 생각할 수 없는 편이다.

법화사는 조선시대 1408년(태종 8) 무렵만 하더라도, 제주도 내에서는 수정사와 더불어 두 곳의 비보사찰이었고, 수정사보다 150명의 노비를 더 많이 거느렸던 만큼, 가장 번창한 사찰이었다. 법화사가 고려의 비보사찰로 지정된 시점은 중창 이후일 것이다. 그 구체적 시기는 1294~1300년(충렬왕 20~26) 사이일 것으로 보인다.

제주에 원의 직할령이 된 1273년(원종 14)부터 1294년(충렬왕 20) 이전까지는 제주에 대한 관할권이 전적으로 원에 속했다. 이 기간 중에는 법화사가 고려의 관할권 밖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후 제주는, 두 차례 일본 정벌의 실패를 겪고 난 뒤에도 이에 집착했던 쿠빌라이가 1294년(충렬왕 20) 세상을 뜨자, 충렬왕의 반환 요구와 원의 수락으로 형식적이거나 고려에 환속되었다. 고려는 제주를 돌려받은 해부터 여러 조치를 취해 나아간다. 다음해 1295년(충렬왕 21)에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외관을 두는 제주목(濟州牧)을 설치하였다. 또한 1300년(충렬왕 26)에도 제주목을 중심에 두고 동서 방향으로 14개 군현을 신설하는 행정단위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어 같은 해 제주는 다시 원의 직할령으로 편입되었으나, 1294년(충렬왕 20) 이전과는 달리 부분적이거나 고려의 관할권도 미치는 상태를 유지해 나갔다.

고려가 제주를 돌려받은 1294~1300년(충렬왕 20~26) 사이 시행했던 조치는 제주에 대한 연고권과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와 결부해 이루어졌다. 바로 이 때 충렬왕은 제주 주민의 회유를 통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한편, 제주가 자신의 영역임을 상징화하는 차원에서 법화사를 비보사찰로 삼았고, 이후에도 법화사는 비보사찰의 위상을 계속 유지해 나갔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실을 미루어 보건대, 법화사지는 역사·고고학적 관점으로 보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고시되어야 할 충분한 근거를 지녔다고 하겠다.

우선 법화사지는 몽골 문화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문화유적이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원 간섭기가 고려시대 때 80여 년 지속되었으므로 몽골족 문화요소가 융합된 문화유산이 우리나라 전국 각 지역에 남아 있을 가능성은 다분히 높다. 그럼에도 몽골 문화의 영향이 깃든 문화유산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극히 몇 곳에서만 찾아볼 수 있을 뿐인데, 법화사지에서도 몽골과의 관련성이 깊은 유물과 유구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된 데는 원 간섭기가 우리 민족국가의 주체성과 자주성이 크게 훼손된 시기이고, 또한 화이론(華夷論)이 점차적으로 넓고 깊게 이어져 온 탓 등으로, 몽골문화의 영향을 의도적으로 부정하거나 불식하려는 행태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법화사지야말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원 간섭기와 몽골적 문화요소의 존재를 실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희귀한 문화유적이므로 그 문화재적 가치가 국가적으로도 매우 높다고 하겠다.

둘째, 중창 이후 제주 법화사는 호국불교를 내세운 고려와 원의 국가적 입장이 중첩된 국제적 사찰로서의 위상을 지녔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법화사는 원 황실의 원찰임과 동시에, 제주에 거주했던 상당수 몽골족의 종교적 안식처를 마련코자 중창이 추진·마무리되었고, 이어 고려가 제주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확대해 나가려는 의도에서 비보사찰로 삼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법화사가 고려왕실과 원 황실이 같이 신봉하던 관음신앙에 기초한 사찰이었음과 동시에, 남송과 일본을 잇는 바닷길의 요충지인 제주 서남부의 해안지대로부터 가까운 곳에 자리 잡았다는 지리적인 위치가 크게 작용했다고 보인다.

법화사지는 원 간섭기 때 고려와 원 양국의 국가적 입장이 중첩된 국제적 위상의 사찰이 들어섰던 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든 절터 유적지라 하겠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법화사지는 제주의 지정학적 위치가 제주에 어떠한 역사적 상황을 불러일으켰는가를 보여주는 역사경관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이는 오늘날에 와서 제주를 국제자유도시화하려는 국가적 입안과 미래와도 무관치 않으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셋째, 법화사지는 역사고고학적 자료로서 매우 귀중한 유물·유구가 확인된 문화유적지이다. 법화사지에서는 법화사 중창연대가 새겨진 명문기와가 출토되었다. 건물의 중창연대가 새겨진 명문기와가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되는 일은 여태까지의 예로 보아 드문 경우이다. 또한 법화사지 발굴조사에서는 법화사가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13~15세기 경 전성기를 누렸으며, 조선 초기까지는 제주도 내의 주요 사찰의 범주에 들었으나, 16세기 말에 와서는 쇠락하기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유물과 유구가 함께 확인되었다. 특히 중창 이후 법화사 건물의 규모와 형태가 제주도 내에서는 가장 웅장했을 뿐만 아니라 궁궐과 같이 위세가 등등했다고 보이는 양식의 기법이였음도 밝혀냈다. 조선시대 들어와 문헌에 드러나는 법화사의 시기별 성쇠는 법화사지 발굴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고 하겠다.

법화사지는 건물 중창연대 명시의 명문기와 출토와 더불어 출토 유물과 유구의 절대연대 파악이 가능한 한편, 발굴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와 사서에 드러나는 사실이 서로 부합되고 있다. 때문에 법화사지는 전국 어느 발굴현장과 비교해도 발굴성과가 뛰어나고, 또한 역사학과 고고학 연구가 서로 보완적 관계임을 아주 잘 드러냈음이 돋보이는 문화유적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 이유 때문에 법화사지는 여태처럼 제주도기념물 제13호에 머물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보존·전승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앞으로 법화사의 가람배치 및 건물군의 유형과 배치 그리고 이들의 양식 규명은 기존의 법화사지 발굴조사 자료에 대한 다각적 검토와 아울러, 더욱 발굴범위를 넓혀야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원의 불교와 가람배치 및 사찰 건물군의 양식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결들여져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 민족문화 연구에 거의 공백으로 남아 있는 몽골적 문화요소를 찾아내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법화사지의 국가지정문화재화는 타당할 뿐만 아니라 긴요한 일이라 하겠다.

#### 영천관지(靈泉館址)

지역의 정체성은 지역사회를 둘러싼 역사와 문화의 복원·계승·창조의 밑바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주민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앞으로써 얻게 되는 지역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과거

의 이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과 미래에 다가올 삶의 계획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민의 지역 정체성 인식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생겨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손쉽고 생생하게 얻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은 문화유적에 얽힌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여 밝히고, 이를 주민이 문화유적과 접하는 순간 이해하도록 하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서귀포시 지역에도 문화유적이 상당수 존재한다. 통상 이야기되고 있는 문화재 개념으로 보자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보호되고 있는 유형의 지정문화재는 20개소에 달한다. 비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는 286개소 총 306개소가 있다. 여기에는 서귀포시 지역이 지닌 역사적·문화적 내용이 담겨져 있고, 서귀포시 주민은 이들 문화유적을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정체성을 인식하게 된다. 때문에 문화유적이 전해주는 역사적·문화적 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밝혀낸 다음,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과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는 서귀포시 주민으로 하여금 현재와 미래의 삶을 자각하는 데 기초가 되는 지역의 정체성을 생활 속에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하는 한편, 외래객에게는 서귀포시의 역사·문화·생태를 소개·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의 마련과도 상통한다고 본다.

현재 서귀포시 지역의 문화유적 가운데 영천관지와 그 주변 지역은 서귀포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역사적 사실이 깃들어 있다.

영천관지와 그 주변 지역은 한라산 정상에서 발원한 효돈천을 끼고 있는 가운데 경관의 수려함과 전통적 산업활동의 편린 및 생태의 독특성 등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이 곳의 생태와 경관 조성은 한라산의 존재와도 관련을 맺었다고 하겠다.

영천관지는 역사적·문화적 내용에 대한 해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다음, 지역 주민과 외래객이 서귀포시 일대와 한라산과 잇닿은 지역의 역사·문화·생태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과 조성 및 문화자원화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곳으로 보인다.

#### 영천관 건립의 배경과 그 주변 경관

영천관은 서귀포시 관할 지역, 또한 한라산 정상으로부터 발원한 효돈천 지역 일대에 건립되어 있었던 조선시대 관아(官衙)이다. 현재는 터만 남아 있으나, 영천관의 존재와 주변 환경은 서귀포시와 효돈천 지역이 지녔던 많은 역사적 사연과 아울러 경승지로서 이름이 높은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다.

영천관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제1횡단도로의 남쪽 끝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서귀포산업과학고(구 서귀농고)와 돈내코 입구의 맞은 편에 설치된 상효교(上孝橋) 바로 서쪽으로부터 남쪽으로 난 길을 따라 500m 정도 내려간 곳에 위치한 영천(靈泉)오름 주변 효돈천의 서쪽 언덕에 자리잡았다. 이 곳 바로 건너 동쪽 언덕은 영천사(靈泉寺)가 있었던 자리이다. 이와 달리, 영천관과 영천사의 자리가 각각 동쪽과 서쪽이었다는 반대 기록도 전해지고 있다.

오늘날의 서귀포시 관할 지역 내에 영천관이 들어서게 된 연유는 조선시대 들어와 제주도 지역이 삼읍체제(三邑體制)로 분화됨과 아울러, 표고 200~600m 사이의 중산간 지대에 10소장(所場)으로 나누어진 국립목장이 설치되었던 사실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제주도 지역에는 몽골족이 들어와 고려시대 1276년(충렬왕 2) 탐라 목마장(牧馬場)을 설치한 적이 있었다. 탐라 목마장은 규모 확대가 이루어짐에 따라 1300년(충렬왕 26) 무렵에 이르러 동·서아막(東西阿幕)으로 일컬어지는 두 개의 목장으로 분화하는 한편, 탐라목장은 원(元) 제국의 14개 국립목장 가운데 하나로 손꼽을 만큼 규모가 커졌다. 탐라목장이 왕성하게 운영되

던 14세기 이후 제주도 지역은 목축업이 크게 발달했고, 더불어 인구도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행정단위도 개편되기에 이르렀다. 즉, 종전 제주도 지역에는 제주목(濟州牧)과 귀덕현(歸德縣)만 존재했는데, 1300년(충렬왕 26)에 이르러 동쪽으로는 신촌·함덕·김녕·토산·호아(남원읍 신·하례리) 등의 현(縣), 서쪽으로는 귀일·고내·애월·곽지·명월·차귀·산방(안덕면 화순리)·예래·홍로(서귀포시 서·동홍동) 등의 현이 설치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제주도 지역의 행정단위는 외관(外官)이 파견되어 주현(主縣)의 위상을 갖게 되는 제주목과 아울러, 외관이 파견되지 않은 채 주현 제주목의 관할을 받는 속현(屬縣) 15개 현 등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고려시대 1300년(충렬왕 26) 이후 제주도 지역에는 외관이 파견된 주현(主縣)으로서 중앙정부와 직접 관계를 맺어 행정업무가 처리되는 제주목을 중심에 두고, 동·서쪽으로는 신촌·함덕·귀일·고내·애월 등의 15개 현이 속현(屬縣)의 위상을 지닌 군현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즉, 이들 현은 외관이 파견되지 않은 채 제주목의 관할을 받고, 제주목을 통해 중앙정부와 연결된 군현이었던 것이다. 이 때는 제주목의 외관이 15개에 달하는 현을 관할하는 한편, 멀리 떨어지거나 가까운 지역을 불문하고 15개 현의 주민은 제주목에 와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조선왕조에 들어오자, 정부는 초창기부터 고려시대 군현제를 대대적으로 개편·정비하는 조치를 취해 나아갔다. 특히 외관이 파견되어 주현(主縣)의 위상을 갖는 군현만이 중앙정부와 직접 연결되어 행정업무가 처리되고, 외관이 파견되지 않아 속현(屬縣)의 위상을 갖는 군현은 자신과 주·속현관계(主屬縣關係)를 맺은 주현을 통해 중앙정부와의 행정업무가 처리되는 방식을 없애고자 하였다. 즉, 군현제 개편은 고려시대 군현제의 특색 중 하나로 손꼽히는 주·속현관계의 설정을 해체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때문에 조선정부는 외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을 없애고, 전국의 전 군현에 외관을 두는 정책을 계속 펼쳤다. 이와 더불어 인구와 경제력 등의 규모가 작은 영세군현은 병합하거나 철폐하여 군현의 직촌(直村)·면(面)·이(里) 등의 하부단위로 편제하는 정책도 병행해 나갔다.

역시 제주도 지역에도 조선왕조에 들어와 군현제 정비의 조치가 취해졌다.

제주도 지역은 조선시대 들어와서도 제주목이 동·서로 나누어진 15개 현을 속현(屬縣)으로 거느리는 체제가 유지됨에 따라 그 폐단이 점차적으로 커져 나아갔다. 즉, 인구가 많아지고 행정업무가 늘어나게 되자 한라산 남쪽의 산남 주민들이 한라산 북쪽에 자리잡아 거리가 멀리 떨어진 산북의 제주목 관아로 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커져 나갔고, 제주목 관아에서 멀리 떨어진 산남 지역에는 행정력이 강하게 미칠 수 없었던 탓으로 토호세력(土豪勢力)의 횡포가 자행되는 경우가 잦아지게 되었던 것이다. 때문에 1416년(태종 16) 제주도안무사(濟州都按撫使) 오식(吳湜)과 전판관(前判官) 장합(張合) 등의 건의에 따라 동쪽의 신촌현·함덕현·김녕현 등의 지역과 아울러 서쪽의 귀일현·고내현·애월현·곽지현·귀덕현·명월현 등의 지역은 제주목에 속하고, 동쪽의 현감(縣監)은 정의현(旌義縣)을 본읍(本邑)으로 삼은 다음 토산현·호아현·홍로현 등의 지역을 소속시키며, 서쪽의 현감은 대정현(大靜縣)을 본읍으로 삼은 뒤 예래현·차귀현·산방현 등의 지역을 소속시키는 군현제 개편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제주도 지역은 제주목·정의현·대정현 등의 3개 군현이 존재하는 삼읍체제(三邑體制)로 편제되었고, 고려시대 때 존재했던 15개 현(縣)은 각 삼읍의 하부단위에 해당하는 직촌(直村) 등으로 개편되기에 이르렀다.

1416년(태종 16) 삼읍체제가 출발한 이후, 오늘날의 서귀포시 지역 중 서쪽 편 끝이고, 고려시대 때 예래현(猓來縣)으로 편제된 적도 있었던 예래동(猓來洞) 지역은 제주도의 서쪽에 위치한 대정현의 관할을 받는 지역으로서 본현 경계의 가장 동쪽 끝에 자리잡았다. 반면 서귀포 지역 중 동쪽 편에 위치하고, 고려시대 때 홍로현(烘爐縣)으로 불렸던 서·동홍동은 제주도의

동쪽에 위치한 정의현의 관할을 받는 지역으로서 본현 경계의 가장 서쪽 끝에 자리잡았다. 서귀포시 관할은 제주도 지역의 행정적 편제가 제주목을 중심에 두고, 동·서 방향으로 구획한 대정현과 정의현 등의 삼읍으로 이루어졌던 조선시대에는 각 군현 단위의 읍치(邑治)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이었다. 또한 삼읍 간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역원(驛院)이 없었다. 때문에 제주의 지방관과 중앙에서 내려온 사신 등이 삼읍을 왕래하거나 혹은 돌아다니려 할 때 머물 곳이 필요하였다.

제주목 관할 지역의 경우 행객(行客)의 숙소로 제공·이용되었던 곳은 월계사(月溪寺)와 수정사(水精寺), 조천관(朝天館)과 김녕방호소(金寧防護所) 등이었다. 앞의 두 곳은 각각 제주목의 서쪽인 한림읍 옹포리 부근과 제주시 외도동 외도천 부근에 자리잡은 사찰이었다. 후자 조천관과 김녕방호소는 제주목의 동쪽에 위치하며 관아 시설이 마련된 곳이었다. 한편 대정현의 경우에는 서귀포시 중문동 지역에 자리잡았던 사찰인 법화사(法華寺)가 행객의 숙소로 제공·이용되었다. 즉, 이들 4곳은 제주목으로부터 대정현과 정의현, 혹은 대정현이나 정의현으로부터 제주목으로 왕래하는 행객의 숙박처로 활용되는 기능도 지녔던 것이다.

그런데 대정현과 정의현의 읍치는 서로 거리가 멀리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양 군현의 읍치를 오고가는 행객이 머물 만한 숙식처가 없었다. 이 때문에 1466년(세조 12) 제주절제사(濟州節制使) 이유의(李由義)가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의 서쪽 경계가 되는 하천으로 서귀포시의 효돈동과 남제주군 남원읍 하례리(下禮里) 사이를 흐르는 효돈천 하류의 서쪽 언덕 편에 영천관(靈泉館)을 건립하고, 이 곳을 지나는 행객이 머물도록 하였다. 여기에는 양 군현 읍치 간의 거리를 따져볼 때 서귀포시 지역이 중간지대에 해당한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제주도는 고려 전기부터 국가수요의 상당량을 충당할 정도의 말을 사육·생산·반출하는 곳이었다. 조선왕조에 들어와서는 10개 소장(所場)으로 나누어진 국립목장이 세워지게 되었다. 이들 10개 소장 가운데 규모가 가장 컸던 9소장이 표선면·남원읍·서귀포시 지역 등에 걸친 중산간 지대에 자리잡고 있었다. 즉, 9소장의 경계가 동쪽은 표선면 가시리 따라비오름과 대록산, 서쪽은 서귀포시 서호동 고근산과 시오름이었던 것이다. 또한 9소장의 중심 마을은 남원읍 하례리 학림동이었다. 이는 둔마장(屯馬場)과 아울러 말이 비를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피우가(避雨家)와 말을 점검하는 점마소(點馬所)가 학림동에 있었던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영천관이 들어섰던 곳은 조선시대 제주도 최대 규모의 국립목장인 9소장의 중심 마을이 형성된 학림동과도 효돈천을 사이에 두고 접한 지역이었다. 또한 영천관 아래 효돈천의 양쪽 절벽 사이로 기연(妓淵)이라 일컫는 곳이 있다. 이 곳은 절제사(節制使)가 말을 점검하러 왔을 때 양쪽 절벽을 잇는 나무를 걸쳐 놓고, 기녀로 하여금 그 위에서 춤을 추게 하여 흥을 돋우는 연회를 베풀다가 기녀가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기연(妓淵)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영천관은 9소장 관할과 관련하여 학림동으로 왔었던 제주목사와 정의현감 등의 제주 지방관과 아울러 중앙 사신 등에게 숙소를 제공할 필요성도 있었기 때문에 세워졌고, 건립 이후에는 접빈관(接賓館)의 기능도 지녔던 것이다.

영천관 건립은 서귀포시 지역에 관아가 세워졌음이 기록을 통해 최초로 드러나는 사실이기도 하다. 즉, 영천관은 가장 먼저 세워졌던 서귀포시 지역의 관아로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하천 건너 영천관 맞은편 언덕에는 영천사(靈泉寺)가 있었다. 영천관과 영천사 사이의 하천 가운데 드러난 큰돌에 관나암(觀灘巖)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다. 이 글자는 옛날 영천사 승려가 새긴 것이라 한다.

영천관이 생겨나자, 서귀포시 지역의 존재는 더욱 부각되었다.

1525년(중종 20) 제주목사 김흠조(金欽祖)는 성산읍 고성리에 자리잡은 정의현 읍성의 지리적

위치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한 뒤, 그 이설(移設)을 조정에 건의하였다. 이때 정의현 읍성을 옮길 후보지로서 영천관이 자리잡은 지역이 거론되었다. 이는 영천관 지역이 깊고 험악한 계곡을 가진 효돈천과 높다란 오름으로 둘러싸인 데다, 서귀방호소(西歸防護所)와도 가까운 곳이라는 등 방어상 요충지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영천관이 있기 때문에 정의현 읍성을 옮겨오더라도, 관사(館舍)를 다시 지을 번거로움이 없다는 점이 거론되기도 하였다.

이 건의를 접한 조정에서는 영천관 지역이 기존의 정의현 읍성 및 제주목과의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진 점이 논의되었으며, 정의현 읍성의 이설은 차후로 미루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1422년(세종 4) 고성리에 자리잡았던 정의현 읍성의 이설지로서 성읍리 지역이 정해지기에 이르렀다. 다음해 정의현의 읍성이 성읍리에 쌓여진 뒤, 500여 년 동안 성읍리 지역이 정의현 읍치가 들어선 곳이 되었다.

영천관이 자리잡았던 지역은 제주도 내 어느 곳보다도 자연경관이 뛰어나다.

영천관 주변과 접한 하천이 돈내코 계곡으로 널리 알려진 효돈천이다. 효돈천은 한라산 정상부의 서남서벽에서 발원한 뒤, 숲한 지류를 모아 흘러내려 온 또 다른 줄기와 영천악 남쪽 기슭에서 합류한 뒤 침오름 동쪽 기슭을 거쳐 예촌망이 펼쳐진 바다로 흘러간다. 영천관지는 한라산 산간지대와 잇닿는 하천의 하류 지역임과 동시에, 한라산 남쪽의 산남(山南) 지역에서 경관이 대표적으로 뛰어난 곳 중의 하나인 돈내코 계곡과 ‘쇠소깍’지역과 연결되는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쇠소깍’은 그 경관이 제주시 용담동에 위치한 ‘용연’에 견줄 만큼, 수심이 깊고, 주변 용암절벽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한편, 울창한 소나무숲이 도처에 널려 있는 등 웅장함을 자아낸다. 여기는 오래 전부터 효돈천 지역 일대에 살던 주민들이 포구로 이용하였던 흔적도 남아 있다.

하천수가 풍부한 효돈천에는 ‘긴소’, ‘웃소’, ‘남내소’ 등으로 불리는 크고 작은 여러 소(沼)도 분포한다. 이 곳은 20m 이상의 깎아지른 듯한 직벽과 특유의 V계곡, 거대한 바위 등과 아울러 때로는 폭포와도 조화를 이룬 경승지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경관이 뛰어난 절경지가 도처에 산재해 있다.

또한 주변에는 ‘솔잎란’, ‘한란’ 등의 희귀·멸종위기·보호식물이 자라는 한편, 난대상록활엽수림 등의 울창한 식생(植生)도 이루고 있다.

이 밖에 효돈천은 과거 지역 주민이 누렸던 생활상을 찾아볼 수 있는 곳도 도처에 산재되어 있다.

전통적인 종이 한지(韓紙)는 닥나무껍질을 원료로 삼아 여러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상호동과 하효동의 노인들은 효돈천 주변에서 한지가 만들어지던 기억을 갖고 있다. 하효동의 경우는 돈내코 하류인 하효다리 남쪽에서 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실제로 남대소 하류 지점은 ‘한지내꿈’이라는 지명을 갖고 있다. 효돈천 지역 일대에 살던 주민 중에 농사를 짓지 않거나, 농사를 통해 생계가 여의치 않았던 사람들은 효돈천 주변에 닥나무를 심고, 효돈천 자연환경을 이용해 한지를 만들어 생활을 영위해 나아갔다. 또한 효돈천 주변의 일반 가정에서도 한지를 만들어 자급자족했다.

한지가 효돈천 주변에서 만들어졌던 것은 물이 사시사철 흘렀던 것이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1920년대만 하더라도, 하효리를 방문했던 인사가 “연못의 상류 근처에서는 옛날식대로 마을 사람들이 종이를 뜨고 있다. 바위가 패인 곳은 절구이다. 작은 연못은 세척장, 바위의 표면은 건조장이다.”라는 목격담의 기록을 남기고 있다.

또한 효돈천은 채석장으로 이름을 떨쳤던 곳이다. 효돈천 바닥과 주변 암석은 치밀하고 견고하다. 이 때문에 하례1리 등의 마을 주민은 효돈천에서 채석한 석재를 갈고 다듬어 묘비와 기념비 및 공적비 등의 각종 비는 물론이고, 돼지에게 먹이를 넣어주는 함지박 모양의 ‘돌도고리’ 등의 생활용구를 본업이나 부업으로 만들었다. 이 곳의 비석은 산남 대부분 지역에 공급되었다. 특히 하례1리 걸쇠오름 주변 효돈천의 ‘소안밭’이라 불리는 곳은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채석장으로 명성을 떨쳤다.

효돈천의 석재업(石材業)은 한일합방 이전부터 성행하였으나, 1970년대 들어와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추세 속에 채석이 금지됨에 따라 역사 속의 기억으로 사라져버렸다.

#### 영천관터의 문화재적 가치

오늘날의 서귀포시는 제주시와 더불어 제주도 지역의 두 개 중심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제1 횡단도로의 길이 생겨나고, 제주도 지역의 행정적 편제가 남북 방향으로 구분·운영된 사실이 밑바탕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조선시대에는 제주도 지역의 행정적 편제가 제주목·대정현·정의현 등의 세 읍으로 나뉘었듯이, 동서 방향으로 구분·운영되었다. 때문에 오늘날의 서귀포시 관할 지역은 행정의 중심이 되는 각 군현의 읍치(邑治)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 되고 말았고, 1466년(세조 12) 영천관이 건립되기에 이르렀다. 즉, 영천관은 거리가 멀리 떨어진 대정현과 정의현의 읍치를 오고가는 관리 등의 행객(行客)에게 숙소를 제공해 줄 필요성에서 양 군현의 중간지대에 해당하는 서귀포시 효돈천 주변 언덕에 건립되었던 것이다.

또한 하천 건너 영천관 맞은편 언덕에는 영천사(靈泉寺)가 있었고, 이들 양 건물 사이의 하천 가운데 드러난 큰 돌에는 옛날 영천사 승려가 새긴 것으로 보이는 관나암(觀灘巖)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다.

한편 조선시대 제주도 10소장의 국립목장 중 규모가 제일 컸던 9소장의 중심 마을이 효돈천을 사이에 두고 영천관과 접한 학림동이었다. 여기에 영천관이 들어선 것은 9소장의 관할과 관련하여 학림동으로 왔었던 제주목사와 정의현감 등의 제주 지방관과 아울러 중앙 사신들에게 숙소를 제공할 필요성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영천관이 생겨나자 서귀포시 관할 지역의 존재는 더욱 부각되었다. 그래서 한때는 정의현 읍성을 옮길 후보지로서 영천관 지역이 논의된 적도 있었다.

영천관은 숙소 제공뿐만 아니라, 9소장을 관할하기 위해 왔었던 관리를 위해 야외에서 연회를 베푸는 등 접빈관(接賓館)의 기능도 지니고 있었다. 이는 영천관의 주변 경관이 뛰어났기 때문이었다. 오늘날에도 영천관 주변과 접한 하천이 돈내코 계곡으로 널리 알려지고, 국민휴양관광지로 정비될 만큼 경관이 뛰어난 명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조선시대부터 줄곧 이어져 내려온 사실이라 하겠다. 이와 더불어 영천관 주변 지역은 희귀·멸종위기·보호식물이 자라고, 난대상록활엽수림 등의 울창한 식생(植生)도 이루어져 있는 한편, 한지(韓紙) 제조와 석재업(石材業) 등과 같은 전통적 산업활동에 적합한 생태를 갖춘 곳이기도 하다.

서귀포시 지역 일대의 경우에는 조선시대까지 관아 건물이 드물었다. 그 중에서도 영천관은 가장 먼저 세워졌던 것으로 확인되는 관아이다. 게다가 영천관의 건립과 그 터는 조선시대 들어와 이루어진 제주도 지역의 행정적 편제와 관련하여 오늘날의 서귀포시 관할 지역이 지녔던 의미와 아울러 이 지역을 두고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를 여실히 보여 주는 주요한 매개체이다. 영천관 주변 지역의 경관이 뛰어난과 수려함도 조선시대부터 이미 사람들이 알고 즐겼고, 이것이 오늘날에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하겠다.

영천관 주변 지역의 경관과 자연 및 그 인문적 환경의 조성은 한라산 정상부로부터 발원한 효돈천을 끼고서 자리잡은 점이 크게 작용했다. 즉, 영천관 주변 지역의 여건은 한라산의 존재

에 좌우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와 관련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귀포시 지역 일대의 역사는 영천관 건립의 사정과 그것의 지정학적 위치가 갖는 의미 등에 압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영천관 주변 지역은 그 이름이 돈내코 계곡으로 더 널리 알려지고 있듯이, 앞으로 계속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국민관광휴양지이다. 효돈천 지역 일대 주민이 누려왔던 전통산업의 편린도 도처에서 엿볼 수 있다. 또한 한라산과 관련을 갖는 자연·생태적 환경과 경관의 수려함도 찾아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때문에 영천관 및 그 주변 지역과 관련한 역사·문화·생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더욱 더 알리는 한편,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과 조성 및 문화자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건물은 사라져버렸지만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영천관터의 문화재 지정·고시의 조처라 하겠다. 문화재 지정화는 영천관의 의미와 그 내용 및 주변 환경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계기를 만들고, 영천관터와 주변 지역의 정비로 나아가는 길의 첫 발걸음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는 영천관터와 한라산 주변 지역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문화·생태가 살아 숨쉬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역사·문화·생태의 자원화를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기도 하다.

### 제3장 한라산과 그 주변 동굴유적의 분포와 성격

#### 1 들어가는 글

동굴유적은 자연적인 동굴을 주거(住居)나 묘, 그 밖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유적을 말한다. 동굴은 전세계적으로 구석기시대의 대표적인 주거유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동굴이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방어장소나 자연환경의 해악에 따른 피신장소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확인되는 대부분의 동굴유적은 석회암이 발달된 함경도, 평안도 및 충청도지방의 석회암동굴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들 유적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상원 검은모루동굴을 시작으로 하여 1980년대 후반의 구남굴조사까지 많은 성과를 이루어냄과 동시에 한반도 구석기시대의 생활상을 복원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적은 구석기시대 유적으로 그 이후의 유적은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또한 이들에 대한 연구가 유적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성격과 편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생활공간으로서의 유적에 대한 연구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주도는 육지부와 달리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지역으로 다수의 용암동굴과 해식 및 하식동굴이 섬 전역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이들 동굴을 이용한 유적의 수도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 또한 유적이 형성된 시기에 있어서도 신석기시대를 시작으로 현대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주도의 동굴유적에 대한 연구는 이들 유적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보다는 대부분 지표조사나 간략한 시굴조사에 그쳐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선적으로 동굴유적의 분포를 살펴보고 유적으로 이용되었던 시기와 그 변화상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 2 동굴유적의 분포와 검토

육지부의 동굴은 석회암지대와 단구가 형성된 곳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확인되는 반면, 제주도에서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산간지대, 중산간지대, 해안저지대, 해안 및 하안단구 등의 전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들을 이용한 유적에 있어서도 육지부에서 확인되는 동굴 유적의 수에 비하여 많음이 확인된다. 또한 유적의 점유시기에 있어서도 신석기시대는 물론 현대까지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에서 확인되는 천연동굴의 수와 분포, 유적으로 이용된 동굴의 분포와 그 지형적 위치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01년 제주도동굴연구소에서 발간한 『동굴연구』창간호를 보면, 제주시 7개소, 서귀포시 17개소, 북제주군 45개소, 남제주군 29개소의 천연동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대부분의 천연동굴은 화산에 의해 형성된 용암동굴이며 해식·하식에 의해 형성된 동굴은 용암동굴에 비하여 극히 적은 수로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를 한라산을 기준으로 4개의 권역(한라산을 기준하여 넓은 용암대지가 형성되고 완만한 경사도를 갖는 동사면과 서사면, 급한 경사도를 보이면서 하천이 발달된 남사면과 북사면)으로 구분하면, 동사면 30개소, 서사면 21개소, 남사면 28개소, 북사면 19개소로 요약할 수 있겠다. 현재까지 이들 천연동굴을 유적으로 이용한 곳은 총 45개소이며 이를 권역별로 구분하면, 동사면 2개소, 서사면 4개소, 남사면 30개소, 북사면 9개소가 확인되었다.

### 서사면 동굴유적

서사면은 한라산을 정점으로 북제주군 한림읍에서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까지를 포함하는 지역이다. 대부분의 유적은 해안저지대에 위치한 동굴에 형성되어 있으며 일부는 조간대의 단구에 형성된 소규모의 용암동굴에서도 확인된다. 유적으로는 고산동굴유적, 월명한드르굴유적이 있다.

### 고산동굴유적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1리 788번지 내에 자리하고 있다. 고산1리를 지나는 일주도로변에서 산간쪽으로 약 2.5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입구는 천장부의 함몰에 의해서 형성되었으며 낙반석과 주변 경작지의 잡석에 의해서 상당 부분 막혀 있는 상태이다. 트인 방향은 남서향이며 길이 6.5m, 높이 1.2m이다. 입구에서 동굴 내부로는 낙반석과 토사의 유입에 의해 경사를 이루고 있고, 동굴 내부는 터널형으로 S자 모양을 하고 있다.

입구 안쪽의 동편으로는 길이 6m 정도의 가지굴이 있고, 가지굴 북편으로 다시 경사를 이루어 동굴 내부로 내려가는 또 하나의 입구가 형성되어 있다. 입구에서 약 20m 지점까지 낙반석이 넓게 존재하고 있고, 다시 약간의 경사를 이루어 동굴 안쪽으로 유물이 포함되어 있는 퇴적층이 이어지고 있다. 유적의 범위는 입구에서 안쪽으로 170m 정도이고 유물은 약 30~136m 정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동굴 입구 부근의 퇴적층은 총 5개의 층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층에서 하층으로 니질점토층, 흑갈색점토층, 암갈색점토층, 소토층, 흑갈색점토층이 확인된다. 유물은 회청색경질토기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일부 동물뼈가 소량 확인되었다.

유물이 집중적으로 확인되는 132m 지점에서는 총 5개의 층위가 확인되었다. 표토에는 최근에 유입된 토사층인 니질점토층이 퇴적되고 있으며 그 아래로 미세목탄이 다량 포함된 흑갈색점

토층, 소량의 토기편이 포함된 황갈색점토층, 매우 단단하게 퇴적된 사질토층, 가장 두껍게 퇴적이 이루어진 암갈색점토층이 퇴적되어 있다.

유물은 대부분 신석기시대 토기편이며 일부 동물뼈가 확인된다. 신석기시대 토기편은 용기문토기, 침선문토기, 압인어골토기, 조흔문토기 등이며 현무암 알갱이를 보강재로 사용하였다.

#### 월령리 '한드르' 동굴유적

한림읍 월령리 산 13번지에 위치한다. 해안일주도로변의 금능리에서 중산간마을인 조수리로 이어지는 비포장도로를 따라 1.5km 정도 올라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입구는 천장에서 무너져 내린 대형 낙반석에 의해 상당 부분이 가려져 있고, 낙반석으로 이루어진 경사면이 동굴 내부로 이어지고 있다. 트인 방향은 서향을 하고 있으며 길이 8m, 높이는 3m이다.

유적이 형성된 곳은 입구 부분과 채광이 이루어지는 24m 안쪽까지로 천장이 급하게 낮아지고 낙반석무지가 자리하는 부분까지 대략 50㎡ 정도의 규모로 형성되어 있다. 또한 동굴 내부에 퇴적이 이루어진 부분도 유적이 형성된 부분과 일치한다. 유적의 퇴적상황은 상층에서 하층으로 모래층, 흑색점토층, 암갈색점토층의 총 3개의 층으로 퇴적되어 있다.

① 모래층 : 바람에 의해서 운반된 모래층으로 10~15cm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다.

② 흑색점토층 : 점토와 재가 혼재된 층으로 점성이 아주 약하고 회갈색의 점토가 전반적으로 얇게 존재한다. 일부 점토에는 불먹은 흔적이 확인된다. 조흔문토기와 방추차 1점이 확인되었다. 두께는 6cm정도이다.

③ 암갈색점토층 : 암갈색조의 점토층으로 암반과 맞닿아 있다. 암반 사이에서 세석기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잔날떼기 수법의 화살촉과 석기류, 대체로 직립구연을 하는 삼각 또는 원형의 점렬문이 압날된 점렬문계토기, 조흔문토기, 방추차 등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표토 및 상층에서는 구연이 크게 외반되는 적갈색경질토기와 심발형의 고내리식토기가 확인되었다. 그 밖에 다량의 패각과 동물뼈가 토기와 혼재되어 확인되었다.

#### 동사면 동굴유적

동사면은 한라산을 정점으로 북제주군 구좌읍에서 남제주군 표선면까지의 지역이다. 다수의 동굴이 분포하는 지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장굴과 김녕사굴, 수산굴, 용천굴 등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된 동굴의 수에 비하여 유적으로 이용된 곳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적은 편으로 추후 유적의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신천 한뫼굴유적과 온평리동굴유적이 있다.

#### 신천 한뫼굴유적

성산읍 신천리 신천마장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해안에서 약 1km 정도 거리를 두고 있으며 해발 20m의 평탄대지상의 동굴이다. 동굴은 바다로 연결되어 있으며 장타원형의 넓은 함몰부와 함몰부 남동편으로 길이 450cm, 높이 165cm의 반원형의 입구를 가지고 있다. 입구는 남서향을 하고 있으며 유적은 동굴의 함몰부와 내부 약 25m까지의 범위에 형성되어 있다.

함몰부에는 6개의 퇴적층이 확인되었다. 상층에서 하층으로 표토층 - 흑갈색부식토층(소량의

사질과 미세목탄이 포함된층으로 각목토기와 석기가 확인됨) - 흑갈색점토층(점성이 강한 점토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주 얇게 퇴적되어 있고 침선문계의 신석기시대 토기편과 석기편이 확인됨) - 황갈색점토층(소량의 미세목탄과 토기편, 석기박편이 확인되며 약간의 수혈선이 확인됨) - 생토층 - 낙반석층이 퇴적되어 있다.

동굴내부에는 패총이 형성되어 있으며 총 8개의 층이 확인되었다.

표토층 - 명갈색점토층(자잘한 패각편과 소량의 광지리식토기편·고내리식토기편이 포함된 토층으로 일부 약간의 수혈선이 확인됨) - 흑색혼토판각층(자잘한 미세패각이 포함됨) - 흑갈색점토층(소량의 패각편을 포함하는 층으로 북에서 남으로 경사를 이루고 일부 대형 전복이 확인됨) - 혼토판각 I 층(다수의 배말고동과 함께 대형 전복과 소라가 포함된 토층으로 각목토기, 직립구연토기편과 일부 공이석기가 확인됨) - 혼토판각 II 층(혼토판각 I 층과 유사한 성격을 보이고 있으며 다량의 패류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 각목토기, 마연토기와 함께 패각으로 만든 유물 등과 전복껍질이 공반되어 확인됨) - 순패각층(보말고동과 전복, 소라 등으로 구성된 순수패각층으로 소량의 석기편이 확인됨) - 낙반석층(북에서 남으로 경사를 이루며 낙반석 사이에서 소량의 신석기시대 토기편이 확인됨)이 순차적으로 퇴적되어 있다.

이 유적인 경우 신석기시대에서 탐라시대까지 이용되었으며 시간의 흐름과 함께 그 기능 또한 변화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적이다. 신석기시대에는 함몰부에 약간의 수혈을 축조하여 함몰부와 내부를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이용하였으며, 청동기시대와 탐라시대에는 동굴내부에 대규모 패총이 형성된 것으로 미루어 생활공간이 아닌 해산물 정리장소, 일시 피신처 등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남사면 동굴유적

남사면은 한라산을 정점으로 남제주군 남원읍에서 안덕면까지의 지역으로 해안에서 내륙으로 급한 경사도를 보이며, 하천과 해안단구가 제주도 내에서 가장 발달된 지역이다. 유적은 색달동, 상예동, 하예동의 하천변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소규모의 해식·하식동굴에 형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색달동 들령계유적, 대포동 오등이계유적, 상예동 바위그늘유적군과 신례리 바위그늘유적, 창고천 바위그늘유적군을 들 수 있다.

#### 색달동 들령계유적(다람쥐굴)

서귀포시 색달동 해안단구에 위치하고 있는 해식동굴이다. 예래동과 색달동의 경계를 이루는 하천 하류에서 동쪽해안단구를 따라 약 300m 지점에 위치한다. 동굴은 현 해수면에서 약 25m 정도 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구는 남향을 하고 있다. 유적이 형성된 범위는 입구에서 약 18m 정도까지로 입구 부분에 형성된 넓은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굴 내부는 전체적으로 흑갈색점토와 천석으로 약 0.3~1m 정도가 복토된 것으로 보이며 유물은 복토층 아래에서 확인되고 있다. 입구 부근의 북벽 가장자리에 소규모의 패총이 형성되어 있다. 유물은 적갈색경질토기 외반구연호와 심발형의 고내리식토기편이 확인되며, 그 외 다량의 패류와 소량의 동물뼈가 확인되었다.

#### 대포동 오등이계

서귀포시 대포동 1506-1번지에 위치한다. 완만한 구릉지대에 자리한 이 동굴은 3개의 입구가 만들어져 있다. 입구는 먼저 굴의 중앙부에 수직으로 뚫린 입구와 남쪽과 서쪽으로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한 크기의 입구가 있다. 수직으로 뚫린 입구는 그 모양이 장타원형이고 지름이 1.62m이며 바닥까지의 높이는 1.57m이다. 동편 입구의 트인 모양은 장방형이며 직경 1.42~1.62m에 이른다. 서쪽 입구는 겨우 한 사람이 들어갈 정도이며 굴 입구 직경은 1.23m, 높이 45cm 내외이다. 굴의 중앙 홀은 전체적으로 서고동저의 레벨을 보이며 바닥은 계속적으로 낙반현상이 일어나 자잘한 낙반석들이 깔려 있는 상태이다. 굴의 평면 형태는 장타원형이고 굴의 크기는 동쪽 입구에서 안쪽까지 5.42m(장축), 남북 폭(단축) 3.4m이다.

굴의 퇴적층위는 45cm 두께의 암흑색 부식토층이 퇴적되어 있었다. 이 부식토층에서 적갈색경질토기 1점과 석창 1점이 출토되었다. 아직 굴 내부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행하지 않아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 부식토층은 서고동저의 굴 바닥 생토레벨에 의해 동편으로 퇴적층이 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전 밀감나무 식수시 동굴 내부에서 흙을 채굴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석창 1점이 확인되었다고 보고되어 있다. 조사시 동편 입구에서 깊이 34cm, 직경 56cm의 후대 교란 구덩이를 확인하였는데, 이 교란 구덩이가 그 흔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창고천 바위그늘유적

하천급류의 계속되는 침식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바위그늘을 이용한 유적이다. 안덕면 화순리 화력발전소에서 북쪽 방향으로 700m 정도 올라온 창고천 절벽의 하단에 위치한다. 이 곳의 지형은 감산리에서 월라봉 줄기를 타고 내려오던 창고천 자락이 화순리로 들어오면서 'S'자형으로 굽이치는데, 이 꺾이는 부분에 바위그늘이 자리하고 있다.

트인 방향은 북서향이며 3개의 바위그늘이 연결된 아치형 그늘형태를 취하고 있다. 오른쪽의 입구 직경은 5.7m, 높이는 3.5~3.0m이고 왼쪽은 연접되어 있는데, 비교적 소형으로 입구 직경은 2.9m, 높이는 2.7~2.2m이다. 중앙은 입구에서 안쪽까지 3.0m, 왼쪽굴은 1.7m정도이다. 중앙의 바닥은 심하게 경사져 있고 암반층 위에 10~15cm 정도의 흑갈색부식토가 퇴적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왼쪽도 마찬가지다. 입구전면은 경사져 내려와 하천 유로면과 연결되며 유로면과의 높이차는 1.5m 정도이다. 왼쪽굴의 토층상태를 보면 흑갈색부식토층의 깊이가 30cm이며 유물은 주로 이 층의 상면에서 확인된다. 유물은 다수의 적갈색경질토기, 공이, 흙돌 등이 확인되었다.

#### 상예동 바위그늘유적2호

서귀포시 상예동 1501번지에 위치한다. 유적이 형성된 지점은 하천이 지그재그형으로 꺾이는 부분인 단구의 하단에 있다. 현재에도 단구면이 계속 절리되고 있는 중이며 원래는 바위그늘이 드리워진 면이 지금보다 훨씬 넓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바위그늘의 길이는 3.5m, 높이는 1.5m, 입구에서 안쪽까지 길이는 2.2m이다.

유적 내 퇴적층위는 총 7개의 층으로 명갈색점토층(1층) - 흑색재층(2층) - 명갈색점토층(3층) - 적갈색니질점토층(4층) - 갈색점토층(5층) - 흑갈색점토층(6층) - 암반층(7층)이 순차적으로 퇴적되어 있다.

암반상면에 놓인 인공적인 할석이 몇 군데에서 확인되었는데, 그들 중앙에서 확인되는 판석과 할석 3매는 노지시설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3층~4층 부분에서는 인골편으로 추정되는 골편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유적이 최종적으로 무덤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과거에 인근 주민이 바위그늘 바로 앞에서 곡옥을 수습했다는 내용이 이를 보완해 준다. 이와 함께 완형의 심발형의 고내리식토기가 내부 상면에서 확인되었으며 우각형파수부토기와 토기뚜껑도 함께 확인되었다.

### 신례리 바위그늘유적

서귀~위미 간 12번 국도(하례~신례2리간)변, 즉 세기내 다리에서 북쪽으로 100m 지점인 하류 동벽에 자리한다. 해안 700m 정도 거리를 두며 하천의 급류에 의한 침식작용에 의해 형성된 그늘이다. 바위그늘이 트인 방향은 북서 방향이며 그늘 면적은 대략 5평 남짓이다. 전체의 규모는 입구의 동서 길이가 8.6m, 높이 2.4m, 깊이 4.2m이다.

유적 내 퇴적층위는 50cm 정도의 두께를 가지며 고운 회색 모래층(1층)과 회색 재층(2층) 그리고 흑갈색 부식토층(3층)이 퇴적되었고, 입구 쪽이 안쪽보다 퇴적층이 깊다. 유물은 주로 적갈색경질토기와 심발형의 고내리식토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외 공이, 흙돌 등의 석기가 확인된다.

예전에는 그늘 앞 하천에 물이 고여서 은어와 민물게 등이 서식하였고, 빨래와 목욕하는 장소로도 이용되었다. 또 일제하 공습 때에는 방공호 대용으로 대피하는 장소였다.

### 복사면 동굴유적

복사면은 한라산을 정점으로 북제주군 조천읍에서 애월읍까지의 지역이다. 남사면에 비하여 비교적 완경사면이나, 동서사면에 비하면 경사가 급한 지형을 보이는 지역이다. 하천이 발달되어 있으며 해안선은 완만하고 넓은 조간대가 형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유적은 곳자왈이 형성된 곳의 동굴을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 해안에 형성된 동굴도 이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북촌리 바위그늘유적, 김녕 귀네기굴유적, 김녕 묘산봉동굴유적, 관전동동굴유적, 가문동바위그늘유적 등이 있다.

### 북촌리 바위그늘유적

북촌리 275번지에 위치한다. 제주도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동굴 지형을 자연 그대로 이용한 대표적인 유적이다. 해안에서 600m 가량 떨어진 해발 20m의 평탄대지에 형성되어 있는데 동굴 함몰부의 최대직경이 50m에 이르며 그 동북쪽 절벽 아래에 유적이 형성되어 있다.

바위그늘은 정면폭 11m, 높이 2.5m, 길이 3m이며 입구는 정남향으로 트여 있다. 바닥면 서쪽은 천장에서 무너져 내린 큰 암반으로 평탄면을 이룬 반면, 동쪽에서는 무질서하게 천장에서 떨어져 내린 낙반석에 인위적으로 잡석을 깔아 면을 평탄하게 다듬었다. 유적내에는 여러 시대의 문화층이 확인되는데 총 5개 층위가 확인되었다.

① 제1층(표토층)은 지하 15~25cm까지로 조개 및 동물뼈 파편이 비교적 다량 혼입된 흑갈색토층이다. 근래에 버려진 유물도 포함된 교란층이나 원래는 탐라시대 문화층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② 제2층(갈색사질토층)은 표토 아래 30~45cm까지로 두께는 15~35cm이다. 역시 조개 및 동물뼈 조각이 많이 섞여 있는 층위이다. 심발형의 고내리식토기편이 다량 출토되었다. 층위 바로 밑과 제3층 사이에 회갈색의 곱고 푸석푸석한 재층과 목탄층이 3~6cm 두께로 일부 간층을 이루고 있다.

③ 제3층은 표토 아래 35~55cm로서 두께는 15~25cm 정도인 다소 밝은 흑갈색 점토층이다. 조개 및 동물뼈는 소량 혼입되어 있으며 적갈색경질토기 외반구연호와 함께 우각형파수부토기가 출토되었다.

④ 제4층은 표토 아래 52~72cm이고 두께는 12~27cm로 밝은 갈색 점토층으로서 조개편이 3층보다 다소 많아진다. 이 층에는 유물이 거의 없으나 수점의 공렬토기편과 각목토기편출토되었다.

⑤ 제5층은 최하층으로 밝은 갈색의 사질토층이며 조개편은 서로 엉켜 붙어 화석화 과정에 있는 고품질로 되어 있는 층위이다. 표토 아래 67~83cm까지이며 두께는 25~37cm이다. 신석기시대 토기편이 원상으로 출토되는 층위로 이 문화층의 탄소측정연대는 B.P.2950~25년이다.

유물은 모두 신석기시대 토기로 구연부 아래에 3열 혹은 4열의 원형·삼각점렬무늬토기, 구연이 이중으로 된 겹아가리토기, 조갯날 같은 시문구를 연속적으로 비스듬히 눌러 만든 무늬가 장식된 집선문계토기, 빗창과 유사한 골각기가 확인되었다.

#### 김녕리 궤네기굴유적

구좌읍 김녕리 2121번지에 소재하고 있다. 동굴의 전체 길이는 200m 가량 되며 동굴공간의 평면 모양은 입구에서 안쪽으로 갈수록 동북쪽으로 휘어져 들어간다. 입구가 9.2m, 내부 안쪽이 7.5m에 이르나 대체로 거의 같은 폭을 유지하고 있다.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동굴바닥의 면적은 대략 65m 정도 된다.

동굴의 바닥은 울퉁불퉁한凹凸면이 형성되어 있고 특히 안쪽으로 갈수록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 내부 안쪽에 퇴적된 토층의 두께는 10cm 미만으로 거의 암반이 노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바닥의 레벨은 입구에서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동굴 바닥에 퇴적된 토층의 두께는 70~80cm 정도인데, 최근까지 이 곳에서 마을제사가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행해져 일부 교란이 이루어졌다. 유적 내 층위를 살펴보면 대체로 3개의 층위가 확인되었다.

① 제1층은 표토층으로 입구 부분과 내부 적석 부분에 15~20cm 가량의 두께로 동일하게 퇴적되어 있으나 적석군 안쪽으로는 10cm 정도로 얇게 퇴적되어 있다. 대체로 암갈색을 띠며 입구 부분은 점성이 약한 밝은 암갈색을 띤다. 이 층에서 유물은 입구쪽보다 적석군 안쪽에서 많은 양이 출토되었다.

② 제2층은 입구 부분의 두께가 35~40cm, 적석군 안쪽으로는 20cm 가량이다. 이 층은 흑갈색층으로 유물이 다량 출토되며, 특히 내부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대형의 적갈색경질토기 외반구연호편이 밀집되어 출토되는 유적의 주된 문화층이다.

③ 제3층은 최하층으로 암반 위에 7~12cm두께로 퇴적된 재층이다. 대략 3개의 층위로 세분되며 회색, 흑색, 담갈색조를 띤다. 입구 부분에서는 3개의 세분된 층위가 넓게 분포되어 있으나 안쪽으로는 회색과 담갈색이 주로 나타난다.

최하층인 재층은 유적이 초기에 이용되었던 흔적임을 보여주는 층으로 삼각형 점토대토기, 패촉 등이 출토되었다. 재층 상면에서 확인되는 흑갈색토층은 두께가 비교적 두텁고 다량의 유물을 포함하고 있어 이 유적의 주된 문화층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 층에서 다량의 적갈색경질토기 외반구연호가 출토되고 있어 유적이 가장 활발히 이용된 시기로 판단된다. 암반바닥 일부에서는 소량의 신석기시대의 토기편이 확인되는데, 이것으로 보아 최초의 이용은 신석기시대 후기단계로 판단해 볼 수 있다.

#### 김녕 묘산봉동굴유적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묘산봉 남서편의 목장지대에 자리하는 동굴유적으로 김녕리 마을에서 중산간으로 약 3.5km 정도 거리에 위치하며 유적의 주변으로는 넓은 곳자왈과 소규모의 동굴이 다수 자리하고 있다. 입구는 잡목에 의해서 가려져 있고 천장부가 무너져 아치 모양으로 트여 있다.

동굴은 크게 동쪽과 서쪽에 2개소로 이루어져 있다. 서쪽굴의 입구는 남향을 하고 있고 천장부에서 떨어진 낙반석에 의해 대부분이 막혀 출입에 어려움이 있다. 바닥은 용암암반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일부 낙반석이 자리하고 있다. 입구 부근의 바닥에는 박쥐의 배설물이 두껍게 퇴적되어 있다. 동굴 안쪽 서편에 4·3 당시의 유구로 보이는 돌담경계시설과 화덕시설이 확인되었다. 바닥 사이에 소량의 적갈색경질토기편이 확인되었다.

유물이 집중적으로 확인되는 동굴은 동쪽에 위치한 굴로 입구는 서향을 하고 있다. 입구는 길이 5m, 높이 2.3m로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은 길이 2m 정도이다. 동굴 내부는 타원형모양을 하고 있으며 장축이 31m, 단축 20m, 높이 1~3m 정도이다. 입구에서 동굴 내부로 경사가 져 있고 내부 바닥과 천장은 서에서 동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하고 있다. 낙반석이 넓게 자리하고 있고 일부 4·3 당시 이용되던 것으로 보이는 돌무더기들이 확인되고 있다.

동굴 전체에서 유물이 확인되는데, 특히 동굴의 입구부와 안쪽 깊은 곳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었다.

유물은 적갈색경질토기와 타날문연질토기, 회청색경질토기 등이 주를 이루며 낙반석 사이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편이 소량 확인되었다. 이 외에 소량의 패각과 다량의 동물뼈가 확인되었다.

#### 관전동 바위그늘유적

하귀1리 관전동마을 해안절리면 하단에 위치한 유적이다. 파도에 의해 형성된 해식동굴로 입구는 사다리꼴모양을 하고 있다. 유적이 위치하는 곳은 북서면 해안에서는 드물게 바다에서 약 4~5m의 높이를 가지는 절리단애가 형성된 곳이다. 절리면은 현재 절리가 진행 중으로 유적의 주변에 절리석들이 다수 존재한다.

유적은 바다에서 약 1.5m 상단에 있으며 내륙방향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절리단애면의 하단에 자리하고 있다. 유적은 동혈과 전정부를 가지고 있으며 동혈의 트임방향은 N20. W방향이다. 규모는 길이 450m, 높이 60~70cm, 깊이 350~400cm 정도이다. 전정부는 동혈의 입구 앞부분으로 반타원형의 평탄면을 이루고 있으며 입구에서 약 7m, 길이 10cm 넓이를 가지고 있다.

동혈 내부에는 황갈색점토가 약 50cm 정도로 퇴적되어 있으며 소량의 적갈색토기편이 확인되었다. 전정부에는 약 40cm의 흑갈색점토가 퇴적되어 있으며 자갈한 적갈색토기편들과 일부 석기들이 확인되었다. 흑갈색점토층의 하부에는 자갈한 자갈층이 형성되어 있다.

출토유물은 대부분 적갈색경질토기편들이며 일부 심발형의 고내리식토기와 회청색경질토기가 소량 확인되었다. 유적이 위치한 서쪽의 약 30m 지점의 조간대에 지석묘 1기가 자리하고 있다. 유적 바로 앞 약 30m 지점의 현무암 암반 위에는 직경 10cm 내외, 깊이 5cm 내외의 구멍 7개가 다소의 차이를 두고 자리하고 있고 그 앞으로 원이 축조되어 있다.

### 3 동굴유적의 유형

도내에서 확인되는 동굴은 크게 동굴과 바위그늘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바위그늘은 대부분 동혈(洞穴)을 이루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 확인되는 바위그늘과는 형태적인 측면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적으로 이용된 곳은 화산활동이나 해식 및 하식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2002년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문화재 보존·관리지침』의 기준을 따르면 모두 동굴의 범주에 포함된다. 유형분류에 있어 형태적인 분류작업이 일차적이지만 대부분의 유적은 동혈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곳을 택하고 있으며, 동굴인 경우도 채광이 이루어지는 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바위그늘에 유적이 형성되는 양상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유적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적의 형태보다는 유적의 입지가 유형분류의 기준이 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입지를 기준으로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I 유형

해안에 위치하며 대부분 해식에 의해 형성된 동굴을 이용한 유적이다. 이 유형은 해안선에서 약간 들어간 절벽의 종턱이나 조간대가 형성된 곳의 동굴을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유적의 주변에 이와 연관지을 수 있는 유물산포지가 존재하며 풍부한 용천수와 양질의 토양이 넓게 존재한다. 유적의 규모는 15㎡ 이하의 소형이며 입구가 트인 방향은 대부분 남향이지만 일부 북서향을 취하는 곳도 있다. 유적의 형성은 동굴의 입구를 중심으로 입구의 앞과 내부에 자연채광이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출토유물은 소량의 토기편과 다량의 패각류가 주를 이루고 있다. 도내에서 해안단구 및 하안단구가 발달된 남사면의 중문동, 색달동 마을을 중심으로 다수가 자리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서귀포시 상예동 바위그늘 유적군과 하예동 바위그늘유적군을 들 수 있다.

#### II 유형

주로 하천의 절리단애면에 위치한 용암이나 하식에 의해 형성된 동굴을 이용한 유적이다. 대부분 해안에서 내륙으로 약 1km 정도의 하천단구에서 확인된다. I 유형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15㎡ 정도의 소형 동굴에 형성되어 있으며, 출입구는 거의 남향을 하고 있다. 유적의 범위는 입구부를 포함하여 동굴의 전면에 형성되어 있으며, 출토유물은 토기편과 공이·흙돌·갈판 등의 석기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유적 주변의 평탄대지상에는 소규모의 유물산포지가 존재하기도 하나 거의 단독으로 확인된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하례리, 신례리, 창고천 바위그늘유적군이 있다.

#### III 유형

해안에서 1km 내외의 거리를 두며 특히 해안과 중산간지대의 중간부에 위치한 동굴을 이용한 유적이다.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동굴이 대부분이며 규모는 15㎡ 이상으로 비교적 넓다. 유적이 자리한 주변 일대에 양질의 토양이 분포하며 음용수 획득에 유리한 하천이나 용천수가 존재한다. 유적의 형성 범위는 입구부에서 빛이 비치는 부분까지이며 일부 동굴 깊은 곳까지 유물이 확인되나 후대 유수의 유입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이해된다. 출토유물은 대부분 토기편이며 동물뼈와 패각류가 거의 균일하게 출토된다. 유적 주변에는 이와 연관되는 대단위 마을유적과 대규모 유물산포지 등이 자리하고 있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북촌리 바위그늘유적 제2층, 김녕 궤내기동굴, 신천 한뫼궤굴유적, 대포동 오뎡이궤유적 등을 들 수 있다.



#### IV 유형

해발 1km 이상에 자리한 유적으로 대부분 중산간지대에 위치하며, 특히 꽃자왈이 형성된 주변의 동굴을 이용하고 있는 유형이다. 2004년 정광중의 「꽃자왈과 제주인의 삶」과 2005년 꽃자왈과 사람들의『꽃자왈과 사람들 창간호』의 꽃자왈에 대한 연구를 보면, 특히 제주도의 특징적인 지질을 보여주는 꽃이자 지형·지질적으로 자갈, 암괴, 용암류, 스코리아, 화산탄, 화산자갈, 숨골, 화산회, 화산회토가 포함된 곳이며, 식생적으로 이끼류, 양치류, 초지성 식물, 화초류, 잡목, 침엽수, 활엽수 및 가시덤불이 자리하는 곳이다. 또한 꽃자왈 내부와 주변으로 바위그늘·동굴, 소지류, 소규모 계곡, 습지, 부분적인 초지 등의 요소가 상호 복합·유기적으로 작용하는 독특한 생태계 환경을 갖는 곳이다. 따라서 꽃자왈 지대에는 다양하고 넓은 수림, 다양하고 풍부한 식용식물, 야생열매가 제공되고, 인간과 동물이 쉽게 은거할 수 있는 바위그늘·동굴이 존재하며, 음용수 획득에 유리한 소규모의 습지가 형성되어 최근까지 도민들의 이용이 많았던 곳이다. 이와 같은 요소는 선사시대인들의 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곳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꽃자왈 주변의 동굴 입구는 대체적으로 작고 낮으며 규모는 소형인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유적의 형성 범위는 입구부와 내부 전면에 자리하고 있고, 출토유물은 토기편과 동물뼈를 위주로 확인되며, 유적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유물산포지가 형성되어 있다. 유물의 집중적인 분포위치는 동굴의 입구부에 밀집되어 확인되며 일부는 유수(流水)의 유입으로 인해 동굴의 깊은 곳에서도 확인된다. 대표적인 유적으로 고산동굴유적, 선흘리 목시물굴유적, 김녕리 묘산봉동굴유적이 있다.

#### 4 동굴유적의 성격

제주도 동굴유적의 특징은 ① 대체적으로 동혈이 형성되고 입구가 남향인 곳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② 동굴의 규모에 관계없이 대부분 입구를 중심으로 입구의 앞과 채광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③ 유물의 퇴적양상에 있어서는 대부분 단일토층이나 얇은 퇴적상황에서 여러시대의 생활상이 공반되어 확인된다. ④ 유적의 형성시기에 있어서는 신석기시대는 물론 대단위 야외취락이 형성되는 탐라시대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사용이 지속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주도 동굴유적은 입지적인 유형분류와 더불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사용에 있어서 성격 또한 바뀌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 유적의 연대

유적의 유형별 연대를 살피기에 앞서 전술하였듯이, 제주도 동굴유적의 특징은 동굴 내 퇴적량이 극히 얇고 여러 시대의 생활상이 거의 단일토층 내에서 확인되는 점에서 유적의 시기구분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청규·강창화에 의해 시도된 제주도 상고시대 연대표를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I 유형

유적 내부에서 확인되는 유물상을 보았을 때 대체적으로 유물의 양은 소량이 확인되며 대부분 탐라시대 전기의 적갈색경질토기·회청색경질토기, 후기의 고내리식토기·회청색경질토기 등이 혼재되어 확인된다. 이와 함께 소량의 패각이 공반된다.

##### II 유형

탐라시대 전·후기의 적갈색경질토기, 고내리식토기, 회청색경질토기 등이 단일층 내에서 확인된다. 이들 토기의 점유비율에 있어서는 탐라시대전기의 적갈색경질토기의 비율이 다소 높다. 또한 유물의 양에 있어 극히 소량이 확인되며 특징적으로 석기에 있어서는 공이, 흙돌, 갈판 등의 제분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소량의 동물뼈가 확인된다.

##### III 유형

신석기시대에서 탐라시대 후기에 이르는 유물상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유형과 마찬가지로 거의 얇은 퇴적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유적인 경우 비교적 두껍게 퇴적되어 있다. 크게 구분하면 최하층에는 신석기시대 초기 용기문토기, 전기의 압인문토기, 후기의 점렬문계토기, 만기의 이중구연토기 등이 확인된다. 중간층에는 청동기시의 공렬토기, 각목토기, 마연토기 등이 확인되며, 상층에는 탐라시대 전기의 적갈색경질토기, 탐라시대 후기의 고내리식토기와 회청색경질토기가 확인된다. 특히 유적 내에는 상당량의 유물이 퇴적되어 있으며 패류와 골류의 출토비율이 비슷하다. 신석기시대에서 탐라시대 후기, 최근까지 이용되고 있다.

##### IV 유형

III유형과 마찬가지로 신석기시대 초기에서 탐라시대 후기까지 전시기의 토기가 확인되나 대부분 신석기시대 만기에서 탐라시대 전기의 유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각 유형별 이용시기를 종합해보면 Ⅲ·Ⅳ유형, Ⅳ·Ⅲ·Ⅱ유형, Ⅲ·Ⅱ·Ⅰ유형의 순으로 이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석기시대에는 Ⅲ·Ⅳ유형의 동굴을 중심으로 이용되었고, 청동기시대·탐라시대 전기에는 Ⅳ·Ⅲ·Ⅱ·Ⅰ유형으로 모든 유형을 택하여 이용되고 있으나 특히 Ⅲ유형을 중심으로 이용하고 있다. 탐라시대 후기에는 대체적으로 Ⅰ유형을 중심으로 유적이 이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전술한 유형 및 연대를 바탕으로 이들 유적의 시기별 기능 및 용도에 대한 이용적 측면을 살필 수 있다. 유적은 기능 및 용도에 있어 크게 주거용과 특수목적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유적의 기능

#### 주거용으로 이용

주거용(장기주거와 단기주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단순히 하나의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말하고자 함)으로 이용된 유적은 대체로 Ⅲ·Ⅳ유형이 해당하며 시대는 각 유형 중 신석기시대, 탐라시대 전기층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유적으로 Ⅲ유형의 북촌리 바위그늘유적 최하층을 들 수 있다. 유적의 입지에 있어 해안의 조간대와 인접한 곳에 자리하여 음용수와 해산물 채취에 용이하고 또한 유적의 주변으로는 넓은 목초지대와 이와 인접한 곳에 꽃자왈이 형성되어 있어 사냥이나 식물채집에도 매우 유리한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유적 내에는 장기간에 걸쳐 정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토기편과 갈판·갈돌·공이·흙돌 등이 확인되며 이와 함께 다량의 패각과 소량의 동물뼈가 확인된다. 유적 주변으로는 해당유적과 연관시킬 수 있는 야외유적이거나 유물산포지가 확인되지 않는 단독의 형태를 띠고 있다.

Ⅳ유형의 대표적인 유적으로 김녕 묘산봉동굴유적이 있다. 유적은 해안에서 2km 이상의 중산간지대에 위치하며, 유적의 주변으로는 넓은 목초지대와 꽃자왈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 유적의 주변으로는 해당유적과 연관될 수 있는 야외유적이 존재하지 않으며, 출토유물에 있어서는 저장용으로 추정되는 대형토기가 다수 확인되고, 석기에는 갈판·갈돌·공이 등의 석기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유적을 주거용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배경은 바로 출토유물이라 할 수 있는데, 유물 중에서도 저장용구인 토기가 다수를 차지하는 점, 일부 공이석기와 흙돌이 확인되는 점, 견과류를 분쇄시키는 갈돌·갈판이 존재하는 점 등이 중요한 근거로 작용된다.

앞서 지적한 북촌리유적 최하층의 시기는 신석기시대 후기로 추정되는데, 현재 해안과 하천을 중심으로 중산간예까지 신석기시대 전기에서 후기에 이르는 다수의 유물 산포지가 분포하고 있어 향후 야외주거지 존재 가능성은 매우 크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북촌리유적 주변에 뚜렷하게 주거지로 보이는 야외주거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신석기시대 단계에서는 일부 야외주거지를 축조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소규모 수렵·채집단계의 집단의 경우는 현재 확인되는 동굴유적만으로도 충분히 주거용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청동기시대와 탐라시대에는 이미 야외취락이 형성되는 시기로서, 이전 시대에 가지고 있던 주거용으로서의 동굴에 대한 활용도는 많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사냥이나 원거리 이동과정에서 중간 거점지나 사냥을 위한 임시 캠핑장소로 이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특수목적으로 이용

제주도에서는 청동기시대 이후에 대단위 야외주거유적이 형성되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대규모의 유물산포지나 패총도 제주도 전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동굴유적 I·II·III유형이 이들 대단위 야외주거유적이거나 유물산포지와 관련되어 그 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처럼 청동기시대의 대단위 야외주거지가 조성되는 상황은 신석기시대의 주거지나 이동과정에서의 거점지 또는 사냥을 위한 캠핑유적으로서의 이용보다도 야외취락과 관련된 특수목적용 용도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청동기시대 이후의 동굴유적은 야외주거유적과 관련하여 무덤, 공동제의(共同祭儀) 장소, 어로·채집 후의 채집물 정리장소, 도구나 음식물의 공동보관창고, 병자 또는 죄인의 격리처, 대피소 등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I 유형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상예동 바위그늘유적군, 하예동 바위그늘유적군 및 색달동 동굴유적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유적 주변에는 유적과 연관시킬 수 있는 야외주거유적과 유물산포지가 넓게 분포하고 있다. 또한 그 대부분은 해안선이 발달된 조간대나 어족자원을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지점에 위치한 소규모의 유적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동굴유적 내부에 퇴적된 문화층이 아주 얇거나 미미하고, 확인되는 유물 또한 토기류와 어패류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어로와 관련된 대피소와 어로도구의 보관소, 어획물 집하장소 등의 용도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II 유형은 I 유형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소규모의 바위그늘유적으로 주로 하천변의 단애면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 주변에서는 유물산포지가 확인되고 있으며, 출토유물은 소량의 토기편과 공이석기, 흙돌과 같은 석기 등이 대부분이다. 이 유형은 입지적 특성에서 보듯이, 하천변의 하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의 범람시에는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출토유물도 1차 가공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음용수를 위한 취수 관련장소나 채집물의 1차 정리장소 등으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상예동 바위그늘유적 2호에서는 완형의 고내리식토기 1점과 인골편 등이 확인되었으며, 또한 주변에서는 곡옥(曲玉) 등의 유물도 수습된 정황으로 보아 무덤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III 유형은 대부분이 용암동굴을 이용한 유적으로 해안을 조망하면서 내륙으로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곳, 특히 야외주거유적이 자리하고 있는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 내의 문화층은 여러 시대에 걸친 퇴적양상을 보이고 있고 출토유물 또한 다량의 토기류와 동물뼈류, 어패류가 확인된다. 이 유형은 동굴이 가지고 있는 항온·항습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해안과 내륙에서 획득된 음식물을 공동으로 보관하는 장소로 판단된다. 특히 신천리 한뫼굴유적인 경우는 동굴 내부에 패총이 형성되어 있으며 저장용구인 토기가 소량 출토되었다. 또한 패각의 채취에 필요한 전복제 빗창과 다량의 전복도 확인되었기 때문에 채취물의 정리장소로 이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김녕 궤네기동굴유적 입구부에서는 다량의 동물뼈편이 확인되었는데, 두개골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동물뼈의 비율보다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제의(祭儀)와의 관련성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그 밖에 천재지변시의 임시적 대피처나 병자의 격리처로도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 5 나가는 글

제주도의 동굴유적은 제주도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되는데, 이들은 유적의 입지, 출입구의 방향, 유물의 집중분포 위치, 야외유적의 공반관계를 토대로 할 때 크게 4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시대적으로 유추해 볼 때,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에는 주로 Ⅲ형과 Ⅳ유형이 주거용으로 이용되었고, 야외주거지가 축조된 청동기시대 이후에는 야외유적지와 관련하여 Ⅰ, Ⅱ, Ⅲ유형이 정주거지가 아닌 특수목적용으로서 무덤 및 제의장소, 획득물의 분류 및 도구의 공동보관장소, 혹은 사냥의 거점지나 격리처 등으로 이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상정된다. 이 글에서는 그 가능성만을 제시하였으나, 앞으로 많은 자료가 축적되고 연구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동굴유적이 가지는 역할과 용도 등에 대한 분석이 좀더 구체화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제4장 제주도 내 오름과 일제 군사유적

### 1 제주도 내 오름과 일제 군사유적

#### 들어가며

제주도 내 오름에는 거의 빠짐없이 일제 말기 일본군이 파놓은 참호 및 갯도진지의 흔적이 남아 있다. 그 대부분은 1945년 일제의 '결(決)7호 작전'에 따라 일본 본토 수호를 위한 '옥쇄(玉碎)작전'을 상정해서 미군과 최후의 일전을 펼칠 목적으로 파놓은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목마장으로, 19세기 후반부터는 화전으로 활용되던 오름 일대에 삽과 곡괭이, 다이너마이트가 동원되어 미로와 같은 갯도가 뚫리면서 삽시간에 오름은 내부에 심한 상처를 안게 되었다.

오름 속을 관통하는 갯도는 몸체 한라산의 혈관을 할꺾어버린 상처 자국이 되었다. 인간과 자연을 말살하는 전쟁을 일으킨 인간들의 야만성과 폭력성을 그대로 드러낸 모습을 오름은 간직하고 있다. 오름은 인간들에게 자신의 상처를 숨기고 60여 년의 세월을 지내왔다. 가끔은 사람들이 이 갯도를 찾아 피해 들어오곤 했다. 4·3 당시 탄압과 학살을 피해 무장대와 중산간 마을 주민들이 들어왔을 때 오름은 자신의 상처투성을 피난지로 내어 주곤 하였다.

이제 오름에 생채기를 낸 인간들이 그 오름의 상흔을 찾아 보듬어 줄 때이다. 일본군의 무력과 강제력 앞에 군말 없이 동원되어 고난을 겪은 징용자들 또한 오름과 더불어 마음 속에 상처를 안고 살아온 또 다른 희생자들이다. 이들의 과거 실상을 헤아리고 그들의 역사적 기억을 되새기는 것 또한 오름을 찾는 사람들이 할 일이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알려져 온 한라산 오름의 일본군 군사유적을 주로 다루고자 한다. 7만 명 가까운 일본군 병력이 한라산 자락의 어떤 오름을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었으며, 이들이 그 지역을 골라서 진지로 구축한 까닭을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오름에 남아 있는 군사유적을 유형별·지역별로 아울러 개관해 보고,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조명해 보고자 한다.

#### 태평양전쟁 말기 제주도 주둔 일본군

제주도 내에는 일제 말기(특히 1944년 후반부터의 '본토 결전' 시기) 일본군이 조성해 놓은 거대 군사 시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일본군 군사 시설은 육군·해군의 비행장, 포대, 참호, 고사포진지, 육·해군의 훈련장 및 감시초소, 대피소, 진지동굴, 특공대기지, 비행기 격납고, 탄약고, 폭탄매립지 등을 총망라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한라산 중턱에 '머리띠를 두른 형국'이라는 뜻에서 '하치마키[鉢巻]'라는 군사도로가 만들어졌으며, 이 외에도 각 진지와 진지, 진지와 포구를 연결하는 군사도로도 요소요소에 남아 있다.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군이 미군에 밀리기 시작하면서 제주도 근해의 상황이 심각해졌다. 1944년 봄부터 미 해군 잠수함이 제주근해에 자주 출몰하였다. 일제는 1944년 5월 제주도비행장을 완성하여 미군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그러나 1944년까지만 하여도 제주도 수비 병력은 총 200여 명에 불과했다.

1944년 10월 미군에 의해 필리핀이 점령당하자, 일제는 제주도의 방위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여겼다. 1944년 12월 일본방위총사령부는 미군의 제주도 공략을 상정, 제주도를 전략상 요지라고 인식하게 됐다. 일본 군부에서는 막료를 파견하여 제주도를 시찰하게 하고, 연안진지의

요새·보루·포대·참호 등을 구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1945년 초부터 제주도에 임시 포대의 엄호와 상륙방어를 위한 해안가 진지구축 작업이 시작되었다.

1945년 2월 9일 일본방위총사령관은 미군과의 본토 결전에 대비하여 7개 방면의 육·해군 결전작전 준비를 명령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제주도 방어작전으로서, 이른바 ‘결(決)7호 작전’이다. 1945년 4월 15일 제주도 방비 강화를 위해 제58군사령부가 신설 편성되었으며, 일본 본토의 부대와 만주의 관동군 등을 포함하여 종전 직전까지 4개월 사이에 무려 7만여 명에 달하는 병력이 제주도에 집결하였다. 제주도를 미군의 침공으로부터 사수한다는 방침을 정한 일본군 7만 대군은 제주도 전역을 요새화 하였다.

일본군은 8월이 되면서 해안선을 포기하고 중산간 지역 오름 일대로 옮겨갔다. 일본군은 이때부터 지구전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해안선을 통한 미군의 상륙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중산간 지역에서 유격전을 통해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우다 죽겠다는 ‘옥쇄(玉碎) 작전’을 계획하였다.

당시 제주 주둔 제58군 사령부의 총지휘에 놓여 있던 부대는 제58군 직속부대, 제96사단, 제111사단, 제121사단, 독립혼성 제108여단, 제12포병사령부, 해군부대 등이다. 지금까지는 이들 부대의 구체적인 병력 배치 현황, 무기 및 장비 현황 등에 대해서는 잘 밝혀져 있지 않다. 필자는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군 방위청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당시 일본군 기밀문서를 입수하여 분석하였다.1) 이 기밀문서에는 제주도 주둔 각 부대병력의 이동 및 배치 상황, 각 사단 예하부대의 편제, 인원, 마필, 자동차 수량, 주요병기 현황 등이 상세히 밝혀져 있다. 또한 지금까지 소개되지 않았던 다양한 군사시설 관련 지도, 도표 등이 수록됨으로써 일본군 군사시설유적을 해명하는 데 1차적인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필자는 해방 직후 일본군 무장 해제를 담당하였던 미군정의 다양한 보고서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미군은 9월 28일 제주도에 특별히 일본군의 항복과 무장 해제를 담당할 ‘항복접수팀’과 ‘무장해제팀’을 파견하였는데, 이들이 남긴 기록이 풍부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또한 1945년 8월에 일본군이 작성한 두 장의 지도(「제58군배비개견도 제주도」, 「제주도병력기초배치요도」), 마찬가지로 1945년 9월에 주한미육군사령부의 주간정보요약에 수록된 두 장의 지도(「일본 제58군 방어진지 위치도(1945. 9. 25)」, 「일본군 병력배치도」)를 중심으로 제주도 내에 산재한 일본군 전적지의 현재 위치를 현장 조사를 통해 비정하여 보았다. 이들 지도 가운데 「제58군배비개견도 제주도」는 제주도 내에 산재한 각 진지의 위치와 개별 성격(주저항진지/복곽진지/전진거점/위장진지)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이 지도는 실제 지도와 맞추어 볼 때 진지 및 병력이 있는 거점이 거의 일치할 정도로 상당히 정확한 지도이다. 「제주도병력기초배치요도」는 일본군이 예상한 미군의 제주도 상륙 지점을 파악함과 아울러 제주도의 권역별 진지 성격(복곽진지/주진지/공세준비진지/유격진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미군이 작성한 「일본 제58군 방어진지 위치도(1945. 9. 25)」는 위 일본 지도가 표시하지 못한 각 사단 및 여단 예하 보병연대·대대, 공병부대, 야전병원 등과 독립포병부대의 위치를 표시하고 있어서 각 지역별 부대 배치상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미군의 「일본군 병력배치도」는 제주도 내 일본군 참호진지와 갯도진지 분포 지역을 구분하여 놓았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완성된 갯도진지만을 표시하여 놓았기 때문에 해방 직후 일본군의 갯도진지 구축작업의 진척 상황 및 현재 보존상태와의 비교를 시도해 볼 수 있다.

일본 방위청 소장 자료와 미군정이 남긴 각종 보고서에는 제주 주둔 일본군의 배치 현황, 일본군의 구성, 무기 장비 실태 등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미군정 보고서에는 특히 일본군의 항복과 무장 해제, 일본군이 남긴 장비와 군사시설의 처리, 일본군의 철수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우선 일본 방위청 소장 자료인 「조선에서의 전쟁 준비」와 「기밀전보철」 등을 통해 제58군 사령부를 비롯해 각 사단 및 여단 병력의 제주도 배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 제96사단(사단장 중장 飯沼守 이이누마 ; 玄부대)

제96사단은 제주도 방위에 대비하여 혼성여단을 개편한 것으로서 편성 장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제주도의 수비가 시급하여 편성된 직후 곧바로 제주도에 진주시키게 되었다. 1945년 3월 하순 제주도 파견의 군 명령을 하달 받았다. 당시 제주도에 이미 유수제30사단의 일부 부대에 의해 축성[진지구축] 작업을 개시하고 있어서 한동안 유수제30사단장의 지휘 하에 편입되어 있었다. 제주도 내 모든 부대는 제96사단에 배속을 변경시켜 여수 요새사령관의 제주도 방위 임무를 해제시켰다. 제96사단은 3월 하순에 편성지를 출발하여 4월 3일 제주도에 상륙하였다. 독립속사포 제32대대가 배속된 제96사단은 제주도 상륙 후 주력을 제주지구(산천단 일대)에, 일부를 모슬포지구에 주둔시켜 정해진 계획에 따라 진지구축 작업을 계속하였다. 뒤에 제58군 사령부가 제주에 신설되면서 그 예하에 편입되었다.

#### 독립혼성 제108여단(여단장 소장 히라오카 츠토무 ; 隼부대)

독립혼성 제108여단은 4월 중순 제주도에 상륙하여, 제96사단장의 지휘 하에 편입되었다. 제108여단은 장교 이하 사병에 이르기까지 연장자가 많았다. 사령부는 검은오름·부대오름 일대에 주둔하며 제주도 동부 지역을 관할하였다.

#### 제58군 사령부(사령관 중장 永津佐比重, 뒤에 遠山登 도야마 노보로 ; 罌부대)

1945년 4월 제주도의 독자적 방어를 위해 제58군 사령부를 신설했다. 제주도의 배치와 아울러 작전 지도에 관해서는 제58군 사령관의 독립성을 감안하여 제17방면군의 작전에 구속되지 않도록 하였다. 제58군사령부의 편성이 완결되자 사령부를 제주도에 파견하여 제주도 소재의 병단 이하를 사령부의 지휘 하에 편입시키도록 하였다. 사령부는 4월 20일 제주도에 상륙하였다. 제58군 직할부대로는 독립(白砲)제23대대, 분진포제1대대, 전신제11연대, 제1·제3독립작정소대, 전차1중대, 야전중포병연대의 1중대, 제1특설근무대 등을 두어 병단의 수송과 병행하여 4월 내지 5월 사이에 제주도에 상륙하였다. 한편 공병대사령부를 따로 편성하여 제58군의 진지구축 작업을 원조하기 위해 제주도에 파견되었다. 제주농업학교에 주둔하다가 1945년 7월 4일 어승생오름으로 이동 주둔하였다. 제주도 주둔 일본군 부대를 총지휘하였다.

#### 제111사단(사단장 중장 岩崎民男 이와사키 도미오 ; 市부대)

1945년 4월 중순부터 만주로부터 직통으로 제주도에 이동 배치되어 제58군의 예하에 편입되었다. 5월 상순에 이르기까지 제주도에 상륙하였다. 사령부는 당오름·원물오름 일대에 주둔하며 제주도 서남부 지역을 관할하였다. 미군의 상륙지점으로 예상되는 제주도 서남부 지역을 방어하는 임무를 가진 주력부대였다.



제121사단(사단장 중장 正井義人 마사이 요이히토 ; 榮光부대)

1945년 5월 만주 하얼빈으로부터 대전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이어서 6월 상순으로부터 6월 중순에 걸쳐 제주도에 파견되어 제58군 사령관의 지휘하에 편입되었다. 사령부는 발이오름·노꼬메오름 일대에 주둔하며 제주도 서북부 지역을 관할하였다.

기타

전차연대가 몽고로부터, 박격포대대가 북중국으로부터 제주도로 이동 배치되어 제58군의 예하에 편입되었다.

<제주도 병력 증가 추이>

1944년 6월 : 수비대 및 기타 병력 포함 총병력 약 3백 명에 불과  
 1944년 7월 : 비행장 중대 및 기타 병력 배치, 총병력 약 1천 명  
 1945년 2월 중 : 평사작업대 배치, 총병력 약 3천 명  
 1945년 3월 중 : 96사단, 108여단 배치, 총병력 약 2만 명  
 1945년 4월 중 : 111사단 및 기타 병력 배치, 총병력 약 3만6천 명  
 1945년 6월 중 : 121사단 및 기타 병력 배치, 17방면군 직할부대 병력 배치, 총병력 약 6만5천 명  
 1945년 7~8월 : 총병력 약 7만5천 명

결국 제주도에는 1945년 초까지 1개 사단이었던가 1945년 8월 해방 직전에 3개 사단 1개 여단의 강력한 병력을 구축하였다. 제58군은 주진지선을 해안 근처로 잡았고, 관동군 제111사단 및 제121사단 등 주력을 제주도 서쪽 방면으로 결집시켜 공세 병력으로 삼았다. 아울러 제58군은 진지 구축에 전력하여 7월에는 골간이 되는 진지를 이미 구축하였다. 7월 이후로는 훈련과 진지구축을 병행하며 작전 준비를 완벽하게 하는 데 매진하였다. 이 기간에 제64병참병원, 독립야포병연대의 일부, 제41건축근무중대가 홍수로 피해를 입었다. 7월에 들어와 전세가 긴박해지자 대본영은 다시금 1개 사단을 제주도에 증강할 것을 적극 검토하였다. 조선 주둔 제17방면군은 여건상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나, 대본영은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리게 되었다.

- ① 제주도에서 작전 목적은 적의 공해 기지 설정의 기도를 깨뜨리는 것이지만 작전 초동에 있어서 공세를 시도하는 적을 격멸하는 작전을 시도한다.
  - ② 제17방면군 사령관은 1사단 기간 병력을 남조선에 준비하고 제주도에 대하여 적의 침공이 확실시되면 적정한 때에 제주도에 투입하여 제58군 전력을 증강시킨다.
- 이에 대하여 제17방면군은 7월 하순경 정세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8월 중순 새로운 사단을 제주도에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곧바로 8월 5일 대구 주둔 제120사단의 파견 준비를 명령하였다. 제120사단은 급거 전진을 준비하고 8월 13일부터 승선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8월 15일 전쟁이 끝나게 되자 이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다. 한편 미군정 보고서(주한미육군 사령부 주간정보요약, G-2 Weekly Summary)에는 제주도 주둔 일본군 주요 부대 및 병력 현황이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다.

제58군 제58군은 1945년 4월 제주도에서 섬의 모든 군을 총괄하는 사령부 조직으로 편성됐다. 도야마 노보루 중장이 사령관이다.

제96사단 제96사단은 1945년 3월 서울 부근에서 활동했으며 4월 이후에는 제주도 북부지역을 경비하고 있다. 병력은 8,603명으로 적은 편이다. 사령관 이이누마 중장이 일본으로 전출된 뒤 다마다 요시로 중장이 공백을 메웠다.

제111사단 1944년 7월 만주에서 활동했던 제111사단은 1945년 5월 제17방면군 휘하로 편입된 이후 제주도 서부해안을 경비하고 있다. 사령관은 이와사키 도미오 중장이다.

제121사단 제120사단과 함께 만주에서 활동했던 제121사단은 5월 제17방면군 휘하로 편입된

이후 제주도 서부지역에 주둔하고 있다. 사령관은 마사이 요시토 중장이다.

독립혼성 제108여단 독립혼성 제108여단은 1945년 5월 (규슈의) 서부관구군 휘하에서 활동하다 경계임무를 위해 제주도 동부지역으로 이동했다. 5개 대대로 구성됐으며 사령관은 히라오카 츠토무 소장이다.

다음은 종전 때까지 제주도에 증강된 병력 추이 및 부대명칭이다.

오름에 남아 있는 일제 군사유적

전체 지역별·유형별 개괄

일본군의 제주도 진지 구축은 1945년 1월부터 계획되었다. 일본군 방위총사령관은 1월 중순부터 사단 막료와 함께 진지구축 공사 담당부대에 필요한 정찰반을 편성하고 제주도에 도착하여 정찰을 실시하면서 진지구축 계획을 입안하였다. 2월 상순부터 공사부대의 수송을 개시하였고, 2월 중순부터는 세부 정찰과 아울러 진지구축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제주도에 대한 선박 수송의 지연, 진지 구축에 필요한 자재의 마련, 동원에 수반되는 요원의 교대 등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3월 말경에는 30%의 공정 진도를 예정하였다. 일본 규슈로부터 제11공사대가 제주도에 도착하였다. 2월 상순부터 방위축성부로부터 파견된 교관이 공사 지도 기간요원인 장교 이하 80명에 대하여 동굴식 갱도(洞窟式 坑道)와 엄체식 포병 엄체(堀開式 砲兵 掩體) 공사 교육을 10일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구축된 제주도 내 일본군 참호진지 및 갱도진지는 제주도 곳곳에 산재해 있다. 이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는 2003년도에 『제주도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보고서』(제주도)로 작성되었지만, 전적지의 전체적인 역사성이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또한 지역별, 유형별 분류가 뚜렷하지 않고, 각 전적지별 구축 인력과 주둔 부대의 병과별 특성, 조선인-제주인 배속 현황 등이 검토된 바 없다.

먼저 제주도 내 전적지를 지역별로 분류해서 보면, 「제주도병력 기초배치요도」에 그려져 있는 대로, 제주도 전역을 서부[主陣地帶], 중부[攻勢準備陣地], 동부[遊擊陣地]로 크게 나누어서 볼 수 있다. 그런데 서부지역은 「제58군배비개건도 제주도」에 특별히 북부와 남부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제주도 서부 지역은 미군이 상륙할 가능성이 높은 주요 군사거점으로 상정되었기 때문에 일본군은 이 지역을 매우 중시하였고 다양한 군사시설을 집중시켰기 때문이다. 이 구분 방식에 따라서 제주도를 행정구역별로 나눠보면, 서북부는 애월읍·한림읍·한경면, 서남부는 대정읍·안덕면·중문면(구), 중부는 제주시·조천읍·서귀읍(구)·남원읍, 동부는 구좌읍·성산읍·표선면에 해당한다.

두 번째, 각 전적지를 유형별로 분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제58군배비개건도 제주도」를 보면, 본토결전 준비를 위해서 제주도에 4종류의 진지가 마련되었다. 위장진지(偽裝陣地), 전진거점(前進據點), 주저항진지(主抵抗陣地), 복곽진지(複郭陣地)이다. 위장진지는 적의 포 폭격의 흡수·교란 등 적의 진행 방향을 틀리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전진거점은 주저항진지의 전방에 두고 한 부대를 파견하여, 요점이 적에게 뺏기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적에게 전개방향을 틀리게 하여 주저항진지에 접근시키는 것을 어렵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주저항진지는 모든 진지의 골격에서 주력을 다하여 방어하는 진지대로서, 보병의 항전지대와 그 후방의 주력포병 및 그 설비로 이루어진다. 복곽진지는 주저항진지가 함락되었을 경우 최후의

저항거점으로 마련된 것이다.

전체적인 구도로 보았을 때, 제111사단과 제96사단은 구축병단으로서, 각각 서남부, 북부의 해안부에 배치되었다. 그리고 북서부에 설치된 제121사단과, 제58군 직할 포병대 등의 기동결전 병단이 당도하기까지, 한 걸음도 물러서는 일 없이 견디지 않으면 안 되었다.

현재까지 파악된 지역별·유형별 전적지 분포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북광진지(제58군 사령부)

채(砦, 토리데)부대, 제58군 사령부 : 어승생악

북광진지는 섬 안으로 깊숙이 한라산을 중심으로 설치되었다. 제58군의 사령부도 이 북광진지의 일각으로서 어승생악에 설치되었다. 어승생악 정상에는 콘크리트 요새가 남아 있다. 각 요새는 개폐식 지하통로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 북광진지와 내륙부의 진지를 잇듯이, 군용트럭이 통행할 수 있는 군사도로가 만들어져, '하치마키(머리띠) 도로'라 불렸다.

“어승생굴은 첫 번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도[입구]가 세 개. 또 여기 이 세 개 들어가면 이 가운데 가면은 또 이것이 통로가 짝 붙었어. 이편에 가면 큰 방이 있어. 요 방을 의지해가지고, 이거는 다 통로고, 요 방을 그걸, 예상해가지고 한거고. 또 여기로 들어가는 굴, 바로 이 도 발라 여기 이 통로에 가서 하면 위로 오름 꼭대기에 구멍을 내었어.”

- 고석돈(1924년생)의 증언, 2005년 10월 14일 탐라문화연구소 일제군사유적 조사팀의 증언 채록 인용

7월 1일, 2일에, 미야자키[宮崎] 제1부장이 스스로 제주도를 찾아와, 작전준비를 실제로 보았다. 미야자키 부장은, 「금후중점을 서남부에 집약하기를 요함」이라고 메모를 남겼다. 해안부로의 전진을 역설하고, 그 대가로 병력을 증강할 얘기도 나왔을 것이다.

7월 4일, 제58군 사령부 주력부대는 한라산 북서 5km, 산속 깊은 표고 1,169m의 어승생악으로 이전하는데, 7월 13일, 우메즈[梅津] 참모부장은 제17방면군 고즈키 요시오[上月良夫] 사령관에 대해, 「제주도에 있어서의 작전목적은 적의 공중, 해상 기지설정 기도를 분쇄하는 데 있고, 이를 위해 작전 초기에 있어 공세를 취하여 적을 격멸하도록 작전하는 것으로 한다」고 직접 명령, 우격다짐으로 해안결전으로 작전을 변경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그 후, 제58군은 참모본부의 의향대로, 해안부에 배치의 중점을 옮겨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 ▶ 서남부

<서귀포시> 볼래오름

<안덕면> 돌오름, 영아리오름, 왕이메(왕이악) 일대2)

▶ 서북부

<애월면> 천아오름

▶ 중부

<제주시> 어승생(어스쟁이·어승생악), 개오리오름(개월오름·견월악)

<조천읍> 검은오름(물차·흑악)

<서귀포시> 살오름(쌀오름·미악)

사단·여단사령부 및 예하부대

제111사단 사령부 및 예하부대(서남부)

●시(市, 이치)부대, 제111사단 사령부 : 당오름

●7월말 현재 시병단(제111사단)의 주력은 산방산과 넓게오름의 선에 배치하여 약 1개 연대를 기동예비대로 삼고, 군산 북측지구에 유리하게 전개하는 상황에 따라 특기동을 준비한다.

●독립산포병제20연대 및 박격제29대대 : 도너리오름 주변

●독립구포 제23대대의 주력(640명), 분진포 제1대대의 주력(600명), 야전중포병 제15연대의 주력(750명) : 단산-산방산-월라봉-군산 일대에 배치

●제111사단 예하 보병연대 주둔지

243연대 : 가마오름 일대, 244연대 : 이계오름 일대, 245연대 : 단산-산방산 일대  
일본군은 미군부대가 상륙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을 제주도의 서남부 지역으로 판단하고 가장 정예주력부대인 관동군 제111사단 1만 2천명을 배치하였다. 사단 사령부는 해안부에서 약 10km 북으로 올라온 안덕면 동광리 산속으로, 현재의 이시돌 목장 남동쪽이며 당오름과 원물오름 부근에 자리하였다. 서남부 지역에는 이미 제96사단이 주둔하고 있다가 제111사단이 이동해 오면서 제주도 북부지역의 삼익악 일대로 옮겨갔기 때문에, 1945년 4월 이후부터는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제주도 내 여타 권역에 비해서 참호 및 진지갱도의 구축 공정이 해방 전에 완결된 곳이 많고 지금도 온전한 형태로 남아 있는 유적이 많다.

● 위장진지

<대정읍> 가시오름(가스름), 셋알오름

<서귀포시-중문> 모라이(모라이악)

●전진거점

<대정읍> 절울이(송악산), 모슬개오름(모슬봉)

<안덕면> 남송이오름(남송악)

<한경면> 당오름(당산봉)

●주저항진지

<안덕면> 당오름(당악), 원물오름(원수악), 도너리오름(돌오름·도을악), 바굼지오름(단산), 산방산(굴산), 다래오름(월라봉), 군메(굴메오름·군산), 논오름(논악), 죽은대비오름(조근대비악), 거린오름(북오름), 넓게오름(광챙이오름·광해악)

<서귀포시-중문> 구산봉(개오름)

<한경면> 저지오름(새오름·저지악), 이계오름(이계악), 굽은오름, 가마오름(부악)

<한림읍> 정물오름(정수악)

제121사단 사령부 및 예하부대(서북부)

●영광(榮光, 에이코)부대, 제121사단 사령부 : 발이오름

●제12포병사령부 : 다래악

●7월 말 현재 榮光병단(제121사단) 주력은 금악, 바리메, 금덕리 부근에 기동 준비를 시키며, 일부는 북서부 연안 외곽에 배치시켜 경계를 맡긴다.

●제121사단 예하 보병연대 주둔지

262연대 : 노꼬메큰오름 일대, 263연대 : 금악 일대, 264연대 : 금덕 일대

제주도 서북부에는, 제121사단 1만 3천명 등이 배치되었다. 여기에 배치된 부대는, 이 지역에서 싸우는 것에 주안이 놓인 것이 아니고, 기동 결전병단이라 생각해도 된다. 다시 말해, 서남부에서 전투가 일어나도, 중앙북부에서 일어나도 무관하도록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121사단의 전투 사령부는 바리메에 설치되고, 제121사단 지휘하의 제264연대 사령부가 그 동쪽 2km에 있는 노꼬메큰오름에 설치되었다. 제121사단의 주력은 패전이 가까울 때에는, 애월읍 소길리와 금덕리 주변에 집결해 있었다. 또, 제12포병 사령부가 애월읍 어도리 다래오름에 설치되어 있었다. 패전시에 배치 준비가 진행되고 있던 제120사단도 이 서북부에 설치하여, 기동결전병단으로 할 예정이었다. 지금 금악 주변에 주력을 두려고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장진지

<애월읍> 어도오름(도노미·어도봉), 고내오름(고내봉)

<한림읍> 정월오름(정월악)

●전진거점

<애월읍> 검은덕오름(금덕오름), 극락오름

<한림읍> 느지리오름(망오름), 금오름(검은오름, 금악)

●주저항진지

<애월읍> 바리메(바리오름), 작은바리메, 노꼬메큰오름, 다래오름, 새별오름, 이달오름(이달산), 괴오름(괴미오름)

제96사단 사령부 및 예하부대(중부)

●현(玄, 겐)부대, 제96사단 사령부 : 민전동[제주시 오등동]

●7월 말 현재 玄병단(제96사단) 주력은 제주동서비행장 가까이 추진하여 해당 비행장을 확보함과 함께 해당 방면에 대한 군 공세를 지탱하게 한다.

●제96사단 예하 보병연대 주둔지

292연대 : 삼의악 일대, 293연대 : 명도암 일대, 294연대 : 민오름 일대

제주도 중앙북부로서 제주시를 중심으로 한 지대이고, 제주 동 및 서비행장의 확보가 주안이 되었다. 여기에는 제96사단을 중심으로 1만 명 가까운 병사가 배치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제96사단의 사령부는 제주 남방 약 8km의 만전동(敏田洞, 제주시 오등동)에 위치했고, 산천단·삼의악 일대에 연대본부 등이 자리잡았다.

중앙북부

●위장진지

<제주시> 도들오름(도두봉), 원당오름(원당봉)  
<서귀포시> 고근산(호근산), 삼매봉, 영천오름(영천악), 자배오름(망오름)

●전진거점

<제주시> 사라오름(사라봉), 베리오름(별도악·화북봉)  
<표선면> 붉은오름(적악봉)  
<남원읍> 동수악

●주저항진지

<제주시> 새미오름(삼의악), 민오름(민악), 남짓은오름(남짓은오름), 오드싱오름(오등봉), 노리손이(노리생이·노리오름), 안새미오름(명도오름명도악), 거친오름  
<조천읍> 거문오름(물찻·흑악)  
<남원읍> 물오름(수악), 이승이오름(이승악)

제108여단 사령부 및 예하부대(동부)

●취(翠, 스이)부대, 제108여단 사령부 : 검은오름 일대

●7월 말 현재 독립혼성 제108여단 주력(5대대)을 서부지구 청수부락 부근에 배치하여 공세를 지탱하게 한다. 제주도 동부 및 남부지구에는 각 1대대를 배치하여 교래리비행장의 직접 엄호 및 상륙하는 적군의 행동을 방해하는 임무를 갖는다.

일본 방위청에 소장된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 동부에 배치된 부대는 제108여단으로 주력 약 4천 명이 주둔하고 있었다. 제주도 서부지역으로 미군이 상륙한다는 것을 예상하고 위장진지로 삼았다가 최종 유격전을 치를 것으로 상정한 부대였다. 제108여단 전투사령부는 구좌읍 송당리와 조천읍 교래리 사이 산악지대인 이 곳 검은오름 일대에 배치됐던 것이다. 이 병력은 얼마 없어서 교래리에 있던 비행장을 방어하기 위한 1개 대대 약 1천 명을 남겨두고 주력을 제주도 서부 한경면 청수리 가마오름 일대로 이동시켰다.

검은오름 일대에 주둔한 일본군 병력 중에는 내륙지방에서 직접 들어온 기마병이 섞여 있었다. 전쟁이 끝나자 일본군이 소지한 무기들은 전부 수거하여 함덕리 앞바다에 던져버렸고, 말들은 마을 주민들이 활용하였다. 주민들은 일본군이 버리고 간 철바퀴가 달린 수레를 가져다 고쳐서 사용하였는데, 이를 ‘쇠구루마’라고 불렀다. 리어카가 나오기 전 제주도민들에게는 매우 긴요한 생활 수단이 되었다.

●위장진지

<구좌읍> 괴살매(묘산악), 둔지오름(둔지봉), 다랑쉬(일랑봉), 윤드리오름(은월봉)  
<성산읍> 말미오름(두산봉), 큰물뫼(대수산봉), 독자봉  
<표선면> 달산봉(망오름), 가세오름, 큰사슴이(대록산), 영주산

●전진거점

우도, <구좌읍> 민오름

●주저항진지

<조천읍> 검은오름(서검은이), 부대오름, 부소오름  
<구좌읍> 체오름, 거친오름, 밭돌오름, 안돌오름

## 제5장 한라산의 4·3유적

### 1 한라산의 4·3유적

#### 들어가며

4·3사건은 사건의 범위가 제주도 전 지역에 걸쳐 일어났고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때문에 그 피해는 섬 곳곳에서 발생했고 비극적인 결과로 마무리되었다. 피해양상 또한 좌우 혹은 무장대와 토벌대, 토벌대와 민간인, 무장대와 민간인 등 상대를 가리지 않고 벌어졌다. 즉, 1948년 4월 3일과 5·10단독선거를 무산시키기 위한 무장대의 경찰 및 우익인사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게까지 가한 공격으로 인한 희생은 물론이고 진압작전 국면에서 벌어진 형용키 어려운 제주도 민간인들의 희생은 전대미문의 것이었다.

‘한라산의 4·3유적’이라면 우선 그 범위가 방대하다. 한라산 거의 모든 곳이 4·3유적이 될 수 있다.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 모를 수많은 무장대의 뼈가 묻힌 곳도 한라산 자락이고, 고단한 피난 생활 속에 기아로 죽어간 노인들과 아이들도 한라산을 벗 삼고 있을 것이다. 한라산 주변은 이렇듯 무장대의 활동근거지가 되었던 곳도 있고, 그들이 훈련을 했음직한 곳도 있다. 또, 중산간 초토화 작전 및 토벌대의 무자비한 횡포를 피해 입산했던 주민들의 피신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군경의 진압작전에 따라 설치됐던 경찰이나 군의 주둔소도 한라산 자락에 있었다. 특히 한라산 주변에 산재한 수많은 오름은 무장대나 피난주민 혹은 군경토벌대에게도 애환이 서린 곳이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한라산의 4·3유적’은 60년 가까이 흐른 장구한 세월 그리고 터놓고 얘기할 수 없었던 침묵의 세월이 반세기 넘어 지속됨에 따른 망각과 무관심에 의해 훼손되고 방치되었다. 제주4·3연구소가 2003년 한 해 동안 조사를 거쳐 발행한 『제주4·3유적 I·II』에 따르면 제주도에 산재한 4·3유적은 잃어버린 마을 108개소, 성 64개소, 은신처 35개소, 희생터 154개소, 수용소 18개소, 주둔지 83개소, 희생자집단묘지 6개소, 비석 41기, 역사현장 61개소, 기타 27개소 등 597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조사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한정된 조사기간 및 예산 때문에 제주도 전지역 172개의 마을 중 120개의 마을만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했다. 때문에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나머지 50여 개 마을까지 조사한다면 제주도 곳곳에 존재하는 더욱 많은 유적이 드러날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자료를 토대로 무장대 및 주민은신처 그리고 경찰토벌대의 주둔소를 중심으로 ‘한라산의 4·3유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 무장대 훈련장

무장대 관련 유적을 찾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오랜 세월 탓도 있지만, 그것을 증언해 줄 관련 증언자가 없다는 점이다. 당시 무장대로 활동했던 사람은 살아남기 어려웠고, 설령 귀순하거나 1950년대에 자수 혹은 검거되어 목숨을 건진 사람들도 50여 년 쉬쉬하며 살다 유명을 달리하거나 아직도 입을 다물고 있는 실정이다. 4·3의 제반 사료가 지극히 제한적인 데다가 특히 무장대 관련 사료가 희박한데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주한미보병 제6사단 정보일지 1948년 4월 22일~23일(№917)의 보고에는 당시 폭도들의 집결



지를 ‘애월면 셋별오름, 애월면 발이오름, 구좌면 거문오름’으로 파악하고 있다.2) 또, 국방경비대 제9연대 고문관 찰스 웨슬로스키(Charles L. Wesolowsky)의 1948년 7월 21일의 보고에 의하면 ‘약 150여 명의 폭도들이 어승생악 부근에서 훈련을 하고 있고, 폭도들 대다수가 무장하고 있는 노루악의 소규모 폭도들과 연락하고 있다는 것을 방첩대로부터 보고 받음’이라고 적고 있다.3)

전적으로 믿을 수 없는 미군자료지만 4·3발발 초기의 정보보고이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별오름은 삼별초의 군사훈련장으로 또, 최후까지 버티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무장대의 초기 훈련장으로 쓰였을 개연성이 크다. 셋별오름 훈련에 대한 기록은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다.

1948년 접어들자 애월면 어도리 근처의 ‘셋별오름’ 일대에서 청장년 100여 명이 훈련을 받았다. 경찰이 ‘셋별오름’ 일대에서 이들을 발견 추적하여 1명을 체포했으나 나머지는 한라산 속으로 도주하여 자연동굴을 거점으로 무장근거지를 삼았다.4)

1948년 3월 20일경 셋별오름에서 67명이 참가해 합숙훈련을 했다.5)

또, 어승생 인근에도 너른 초지를 이룬 분지가 있다. 특히 어승생은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군단사령부가 미로처럼 진지동굴을 구축해 최후의 거점으로 삼으려 했었던 곳이다. 주한미육군사령부(HQ USAFIK) 일일정보보고(G-2)의 1948년 6월 15일 보고6)에 ‘어승생악 인근에서 폭도들의 보급소를 발견’했다고 보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4·3 발발 초기 남로당제주도당의 군사부가 어승생오름을 근거지로 일본군의 잔여 무기를 다수 확보하고 인근에서 훈련을 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밖에 무장대의 훈련장으로 쓰였다고 추정되는 곳은 남원읍 신례리의 오림반과 제주시 봉개동의 물장오리·테역장오리 인근이다.

오림반은 4·3 발발 초기 무장대의 훈련장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이 곳은 한라산의 천연 밀림 속에 자리한 약 3천여 평의 초지이다. 주변에는 계곡과 동수악, 논고악, 이승이오름 등이 이 너른 분지를 감싸고 있어 더없이 좋은 요새였다. 5림반은 일제강점기 제주도 산림을 관리하기 위해 남제주군(지금의 서귀포시 포함) 지역의 산림구역을 41개 구역으로 나누었는데,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구역이었다.7)

물장오리·테역장오리 또한 천연적인 요새와 초지로 형성된 너른 분지를 갖고 있는 곳이다. 설문대 할망이 빠져 죽었다는 전설이 숨어 있는 물장오리에는 전설에 걸맞는 깊은 분화구와 산정호수가 있다. 이 물장오리와 테역장오리 사이에 있는 너른 초지를 중심으로 무장대의 훈련장으로 쓰였다고 전해진다. 주한미육군사령부 정보일지의 1949년 3월 보고에도 훈련장으로 물장오리를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물장오리에는 남로당제주도당 본부가 한동안 있었다고 알려졌다.

이 밖에 표선면의 녹산장도 거론되며, 한경면 청수리와 대정읍 무릉리로 이어지는 ‘한수기곶’ 등지에서 죽창이나 철창을 준비했다8)는 기록도 보인다.

‘한수기곶’은 대정읍 무릉리 인향동 동북쪽에 위치한 제주도에서 몇 안 되는 곶자왈 지대이다. 지금은 온통 자왈이 우거져 들어가기 힘들지만 이 곳에는 굴이 많아 4·3 당시 대정면과 한경면 주민들 중 토벌대가 무서워 소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은신처로 이용하기도 했다. 또한 이 곳은 한때 무장대의 근거지로 이용되기도 했다. 인향동 마을에 서면 ‘한수기곶’ 너머로 멀리

남송악이 보인다.9)

무장대 근거지

역사유적으로서 4·3 당시 무장대 근거지를 찾는 것 또한 쉽지 않다. 무장대가 일정한 지역에 머물며 4·3의 모든 시기를 버틴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남로당제주도당의 근거지는 일반적으로 해안마을의 민가를 여러 곳 전전하다가 1948년 4·3 발발을 전후로 하여 중산간 마을로 옮겼고, 토벌이 강화되면서 날이 갈수록 더욱 깊숙한 곳으로 옮겨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무장대가 거의 궤멸된 1949년 3월 이후의 잔여세력들은 이렇다 할 진지를 갖추지도 못하고 천연동굴이나 궤 그리고 일본군진지동굴 등 이곳저곳을 전전했을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4·3 당시 무장대는 어느 일정한 지역 혹은 일정한 장소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을 할 수 없었다.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이를 파악한다는 것은 어렵다. 먼저 『제주민중항쟁』에서 『좌익사건실록 I』과 『제주도지 上』을 토대로 작성한 4·3발발 전후 ‘자위대의 주요 거점 지역’을 살펴보자.

<참고> 자위대의 주요 거점지역10)

대정지구-세미곶, 남송악(南松岳), 군산, 다래오름, 산방산 등

한림·애월지구-셋별오름, 발이매오름, 노루오름, 정물오름, 눈오름 등

제주읍·조천지구-관음사, 산천단, 검은오름, 개미목속밭, 천문오름, 바늘오름, 어승생오름 등

중문지구-모라리오름, 녹화오름, 법정오름

남원지구-남이악(南伊岳), 민오름

성산·표선지구-서월악(西月岳), 녹산봉, 영주산, 백약오름 등

또, 주한미육군사령부 정보일지의 1949년 3월 30~4월 1일 현장보고에는 반도 부대의 위치가 ‘영림소(교래리 검은오름 주변, 반도 제12군단 100여 명), 성판악(반도 제8군단 100여 명), 평지(반도 제23군단 12명), 돌오름(반도제3군단 30명)’이며, 훈련소는 물장오리 인근에 위치하고 도당사령부는 제주읍 삼의악 주변이라 파악하고 있다.11)

이에 미루어 무장대는 전세가 유리할 때는 보급 및 연락이 수월한 중산간 일대의 마을이나 인근의 천연동굴 혹은 일본군 진지동굴 등을 근거지로 삼고, 전세가 불리해지고 잔여세력이 미미해져 생명연장에 급급하던 시절에는 깊은 산중의 이곳 저곳을 매일처럼 옮겨 다니며 토벌대의 습격을 벗어나고자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주민피신처

1948년 11월 이후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 주민들은 토벌대의 초토화작전에 따라 피난길에 나서야 했다. 토벌대의 명령에 따라 해변 마을로 내려간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주민들이 마을 인근의 야산으로 피난지를 택했다. 이는 토벌대의 명령이 도달하지 못했거나, 토벌대가 느닷없이 들이닥쳐 무조건 불을 지르는 통에 변변한 살림살이 하나 건지지 못한 채 우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산으로 도피’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또, 더러는 가을걷이한 곡식과 우마(牛馬)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마을과 가까운 산을 택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해안마을로 피난 갔던 주민들도 중산간 마을 주민들에 대한 총살이 계속 이어지자 하나 둘 다시 피난입산의 길을 택하기도 했다.

이렇게 산으로 피난지를 정한 주민들은 초기에는 불타버린 집을 의지해 움막을 지어 생활하다가 토벌이 강화되자 마을 인근 야산으로 밀려나고, 1949년 1~2월 경에는 한라산 가까운 깊숙한 산간으로 쫓겨났다. 열안지오름 인근 ‘비남도’, ‘가미왓’, 관음사 인근, 바농오름 일대, 대나오름과 거친오름 일대의 ‘머흘뿔’, ‘못밭’, ‘셋머흘’, 명도암오름, 물장오리, 물영아리 오름 일대, ‘한수기곶’, ‘뒷곶’, ‘고냉이든밭’ 등 한라산을 포함한 인근의 모든 산야가 주민피신처였다.12)

#### 바농오름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 산108번지 일대의 바농오름은 조천면 중산간 일대의 마을이 초토화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숨어 살던 곳이다. 또한 무장대도 일시적으로 주둔했던 곳이다. 바농오름엔 대흘리, 와흘리 등 산간지역 주민만 아니라 조천리 등의 해안마을 주민들도 은신했었다.

조천리 양천동 출신인 신태호(남, 2003년 74세) 씨는 “불 타버린 양천동 집 주변에서 은신생활하다 토벌이 심해지자 바농오름 서쪽으로 옮겨 피난생활을 했다. 토벌대가 들이닥치면 산속으로 숨고 토벌대가 돌아가면 다시 돌아오는 생활의 연속이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듬해 봄 함덕 대대본부로 귀순해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그의 부모와 이름도 모르는 어린 두 동생은 도피자가족이란 명분으로 1949년 1월 6일 조천지서 앞밭에서 총살당했다.

바농오름은 표고 552m, 비고 약 130m의 웅골찬 오름이다. 등산객이 많이 찾고 있는 바농오름 서쪽 기슭에는 당시 피난민들이 움막을 지었던 흔적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13)

#### 북받친밭(‘시안모루’, ‘이덕구산전’)

1948년 11월 20일 제주읍 봉개리가 초토화되자 주민들은 인근 야산의 궤나 동굴 등지에 피신하게 된다. 낮에는 들에서 밤에는 불타버린 집을 의지해서 움막을 짓고 살았다. 그러나 1949년 2월 4일 동부8리 대토벌을 계기로 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하고 봉개리에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주민들은 당장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더욱 깊은 산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주민들은 은신하기 좋은 곳을 찾아 해매다 거친오름 뒤편과 대나오름 서남쪽의 숲속에 임시 움막을 짓고 생활했다. 하지만 토벌이 강화될수록 피난주민들은 더욱 산 깊숙이 들어갔는데, ‘시안모루’, ‘밤남도왓’ 등으로 불리는 이 곳까지 와서 은신생활을 했었다.

이 곳은 난리를 피해 숨어들어온 주민들이 집단 거주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피난 주민들이 귀순한 1949년 봄 이후에는 무장대사령부인 이덕구부대가 잠시 주둔하기도 했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 곳 일대를 ‘이덕구산전(山田)’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곳엔 당시 움막을 지었던 흔적이 비교적 뚜렷이 남아 있고 음식을 해 먹었던 무쇠솥과 그릇들도 간혹 보인다.14)

#### 토벌대 주둔지

한라산의 4·3유적 중 토벌대 주둔지는 대부분 경찰주둔지이다. 제주도경찰국은 1952년 11월 1일, ‘제100전투경찰사령부’(100사령부)를 발족하고 산하에 4개 대대를 두었다. 100사령부 산하의 101대대는 성읍, 102대대는 성산포, 103대대는 녹하지오름, 105대대는 다래오름에 주둔했었다. 그리고 이들 대대의 경비초소 및 주둔지를 25개소 두어 한라산을 빙 둘러싸는 모양을 갖추었는데 그 흔적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다.

### 알오름주둔소

서귀포시 중문동에 위치한 알오름은 녹하지오름 남쪽 바로 밑에 있는 자그마한 오름을 말한다. ‘알오름’이란 지명은 오름의 위치가 녹하지 밑에 있다고 하여 알오름이라고 불려졌다고도 하고, 동산이 둥그스름한 형으로 알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다고도 한다.

이 알오름 정상에는 4·3 당시 설치됐던 주둔소 흔적이 아주 잘 남아 있다. 이 주둔소는 곽담으로 단단하게 쌓아졌다. 축성된 시기는 정확치 않다. 증언에 의하면 100사령부 소속의 경찰 토벌대가 주둔했다 한다. 이 곳은 동북쪽으로 거린사슴과 법정악, 북서쪽으로 돌오름과 영아리 오름, 서쪽으로 병악, 남서쪽으로 모라이악과 우보악이 잘 관측되는 토벌작전의 요충지였다.

한편, 1950년대 초반, 잔여 무장대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토벌활동에 참가한 경찰들은 산 속을 헤매며 숨막히는 생활을 했다. 당시 경찰의 몸에는 이가 복적였고, 또한 쉼없는 냄새 때문에 경찰과 무장대가 구별이 안 될 정도였다.

알오름주둔소는 레이크힐스 골프장 안 해발 620.5m 지점의 녹하지오름 남쪽, 속칭 ‘알오름’ 정상부에 위치해 있다. 이 주둔소에 대해서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가 2002년 레이크힐스 골프장 공사 당시 문화재 지표조사 의뢰를 받고 조사한 후, “이 곳은 4·3성으로 보존이 요청된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알오름주둔소 성에는 회곽도가 설치되어 있고, 모퉁이마다 망루(望樓)가 세워져 있었다. 현재 길이는 가로, 세로 각각 40여m, 높이 1~4m, 폭은 3m 정도 남아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서쪽면은 현재 훨씬 떨어진 채 성담의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다. 아마 인근 목장에서 울타리를 쌓으면서 성의 돌들을 이용하며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 성 밖에는 길이 1.5m, 폭 1m 가량의 해자가 있다. 현재 그 주변에 가시덤불이 무성히 자라고 있는데, 그 때에도 가시나무로 해자를 덮어 위장하지 않았나 싶다.

한편 성밖 동남쪽에는 ‘보초막’ 형태의 돌담이 둘러쳐진 움막 흔적이 남아 있다. 그 용도는 확인할 수 없으나 화장실로 사용했던 것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15)

### 수악주둔소

남제주군 남원읍 신례리 산 2-1번지 일대에 위치한 수악주둔소는 수악의 동남쪽, 신례천과 하례천의 계곡 사이에 있는 동산에 위치해 있다.

주둔소는 내성과 외성으로 구분해서 쌓았으며, 외성은 회곽을 이루고 있다. 회곽의 바깥쪽 높이는 3.5m 정도였으며, 내벽은 2m 가량 되었다. 주둔소의 내부 면적은 대략 250평 정도이다.

이 주둔소는 주변을 조망하기에 아주 적지라고 마을 주민들은 설명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신례리와 하례리, 효돈 쪽까지 깨끗하게 조망할 수 있었으며, 동쪽으로는 한남리경까지 한 눈에 들어온다. 서쪽으로는 수악의 주변과 북쪽으로는 물오름 주변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었다.

이 수악주둔소를 축성할 때는 인근의 신례리와 하례리는 물론 서귀포시 상호동 사람들까지 동원되었다고 한다. 성을 쌓고 나서 주둔소까지 물자를 나르는 지원사업도 대부분 가까운 신례리 사람들이 맡아서 했다.

현재 수악주둔소는 사람들의 출입이 없었던 까닭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그 형태가 남아 있다. 외성과 내성의 전체적인 둘레는 물론이고, 외성의 회곽과 높이 등도 당시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또한 내부의 모습도 건물이 있었던 곳과 난방을 했던 아궁이의 모습 등이 남아 있다. 화장실 터도 확인할 수 있으며 외성에서 내성으로 들어오는 올렛목과 내성에서 건물로 들어오는 길목의 흔적들도 밀돌로나마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16)

### 시오름주둔소

서귀포시 서호동 산 1번지 일대에 위치한 시오름주둔소는 서귀포시 서호동 고군산과 시오름의 중간쯤 목장 지역 안에 있는 돌로 쌓은 조그만 규모의 성이다. 경찰주둔소로 1950년대 초반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지역주민들과 무장대와의 연결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요 길목마다 경찰토벌대의 주둔소 25개소가 설치되었다.

삼각형 모양의 시오름주둔소는 한 면의 길이 40여m, 전체 둘레 120m 정도이며, 높이는 약 3m, 폭은 1m 정도로 단단하게 쌓여 있다. 성벽에는 군데군데 총구를 들이 댈 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다. 또한 주둔소 안에는 당시 토벌대와 민간인 협조원이 잠을 잤던 숙소터도 큰 규모로 남아 있다. 성담의 흔적은 잘 남아 있으나 소나무와 잡풀로 우거져 있어 찾기가 쉽지 않다.17)

### 관음사주둔지 및 그 인근

이 밖에 무장대의 근거지이기도 하고 피난주민들의 집단피난지이며 최종적으로는 토벌대의 전진기지였던 곳도 많다. 그 대표적인 곳이 관음사와 그 인근이다.

1949년 3월부터 잔여 무장대 토벌을 위한 2연대의 작전이 강화되면서 2연대 2대대 병력이 관음사 인근에 주둔했다. 2연대는 제주도의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토벌의 근거지로 삼았는데, 이곳 관음사 주둔지 외에도 서귀포 수악교 인근에 1대대를, 교래리와 산굼부리 사이에 3대대를 배치하여 방어선을 구축했다. 이 곳 관음사 일대는 4·3발발 당시부터 무장대의 주요 길목이었고, 한 때 무장대의 본거지가 되었던 어승생 진지와 가까운 작전상 주요 지역이었기 때문에 토벌대가 이 곳에 주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음사 경내 5만여 평의 밀림지대에 중대와 소대급 숙영지 27곳이 당시의 흔적을 간직한 채 남아 있다. 규모가 큰 중대급 숙영지는 가로 세로 25m 규모이고 그보다 작은 소대급 숙영지도 있으며, 3~4명이 잠복할 수 있는 초소도 여러 군데 남아 있다. 또, 관음사 뒷산인 아미봉(해발 650m) 정상에도 숙영지와 초소가 비교적 훼손이 안 된 상태로 남아 있다. 하지만 관음사 입구의 초소는 관음사 기반정비를 하면서 일부 훼손한 것을 복원한 것이다.18)

한편 군대가 장악하기 이전에 관음사 주변에는 피난주민들이 대거 몰려와 집단 기거하기도 했다. 주로 아라리 주민들이 많이 숨어들었다. 이들 중 토벌대의 습격에 희생된 이들도 많았으나 많은 주민들은 한 겨울을 추위와 배고픔에 떨다 1949년 3월 이후 토벌대의 귀순권고 뼈라를 보고 하나 둘 귀순했다. 이 곳 관음사 군주둔지로 귀순한 주민들도 많았다.

또, 관음사는 한 때 무장대의 근거지가 되기도 했다. 1949년 2월 12일 토벌대에 의해 불태워지기 직전까지 이 곳에 머물렀던 중원스님은 “이덕구를 한 번 봤다. 무장대원 여럿이 왔었는데, 누군가가 저 사람이 이덕구라고 말해줬다. 법당이 아닌 별관에 기거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정확히 모르나 며칠 동안 머문 것 같다.”고 했다. 또, 그는 “관음사가 토벌대에 의해 불타자 하늘에서 천둥벼락이 몰아치는 소리가 들렸다.”고도 증언했다.19)

### 잃어버린 마을 영남동

해발 500m 고지에 위치한 영남동은 4·3 당시 리 단위의 독립된 마을이었다. 영남동은 영주산(瀛州山, 한라산) 남쪽 마을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한라산 남쪽 밀림이 끝나는 지경에 고즈넉이 자리하고 있다. 16가호의 주민들이 오순도순 모여 살던 영남리에는 한문을 가르치던

서당도 있었다. 주민들은 옛부터 화전을 일궈 보리나 고구마를 재배했고, 숲을 굽거나 사냥하며 살았다.

4·3은 평화로운 영남리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말았다. 1948년 11월 18일 토벌대가 초토화작전을 벌이며 마을에 난입했다. 토벌대는 닥치는 대로 총을 쏘며 주민들을 학살하고 불을 질렀다. 주민들 대다수는 이런 토벌대의 만행에 해안마을로 내려갈 생각은 못하고 금방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을 위 어점이악 주변의 밀림과 자연동굴에 몸을 숨기며 살았다. 그러나 그 겨울, 토벌대는 눈 덮인 산야를 헤매는 주민들이 발견되면 즉시 총살하고 체포했다. 영남리에서는 4·3으로 92명의 주민 중 50여 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다수 주민들이 희생당한 마을은 그 후에도 복구되지 못한 채 잃어버린 마을로 남아 있다.<sup>20)</sup>

현재 영남동의 마을터에는 잃어버린 마을 표석이 세워져 있다.

여기는 4·3의 와중인 1848년 11월 20일경 마을이 전소되어 잃어버린 서귀포시 영남동 마을터이다. 이 마을에는 19세기 중반 무렵 생활이 어려웠던 제주도 각지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화전을 일구며 살아가기 시작한 이래 호수가 많을 때는 50여 호가 넘기도 했다. 주민들은 감자, 메밀, 콩, 산디(발벼)를 주식으로 삼았고 목축을 하였으며 마을에는 서당이 있어 학동들의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재수의 항쟁 등 여러 항쟁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고, 1918년 법정사 항일독립운동에 참여한 주민 6명이 일제에 구속되기도 하였다. 그 중 옥사한 김두삼(당 25세)은 독립 유공자로 추서되어 마을의 명예를 높여주고 있다.

4·3사건은 이 마을을 피해가지 않았다. 16가호의 주민 90여 명 중 피신하지 못한 50여 명이 희생되는 불운을 맞았다. 주위로 눈을 돌려 화전같이 흔적이 뚜렷한 층계밭을 보라. 옛 우물터를 찾아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시며 영남마을 주민들의 아팠던 삶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라. 이 곳에 밝은 햇살이 영원히 머물기를 바라며 이 표석을 세운다.

2001년 4월 3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

제주도지사

한라산개방 평화기념비(漢拏山開放 平和紀念碑)

한라산 정상에 세워진 이 비석은 4·3의 종결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비석이다. 사실상 궤멸단계에 들어선 잔여 무장대를 토벌하기 위해 제주도경찰국은 1952년 11월, 100사령부를 창설하고 막바지 토벌에 임했다. 이후 1953년 4월에는 복구되지 못한 마을의 소개민에 대한 마을 입주가 시작되었고, 1954년 9월 21일에는 한라산 입산 금지가 전면적으로 해제됐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한라산 백록담 주위 북쪽 낮은 곳에 기념비를 세운 것이다.<sup>21)</sup>

비문

<전면>

漢拏山開放平和紀念碑

<후면>

永遠히 빛나라. 濟州道 警察局長 辛相默씨는 4·3事件으로 8年 間 封鎖 되었든 漢拏寶庫를 甲午年 9月21日 開放하였으니 오즉 英雄的 處事가 아니리오. 다만 奎道는 寄與된 自由와

福音에 感謝할지어다.

神選部隊長 許昌恂記

東和林業社長 李光哲 其立

檀紀 4288年 9月 21日

한편 당시 2연대 1대대 탐라대 소속이었던 이윤하사는 자신의 수기인 『진중일기』에 1949년 7월 23일 백록담 서쪽 봉우리에 평정기념비(平定紀念碑)를 세웠다고 기록하며 그 사진까지 수록했다. 하지만 지금은 비석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sup>22)</sup>

나오며

‘한라산의 4·3유적’은 아직 많은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증언 및 자료의 부족에도 기인하지만 찾으려는 노력이 부족함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오히려 사람의 발길이 안 미치고,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에 유적이 고스란히 있을 수 있다. 뜻을 둔 이들의 노력에 의해 묻혀진 ‘한라산의 4·3유적’이 새롭게 드러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제1장

#### 사서류

- 『高麗史』
- 『高麗史節要』
- 『南溟小乘』
- 『南통錄』
- 『南宦博物』
- 『世宗實錄地理志』
- 『新增東國輿地勝覽』
- 『臥遊錄』
- 『朝鮮王朝實錄』
- 『耽羅錄』
- 『耽羅志』

#### 일반저서 및 논문류

- 강만익, 2001, 『조선시대 官設牧場의 景觀 연구』, 제주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정식, 2002, 『濟州島 당신본풀이의 傳承과 變異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정효, 2003, 『한라산』, 돌베개.
- 고광민, 1998, 「제주도 마소치기의 기술과 문화」 『제주도』 102, 제주도.
- 김일우, 2000, 『高麗時代 耽羅史 研究』, 신서원.
- 박호원, 1997, 『韓國 共同體 信仰의 歷史的 研究- 洞祭의 형성 및 전승과 관련하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창명, 1998,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 제주대학교출판부.
- 이청규, 1995, 『濟州島 考古學 研究』, 학연문화사.
- 장주근, 1989, 「濟州島 巫俗과 神話」 『濟州島研究』 6, 제주도연구회.
- 제주도, 1994, 『韓國의 靈山 漢拏山』, 제주도.
- 제주문화원, 2000, 『옛사람들의 登漢拏山記』, 제주문화원.
- 泉靖一, 1966, 『濟州島』, 東京大學出版部.
- 현용준, 1986, 『제주도 무속 연구』, 서문당.
- 현용준, 1992,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집문당.
- 현용준, 1996, 『제주도 전설』, 서문당.
- 현용준·김영돈, 1980, 『韓國口碑文學大系』 9-1·2·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제2장

#### 사서류



『新增東國輿地勝覽』  
 『南통錄』  
 『新增東國輿地勝覽』  
 『耽羅志』  
 『新增東國輿地勝覽』  
 『耽羅志』  
 『太宗實錄』  
 『高麗圖經』  
 『高麗史』  
 『元高麗紀事』  
 『元史』  
 『止浦集』  
 『新增東國輿地勝覽』  
 『耽羅志』  
 『太宗實錄』

#### 일반저서 및 논문류

- 강창화, 1996, 「'修正禪師大夫金?光'銘文瓦」『尊者庵址』, 제주대학교박물관.
- 강창화·박용범, 1996, 「濟州道 出土 高麗後記 銘文瓦」『尊者庵址』, 제주대학교박물관.
- 고창석·강창화 외, 1996, 「존자암의 역사적 배경」『尊者庵址』, 제주대학교박물관.
- 강문규, 2003, 「한라산생태학술대탐사 - 고문헌에 나타난 수행굴」, 한라일보, 2001년 12월 5일자, 제20면.
- 康昌和 외, 2000, 『水精寺址』 제주대학교박물관 발굴조사보고서.
- 제주문화예술훈재단 문화재연구소, 2005, 『불탑사 5층석탑(옛 원당사지) 매장문화재발굴조사 간략보고서』.
- 康昌和 외, 2000, 『水精寺址』, 제주대학교박물관 발굴조사보고서.
- 명지대학교박물관, 1983, 『法華寺址發掘調査報告書』.
- 몽고과학원, 1965, 『몽골왕궁보고서』.
- 文明大, 1985, 『地方文化財 濟州法華寺 復元을 위한 學術세미나 요지』, 서귀포시·법화사복원추진위원회.
- 潘?芳, 1999, 『中國古錢辭典』, 青葛出版社.
- 제주대학교박물관·서귀포시, 1992, 『法華寺址』, 제주대학교박물관조사보고 제12집.
- 제주대학교박물관·서귀포시, 1997, 『法華寺址』, 제주대학교박물관조사보고 제19집.
- 韓榮國, 1994, 「濟州道の 名勝과 古蹟」『濟州島史研究』, 제주도사연구회.
- 강창화, 2000, 「濟州 法華寺址의 考古學的 研究」『濟州島史研究』 9, 제주도사연구회.
- 高柄翊, 1973, 「元과의 關係의 變遷」『한국사』 7, 국사편찬위원회.
- 고창석, 1984, 「麗·元과 耽羅와의 관계」『제주대학논문집』 17.
- 金光哲, 1985, 「高麗 忠烈王代 政治勢力의 動向?忠烈王初期 政治勢力의 變化를 中心으로?」『昌原大學論文集』 7-1.
- 金東柱, 1999, 「濟州 法華寺의 創建과 그 變遷」『耽羅文化』20,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金庠基, 1948, 「三別抄와 그의 亂에 對하여」 『東方文化交流史論攷』 (을유문화사)
- 金庠基, 1985, 『新編 高麗時代史』, 서울대학교출판부.
- 金惠苑, 1986, 「忠烈王 入元行績의 性格」 『高麗史의 諸問題』, 邊太燮 編, 三英社.
- 김두진, 2001, 「高麗前期의 法華觀行 사상」 『법화사상과 동아시아 불교교류』 (2001년공동주관 학술세미나 주제발표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해상왕장보고연구회.
- 김문경, 2000, 「張保阜와 法華三寺」 『신해양시대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법화사지 복원의 현대적 의미』 (제2회 법화사지 학술대회 주제발표문), 제주불교사회문화원.
- 김일우, 2000, 『高麗時代 耽羅史 研究』, 신서원.
- 南都泳, 1996, 『韓國馬政史』, 마사박물관.
- 文明大, 1985, 「法華寺의 歷史와 意義」 『地方文化財 濟州法華寺 復元을 위한 학술세미나』(주제발표문), 서귀포시·법화사복원추진위원회.
- 閔賢九, 1980, 「李藏用小考」 『韓國學論叢』 3,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朴龍雲, 1987, 『高麗時代史(下)』, 일지사.
- 박윤진, 1998, 「高麗時代 開京 一帶 寺院의 軍事的·政治的 性格」 『韓國史學報』 3·4.
- 邊東明, 1993, 「高麗 忠烈王의 妙蓮寺 창건과 法華信仰」 『韓國史研究』 104.
- 서귀포시·제주대학교박물관, 1997, 『法華寺址』, 제주대학교조사보고 19집.
- 安啓賢, 1960, 「麗元關係에서 본 高麗佛敎」 『黃義敦先生古稀記念史學論叢』, 東國大學校史學會.
- 윤용혁, 2000,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 일지사.
- 李永子, 2001, 「한국 천태불교와 법화신앙의 성격」 『법화사상과 동아시아 불교교류』(2001년 공동주관 학술세미나 주제발표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해상왕장보고연구회.
- 李龍範, 1964, 「元代 喇?敎의 高麗傳來」 『佛敎學報』 2,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 李益柱, 1988, 「高麗 忠烈王代의 政治狀況과 政治勢力의 性格」 『韓國史論』 18.
- 이재룡, 2000, 「조선 초기 대명관계와 제주 법화사의 銅佛」 『신해양시대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법화사지 복원의 현대적 의미』 (제2회 법화사지 학술대회 주제발표문), 제주불교사회문화원.
- 이청규·강창화, 1998, 「신창리 해저 유물 산포지」 『복제주군의 문화유적(Ⅰ)』, 복제주군·제주대학교 박물관.
- 全海宗, 1974, 「對宋外交의 性格」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 제주대학교박물관·서귀포시, 1992, 『法華寺址』, 제주대학교조사보고 10집.
- 蔡尙植, 1991, 『高麗後期佛敎史研究』, 一潮閣, 서울.
- 황민호, 2001, 「13세기 濟州道 法華寺의 重創에 대하여」 『법화사상과 동아시아 불교 교류』 (2001년 공동주관 학술세미나 주제발표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해상왕장보고연구회).

### 제3장

#### 일반저서 및 논문류

- 康昌和, 金宗燦, 2000, 『濟州島 天然洞窟內 文化遺蹟 基礎調査報告書』, 제주도.
- 康昌和, 2001, 「耽羅以前的 社會와 耽羅國의 形成」 『제주의 역사와 문화 2』, 제주도·(사)제주예총.

- 康昌和, 2003, 「濟州島 初期 新石器文化의 形成과 展開」 『해양교류의 고고학』, 제26회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문.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韓國考古學事典』, 학연문화사, 133쪽.
- 金宗燦, 2002, 「濟州島 洞窟遺蹟의 性格」, 국립목포대학교석사학위논문.
- 金宗燦, 2003, 「신천 한뫼괘굴유적의 조사성과」 『濟州文化財研究 창간호』, 제주문화예술재단.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1, 『북한문화유적발굴 개요』, 북한문화재조사서 제3 책.
- 문화재청, 2002, 『문화재 보존·관리지침』.
- 손인석, 2001, 「제주 화산도의 천연동굴 분포와 보전」 『동굴연구』, 창간호.
- 송성대, 1993, 「제3장 기후」 『제주도지』, 第1卷.
- 송시태외, 2005, 『곶자왓과 사람들 창간호』, 제주의 허파 곶자왓 지킴이 곶자왓과 사람들.
- 吳蓮淑, 1999, 「제주도 신석기시대 토기연구」, 한양대학교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용조·박선주, 1992, 「단양 구남굴 발굴조사연구」 『박물관기요 8』, 단국대학교박물관.
- 李清圭, 1988, 『北村里遺蹟』, 제주대학교박물관유적조사보고서 제4집.
- 李清圭, 1995, 『濟州道 考古學 研究』, 학연사.
- 李清圭, 2001, 「〈탐라국〉형성전후의 제주도」 『제주의 역사와 문화 2』, 제주도·(사)제주예총.
- 李清圭·康昌和, 1989, 「濟州島 地方의 先史文化와 동굴·바위그늘住居址」 『第4期學會 誌』 창간호.
- 정광중, 2004, 「곶자왓과 제주인의 삶」, 『제주교육대학교 논문집』.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5, 『金寧里 괘내기洞窟遺蹟』,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발굴조사보고서.
- 김종찬(제주문화예술재단 연구사)

## 제4장

### 일본자료

- 「滿洲·朝鮮·64 機密作戰日誌(乙綴)」(日本防衛廳 防衛研究所 所藏)
- 『文庫·柚178 第58軍(濟州島) 關係 復員 資料』, 「제121사단 복원자료」(같은)
- 「朝鮮에서의 戰爭準備(1946年 2月, 朝鮮軍殘務整理簿)」宮田節子編·解説, 『朝鮮軍概要史』, 不二出版, 1989.
- 「本土作戰記錄 第5卷 第17方面軍(1946年 10月, 제1복원국)」 『朝鮮軍概要史』, 不二出版, 1989.

### 미국자료

-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 Hq. USAFIK, G-2 Weekly Summary
- GHQ, U.S. Army Forces, Pacific Adjutant General's Office
- Hq. XXIV Corps, G-3 Operations Report
- Hq. 7th Div, G-2 Periodic Report

HUSAFIK(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Compiled under the supervision of Harold Larson, Chief historian, Tokyo and Seoul, 1947, 1948. Manuscript in the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Washington D.C. (주한미군사, 돌베개 영인본, 1988)

#### 저서·논문

塚崎昌之, 「濟州島における日本軍の‘本土決戦準備’ -濟州島と巨大軍事地下施設」, 『靑丘學術論集』 第22輯, 韓國文化研究振興財?, 2003.

宮田節子 編, 『朝鮮軍概要史』, 不二出版, 1989.

森田芳夫, 『朝鮮終戰の記録』, 嚴南堂書店, 1964.

森田芳夫, 『朝鮮軍殘務整理部, 朝鮮終戰의 記録 資料篇』, 1973.

#### 한국어 저서·논문

강순원, 「제주지역 진지동굴의 역사적 고찰」, 『동굴연구』 제3호, 2004.

김봉옥, 「제주도 내에 구축된 일본군 진지동굴에 대하여」, 일본군 진지동굴 및 진지 심포지엄, 2001.

김창후, 「일제의 군사유적」, 1999.

박정석, 「일본군 제주지역 군사 요새화 배경」, 일본군 진지동굴 및 진지 심포지엄, 2001.

손인석, 「제주도 일대에 구축된 일본군 진지동굴 및 진지현황과 구조」, 일본군 진지동굴 및 진지 심포지엄, 2001.

손인석, 「제주도에 구축된 일본군 진지동굴 구조적 유형과 병력」, 『동굴연구』3, 2004.

신주백, 「1945년 한반도에서 일본군의 ‘본토결전’ 준비 -편제와 병사노무동원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49, 2003.

임종국, 『일본군군의 조선침략사』 II, 일월서각, 1989.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1권, 1994.

제주도, 『제주도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보고서』, 2003.

제주도동굴연구소, 『제주도 일대 구축된 일본군 진지동굴 및 진지 조사연구보고서』, 2001.

제주도·제주예총, 『광복 50주년 여전히 남은 일제의 흔적』, 1995.

제주4·3연구소, 『4·3장정』 6, 1993.

제주시, 『제주시 사라봉~별도봉~화북봉 일대 일본군 진지동굴 종합학술보고서』, 2000.

한국 공군 제8546부대 전사적지 탐방반, 『제주도 전사적지 탐방기』, 1996.

#### 제5장

문창송 편,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묻혀진 4·3의 진상』, 1995.

아라리연구원, 『제주민중항쟁 I』, 소나무, 1988.

이윤, 『진중일기』, 여문각, 2001.

제주도·제주4·3연구소, 『제주4·3유적 I, II』, 각, 2003, 2004.

제주4·3연구소, 『4·3長征 5』, 1992.

제주도의회 『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고서』, 2000.

제민일보4·3취재반, 『4·3은 말한다』1권, 전예원, 1994.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자료집 7, 8』, 2003.

## 【사진 목차】

- <사진 1-1> 서귀포시 지역에서 바라본 한라산 설경 / 12
- <사진 1-2> 『신증동국여지승람』 한라산 명칭 기사 부분 / 12
- <사진 1-3> 구좌읍 송당 백중 마불림제 모습 / 14
- <사진 1-4> 현 중문동 지역의 불목당 모습 / 16
- <사진 1-5> 『탐라지』 제주 연혁조 동·서도현 설치 기사부분 / 18
- <사진 1-6> 한라산 전경이 바다다 보이는 제주시내 모습 / 19
- <사진 1-7> 현 한라산 지역의 말 목장 모습 / 20
- <사진 1-8> 만개한 한라산 지역의 호장근 모습 / 21
- <사진 1-9> 구좌읍 평대리 비자림지대 모습 / 22
- <사진 1-10> 2000년 제주문화원 편 / 24
- <사진 2-1> 법화사지에 산재한 주초석 / 30
- <사진 2-2> 존자암지 전경 / 32
- <사진 2-3> 건물간의 축대 / 33
- <사진 2-4> 금당지와 전정시설 / 33
- <사진 2-5> 국성재(國聖齋)를 지내던 비각건물지 / 34
- <사진 2-6> 금당지와 내부 온돌시설 / 35
- <사진 2-7> 건물지 주춧돌과 기와 무더기 / 35
- <사진 2-8> 존자암 석존 사리탑 / 36
- <사진 2-9> 청동제 신장상 출토 모습 / 36
- <사진 2-10> 수행굴 입구 / 37
- <사진 2-11> 존자암의 옛터로 추정되는 영실의 수행굴 / 38
- <사진 2-12> 수정사지 발굴 전경 / 40
- <사진 2-13> 고려 말 금당지 앞쪽 탐지 / 41
- <사진 2-14> 소탑 접합 면석과 인왕상 / 41
- <사진 2-15> 금당지 앞쪽 석등지 / 42
- <사진 2-16> 11세기 건물지 적심석 내부 의례용 초기청자 출토 모습 / 42
- <사진 2-17> 청동순가락 출토 모습 / 43
- <사진 2-18> 금동금구 출토 모습 / 43
- <사진 2-19> 해태귀면편 출토 모습 / 45
- <사진 2-20> 조선통보 출토 모습 / 45
- <사진 2-21> 옛 수정사 터와 그 곳 설치의 현 공원 시설 모습 / 47
- <사진 2-22> 현 외도동 지역의 외도천 하류 모습 / 48
- <사진 2-23> 『탐라순력도』 「한라장축」 / 49
- <사진 2-24> 현 외도동 지역의 마을 전경 / 50
- <사진 2-25> 옛 원당사지에 들어선 현 불탑사 대웅전의 모습 / 55
- <사진 2-26> 원당사지 표시석 / 56
- <사진 2-27> 1935년 석가탄신일 원당사지 앞 기념촬영 / 58
- <사진 2-28> 하원동 법화사지 발굴 전경 / 61
- <사진 2-29> 법화사지 건물지 노출 전경 / 62

- <사진 2-30> A지구 북서쪽 기와보도 / 71
- <사진 2-31> 운봉문막새 / 74
- <사진 2-32> 운용문막새 / 75
- <사진 2-33> 법화사지 발굴조사 출토 명문기와편 모습 / 76
- <사진 2-34> 청자상감 국화문 바래기 / 778
- <사진 2-35> 청동 명문접시 / 82
- <사진 2-36> 법화사지 기와자기 매립터 / 88
- <사진 2-37> 현 법화사 대웅전의 전경 / 91
- <사진 2-38> 법화사지에 복원된 구품연지의 모습 / 96
- <사진 2-39> 오늘날의 영천관터 모습 / 97
- <사진 2-40> 현 영천관터의 수습유물 모습 / 98
- <사진 2-41> 효돈천 예기소의 깊은 V자 계곡 모습 / 103
- <사진 2-42> 상호동 제2효례교 하류 '섭소'의 모습 / 104
- <사진 2-43> 효돈천 온대낙엽 활엽수림대 / 106
- <사진 2-44> 효돈천 줄기와 미악산 전경 / 108
- <사진 3-1> 고산리 동굴 입구와 동굴 내부 / 116
- <사진 3-2> 월령리 한드르동굴 입구 모습 / 118
- <사진 3-3> 신천 한뫼괘굴 유적 모습 / 119
- <사진 3-4> 색달동 들렁괘유적 모습 / 121
- <사진 3-5> 상예동 바위그늘유적2호 모습 / 123
- <사진 3-6> 신례리 바위그늘유적 모습 / 124
- <사진 3-7> 북촌리바위그늘유적 모습 / 125
- <사진 3-8> 김녕리 궤네기굴유적 모습 / 127
- <사진 3-9> 김녕 묘산봉동굴유적 / 128
- <사진 3-10> 관전동 바위그늘유적 / 130
- <사진 4-1> 어승생악 갯도 내부 / 175
- <사진 4-2> 어승생악 갯도 내부 / 176
- <사진 4-3> 당오름 갯도 내부 / 179
- <사진 4-4> 원물오름 갯도 입구와 내부 / 179
- <사진 4-5> 도너리 오름 갯도 내부 / 180
- <사진 4-6> 단산의 갯도 위치 / 180
- <사진 4-7> 산방산 갯도 내부 / 181
- <사진 4-8> 용머리 해안의 갯도 위치 / 181
- <사진 4-9> 논오름 갯도 내부 / 182
- <사진 4-10> 월라봉 갯도 내부 콘크리트 구조물 / 182
- <사진 4-11> 군산 갯도 내부 / 183
- <사진 4-12> 알오름 갯도 내부 / 183
- <사진 4-13> 알오름 정상에서 본 송악산 / 184
- <사진 4-14> 가마오름 갯도 내부 / 184
- <사진 4-15> 이계오름 갯도 입구 / 185
- <사진 4-16> 이계오름 갯도 내부 / 185

- <사진 4-17> 죽은바리메 갯도 입구 / 187
- <사진 4-18> 죽은바리메 갯도 내부 / 187
- <사진 4-19> 삼의악 부근 하천 갯도의 입구 / 189
- <사진 4-20> 삼의악 부근 하천 갯도의 내부 / 189
- <사진 4-21> 오등봉 갯도 내부 / 190
- <사진 4-22> 사라봉 갯도 내부에서 본 입구 / 190
- <사진 4-23> 별도봉 갯도 입구 / 191
- <사진 4-24> 수악교 부근 석축 진지 / 191
- <사진 4-25> 검은오름 분화구 내 석축진지 / 194
- <사진 4-26> 부대오름 갯도 내부 / 194
- <사진 4-27> 대륙산 갯도 내부 / 195
- <사진 4-28> 교래비행장과 연결된 대륙산 갯도 진지 / 195
- <사진 5-1> 오림반, 한수기곶 / 202
- <사진 5-2> 이덕구산전, 북받친밭 / 206
- <사진 5-3> 수악주둔소 / 208
- <사진 5-4> 시오름두둔소 / 210
- <사진 5-5> 관음사 주둔소 / 211
- <사진 5-6> 영남동 / 212
- <사진 5-7> 한라산개방 평화기념비 / 214

**【그림 목차】**

- <그림 3-1> 제주도 동굴유적 및 야외유적 분포도 / 142
- <그림 3-2> 제주도 천연동굴 분포도 및 용천·하천 분포도 / 143
- <그림 3-3> 신천 한뫼괘굴유적 평면·층위도 / 144
- <그림 3-4> 각 유적의 평면·층위도 / 145
- <그림 3-5> 각 유적의 평면·층위도 / 146



- <그림 3-6> 제주도 동굴유적 출토 토기류 / 147
- <그림 3-7> 제주도 동굴유적 출토 토기류 / 148
- <그림 3-8> 제주도 동굴유적 출토 토기류 / 149
- <그림 3-9> 제주도 동굴유적 출토 토기류 / 150
- <그림 3-10> 제주도 동굴유적 출토 석기류 / 151
- <그림 3-11> 제주도 동굴유적 출토 골각기 및 기타 / 152
- <그림 4-1> 제주도병력기초배치요도 / 159
- <그림 4-2> 제58군배비개건도 / 160
- <그림 4-3> 일본군 병력배치도 / 161
- <그림 4-4> 일본 제58군 방어진지 위치도 / 162

**【표 목차】**

- <표 3-1> 제주도 상고시대 연대표 / 135
- <표 4-1> 제96사단 / 163
- <표 4-2> 제111사단 / 165
- <표 4-3> 제121사단 / 166
- <표 4-4> 제주도부대 일람표 / 169
- <표 4-5> 제주도 주둔 제58군 병력 현황 / 170
- <표 4-6> 지역별·유형별 전적지 분포 현황 / 174

